

## V.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1. 관 학
2. 사 학
3. 과거제의 정비와 운영
4. 과거의 종류

## V.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 학

조선시대의 교육은 크게 관학과 사학으로 나눌 수 있다. 관학 교육기관으로서 成均館·四部學堂(四學)·宗學·雜學·鄉校 등이 있었으며, 사학 교육기관으로는 書齋·書堂·家塾 등이 있었다.

#### 1) 성균관

##### (1) 명칭과 시설

성균관은 문과시험을 준비하는 조선왕조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다. 성균관은 관학의 최고학부였기 때문에 유생들이 학습·기숙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 이 점은 사학·종학·향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성균관의 명칭은 國學·太學·泮宮·賢關·芹官이라고도 하였다. 「成均」은 禮樂을 통하여 국가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sup>1)</sup> 「國學」은 「國의 學」이라는 뜻이요,<sup>2)</sup> 「太學」은 「大學」과 같은 뜻으로 천자의 학을 의미하였으니<sup>3)</sup> 「국학」이 제후의 학이라면 「태학」은 천자의 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혼동하여 쓰이기도 하였다. 뒤에 중앙의 관학을 國子學·太學·四門學으로 나누었으나 이 때의 태학은 입학생 등급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였다.

1) 《文獻通考》권 40, 學校考 1, 太學.

2) 위와 같음.

3) 위와 같음.

고려 말 이후의 성균관은 두 가지 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국가의 지배사상인 주자학이념 보급의 근거지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관료를 양성하는 관료양성소로서의 기능이다. 고려 말의 신흥사대부와 신흥무장이 주축이 된 신귀족들은 불교를 신봉하고 사학에 근거를 둔 구귀족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주자학과 관학을 일으켰다. 충렬왕 30년(1304) 5월에 安珦이 국왕 이하 백관에게서 돈을 거두어 成均監에 장학재단인 贍學錢을 두고, 박사 金文鼎을 원에 보내어 공자 및 70제자의 상과 문묘제기·악기와 6경·제자·사서를 수입하여 오게 한 것이나,<sup>4)</sup> 스스로 노비 300구를 시납한 것이나,<sup>5)</sup> 충숙왕 6년(1319) 6월에 博士 柳衍, 學諭 俞迪을 강남에 보내어 송의 秘閣圖書 10,800권을 사온 것이나, 원으로부터 다시 서적 4,071책을 받아 온 것 등이 그 예이다.<sup>6)</sup> 權溥·李瑱·權漢功 등의 유학자들은 성균관에 모여 이러한 책들을 정리 연구하여 주자학 보급에 박차를 가하였다.<sup>7)</sup> 그리하여 공민왕 16년(1367) 12월에는 崇文館의 옛터에 불타버린 성균관을 중창하고 李穡을 兼大司成, 鄭夢周·朴尙衷·朴宜中·李崇仁 등을 兼教官으로 삼아 성균관 교육을 강화하였다.<sup>8)</sup> 교과서는 주로 《四書集註》가 채택되었으며,<sup>9)</sup> 이미 이에 대한 倡註까지 나돌게 되었다.<sup>10)</sup> 이러한 주자학연구는 공양왕대에 구귀족의 불교를 배척하고 이성계 중심의 새 왕조를 개창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sup>11)</sup> 공양왕 3년(1391)에 성균관의 대사성 鄭道傳과 朴礎 등 급진적인 성균관 유생들이 사원을 혁파하여 이성계 세력의 인적·물적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한 주장이 그것이었다.<sup>12)</sup>

4) 《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5) 《成宗實錄》 권 70, 성종 7년 8월 무신조에 의하면 文籍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安珦(조선 문종의 諱가 珦이라 避諱하여 裕로 고쳤음-필자)이 國學에 노비 300구를 施納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6) 《增補文獻備考》 권 202, 學校考 1, 太學 1 충숙왕 원년 6월.

7) 위와 같음.

8) 《高麗史》 권 115, 列傳 28, 李穡.

9) 《高麗史》 권 117, 列傳 30, 鄭夢周.

10) 《高麗史》 권 107, 列傳 20, 權珪 附 溥.

11) 李相佰, 〈儒佛兩教 交代的 機緣에 대한 研究〉(《韓國文化史研究論考》, 乙酉文化社, 1941).

12) 《增補文獻備考》 권 202, 學校考 1, 太學 1.

조선이 건국되고 유교가 국가의 지배사상이 되자 성균관은 ‘明人倫 成人才’<sup>13)</sup>의 사명을 띠고 태조 7년(1399)에 국도 건설의 일부로 지금의 성균관대학교가 있는 崇敎坊에 明倫堂·文廟·東西齋·正錄廳·養賢庫·식당 등 96칸에 이르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sup>14)</sup> 그러나 정종 2년(1400)에 문묘가 불타버려<sup>15)</sup> 태종 7년(1407)에 중건되었으며<sup>16)</sup> 동왕 9년에는 예문대재학 卞季良으로 하여금 문묘비를 지어서 세우도록 하였다.<sup>17)</sup> 그 후 성종 3년(1472) 가을에 문묘 옆에 문묘향사의 일을 담당하는 典祀廳을 지었으며,<sup>18)</sup> 성종 5년 윤6월에는 기존 泮水の 양안에 석축을 쌓고,<sup>19)</sup> 성종 9년 7월에 반수를 갖추어 왔다.<sup>20)</sup> 아울러 성종 6년 가을에는 명륜당 북쪽에 도서관인 尊經閣을 세우고 5경·4서 각 10책과 8도로부터 찍어올린 책 수만 권을 수장하고 司藝·學正 각 1인씩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sup>21)</sup> 그러나 연산군 때에 성균관이 왕의 宴樂 장소로 바뀌어 교육기능을 잃었다가 중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문묘를 중수하고 교육기능을 그 전처럼 복구시키고 명나라의 예에 따라 문묘묘정비를 세웠다.<sup>22)</sup> 그 후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으로 성균관이 불타버려 선조 34년에 문묘를, 선조 39년에 명륜당 등을 다시 세웠다.<sup>23)</sup>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인조 4년(1626)에 李廷龜의 陰記를 더하여 변계량의 문묘비를 다시 세우고 효종 4년(1653)에는 香室을 다시 지었다.<sup>24)</sup> 또한 현종 4년(1663)에는 서울의 두 尼院을 헐어 北學을 세우려다가 명륜당 서쪽에 丕闡堂을 세워 명륜당의 별당학사로 사용하게 하였으며,<sup>25)</sup> 그 북쪽

13) 鄭道傳, 《三峯集》 권 7, 朝鮮經國典, 學校.

14) 成均館은 漢陽으로 도읍을 옮긴 다음해인 태조 4년(1395)에 착공하여 3년 뒤인 태조 7년(1398) 7월에 완공되었다(《太學志》 상, 권 1, 學舍·廟宇).

15) 《定宗實錄》 권 3, 정종 2년 2월 정유.

16) 《太宗實錄》 권 13, 태종 7년 3월 기해.

17) 《東文選》 권 121, 有明朝鮮國學新廟碑銘并序.

18) 《增補文獻備考》 권 203, 學校考 2, 太學 2.

19) 《成宗實錄》 권 44, 성종 5년 윤6월 신축.

20) 《成宗實錄》 권 95, 성종 9년 7월 계미.

21) 《增補文獻備考》 권 203, 學校考 2, 太學 9 성종 6년 가을.

22) 《增補文獻備考》 권 203, 學校考 2, 太學 2 중종 원년·6년.

23) 《增補文獻備考》 권 203, 學校考 2, 太學 2 선조 34년·3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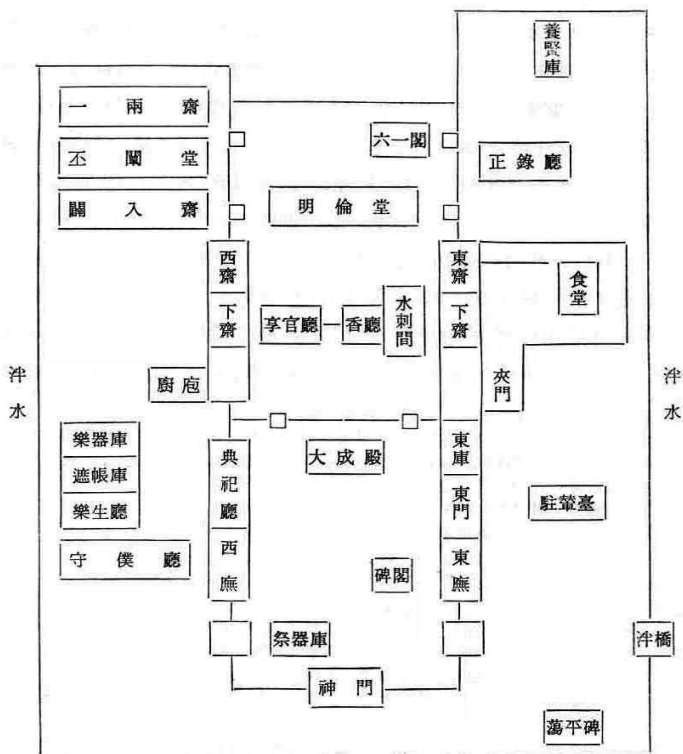
24) 《增補文獻備考》 권 203, 學校考 2, 太學 2인조 4년·효종 4년·현종 5년 추 9월.

25) 《太學志》 하, 권 9, 事實 紀蹟. 丕闡堂에 대해서는 宋時烈的 〈丕闡堂記〉에서,

에 一兩齋, 남쪽에 關入閣을 지었고,<sup>26)</sup> 영조 19년(1743)에는 大射禮를 행하는 六一閣을 명륜당 동북쪽에 세웠다.<sup>27)</sup>

「丕闡」이란 말은 朱子가 말한 ‘丕闡大猷 抑邪與正’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丕闡堂은 조선 후기에 과거시험장으로 쓰였다.

- 26) 《太學志》 하, 권 9, 事實 紀蹟 下. 「一兩」이란 이단인 불교의 사찰을 헐어 유학의 학사를 지었으니 ‘一舉而兩得’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朱子), 「關入」이란 ‘關之而後 可以入道’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程子).
- 27) 《增補文獻備考》 권 203, 學校考 2, 太學 2 영조 19년 5월. 「六一」이란 射가 六藝(禮·樂·射 御·書·數)의 하나라는 데서 따온 것이다. 한편 成均館의 각 건물의 위치를 《太學志》 상, 권 2, 建置泮宮圖에 의거하여 간단히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 (2) 문묘종사와 석전

문묘의 주향은 文宣王 孔子였다. 공자는 당나라 이전까지는 왕이라고 부르  
지 않았으나 당 玄宗 開元 27년(739)에 문선왕으로 불렸고 명 世宗 嘉靖 9년  
(1530) 이후로는 至聖先師라고만 불렸다. 그러나 조선왕조에서는 원 武宗 大  
德 11년(1307)에 정한 大成至聖文宣王이라는 시호를 준용하였다. 왕이 아니면  
서 왕의 칭호를 받은 사람은 공자가 유일하였는데 이는 후세에 끼친 교육의  
공로가 컸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성균관 문묘에 종사된 명현은 모두 133인이다. 이 중 崔致遠 ·  
薛聰 · 安珣 · 鄭夢周 · 金宏弼 · 鄭汝昌 · 李彥迪 · 趙光祖 · 李滉 · 金麟厚 · 李珣  
· 成渾 · 金長生 · 金集 · 趙憲 · 宋浚吉 · 朴世采 등 18인이 한국의 儒賢이다.

성균관은 유교이념의 전당으로서 학통과 학문의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하  
여 선현을 문묘에 종사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朱熹를 비롯한 宋儒들을 많  
이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문묘와는 별도로 啓聖祠가 있어 공자의 부 叔梁紇  
을 정위에, 顔子의 부 顔無繇와 子思의 부 孔鯉는 동위에, 曾子의 부 曾皙과  
孟子의 부 孟孫은 서위에 모셔 석전 전날 밤에 제사하였다. 이것은 선조 7년  
(1574) 조현의 건의에 따라 명나라 洪武禮制를 본뜬 것이다.<sup>28)</sup>

문묘의 제향을 釋奠祭라 하는데 정규적인 석전제는 봄 · 가을 仲月(3·9월)  
上丁日(최초의 丁字가 든 날)에 행하게 되어 있었다. 정규 제향인 석전제 이외  
에 일이 있을 때마다 행하는 朔望祭(임진왜란 이후에는 폐지되어 분향만 하였  
음) · 告由祭 · 慰安祭 · 移還安祭 · 禮成祭 등이 있었으며, 3년마다 한번씩 국왕  
이 참여하는 親臨酌獻이 있었고, 왕명에 의하여 특별히 실시되는 親臨釋奠이  
있었다.

석전제의 獻官은 정2품, 亞獻官은 정3품 당상관, 終獻官은 정3품, 殿內東 ·  
西從享分獻官 각 1명은 4품, 兩廡從享分獻官 각 10명은 5~6품의 관원이 맡  
았으며, 국왕의 친행석전에서는 국왕이 헌관, 왕세자가 아헌관, 영의정이 중  
헌관, 정2품 각 1명이 전내동 · 서종향분헌관, 정3~4품 각 10명이 양무종향

28) 《增補文獻備考》권 204, 學校考 3, 文廟 선조 7년.

분헌관을 맡았고, 왕세자 석전에서는 왕세자가 헌관, 정2품이 아헌관, 정3품 당상관이 중헌관을 각각 맡았고, 분헌관은 常時釋奠과 같았다.<sup>29)</sup> 그리고 석전의식은 중국 州縣의 석전의 예에 따랐으며 고려시대의 塑像을 쓰던 것을 조선시대에는 位版을 썼다. 석전제 이외에도 성균관에서는 대사례와 양로연, 국왕·왕세자의 幸學·視學을 행하기도 하였다.

### (3) 입학 및 교육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국초에 200인(《經國大典》)이었는데 흥년 때문에 때때로 그 수를 줄였다가 세조대에 복구하였으나 뒤에 75인으로 줄였으며 영조 7년(1742)에 100인으로 늘렸다.<sup>30)</sup>

성균관 유생은 생원·진사인 上齋生(정규생)과 상재생이 모자랄 때 幼學으로서 보충하는 寄齋生으로 구분되었다. 기재생은 4학에서 陞補試를 거쳐 올라온 4학 승보생과 문음 자제들 중에서 뽑는 문음 승보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문음 승보생의 대상은 태종대에 2품 이상의 자제에게만 한하던 것을 세종대에는 4조 내에 3품 이상 관을 지낸 사람이나 의정부·6조·대간직을 지낸 사람의 자제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들은 생원·진사시를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기재생의 대부분이 문음 승보생으로 채우게 될 우려가 있어 세종 15년(1433) 9월에는 문음 승보생의 수를 30인으로 제한하고 세종 18년부터는 《小學》에 통하지 않으면 누구나 기재생이 될 수 없게 하였다. 상재생은 원칙적으로 생원·진사에 한하였으나 점차 완화되어 문과의 鄉試·漢城試에 한 번 합격한 자, 생원·진사시의 향시·한성시에 두 번 합격한 자, 현직관료 참상·참학관도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sup>31)</sup> 그리고 왕세자도 성균관에 元子學宮을 지어 유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하였다. 왕세자는 8세가 되면 길일을 택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입학례의 주례인 박사는 예문대제학이 맡게 되어 있었다.

29) 《增補文獻備考》 권 204, 學校考 3, 文廟 齋宮釋尊·親行釋奠·王世子釋奠.

30) 《太學志》하, 권 7, 餼廩 供給. 영조 7년에 유생 100인 외에 寄齋生 20인, 掌議 2인, 色掌 4인을 합쳐 정원이 총 126인이었다.

31) 李成茂, 〈鮮初의 成均館 研究〉(《歷史學報》 35·36, 1967), 256~257쪽.

재학 연한은 제한되어 있지 않았으며 圓點 300을 따서 문과 초시의 응시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원점은 매일 아침·저녁 식당에 참석하는 것을 원점 하나로 계산해 주었다.<sup>32)</sup> 유생들이 식당에 들어갈 때 井字로 된 칸 안에 이름을 써넣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점을 食堂到記라고도 불렀다. 유생들은 4서 5경과 《近思錄》·《性理大全》·《通鑑》·《左傳》·《宋元節要》·《經國大典》·《東國通鑑》 등 과거과목, 그리고 製述을 아울러 공부하였다. 그리하여 공부한 결과를 學官日講·學官旬製, 禮曹月講, 의정부·6조·제관 당상관들의 3월 3일·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제술시험인 年考를 통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었다.<sup>33)</sup> 학관일강과 예조월강은 講經시험(Oral Test)이었고, 학관순제<sup>34)</sup>의 춘추년고는 제술시험(Written Test)이었다. 이 시험의 결과는 分數로 계산되어 우수한 자를 추천하여 서용하거나 문과시험을 볼 때 참작하였다. 경서를 공부하는 기간은 《대학》 1개월, 《중용》 2개월, 《논어》·《맹자》 각 4개월, 《시경》·《춘추》 각 6개월, 《주역》·《예기》 각 7개월이었으며 강경의 점수는 「通」·「略」·「粗」·「不」로 구분하였다.<sup>35)</sup> 「통」은 2분, 「약」은 1분, 「조」는 반분을 주었으며 句讀와 訓釋이 정통·능숙하고 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여 꿰뚫었으며 변설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는 「통」, 구두와 출석이 모두 분명하고 비록 대의를 통하기는 하나 아직 완전히 이해하여 꿰뚫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자는 「약」, 구두와 훈석이 모두 틀림이 없으며 강론이 비록 해통하지는 못하나 일장의 대의를 잃지 않은 자는 「조」, 불합격자는 「불」을 주었다.<sup>36)</sup> 나아가서 제서에 융회관통한 자에게는 특별히 「大通」(또는 「純通」)을 주기도 하였다.<sup>37)</sup>

32) 《世宗實錄》 권 2, 세종 즉위년 12년 무자.

33) 《經國大典》 권 3, 禮典 獎勵.

34) 초순에 疑義·論, 중순에 賦·表·頌, 하순에 對策·記를 시험보였다(《太學志》 상, 권, 章甫 學令).

35) 《京外學校節目》(명종 원년). 세종 3년(1459)에는 고려 말의 예를 따라 성균관에 「大學」·「中庸」·「論語」·「詩經」·「書經」·「春秋」·「禮記」·「周易」 등 四書五經齋(九齋)를 두어 차례로 승급하게 하고 이 과정을 다 마친 자에게는 문과시험의 會試나 殿試에 直赴하는 제도를 두기도 하였다(《太學志》 상, 권 7, 造士).

36) 《經國大典》 권 3, 禮典 諸科 講書.

37) 《太學志》 상, 권 5, 章甫 學令.



그리고 제술의 평점은 상상에서 하하까지의 9등급을 두어 상상에 9분, 하하에 1분을 주었다.<sup>38)</sup>

한편 성균관의 각종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는 문과 初試・會試・殿試에 直赴하거나 합격시키는 특전을 주었다. 節(日)製・通讀・到記(科)・殿講・應製・謁聖試・館試 등의 시험이 그것이었다.

節製에는 매년 정월 7일(人日)에 보이는 인일제, 3월 3일에 보이는 삼일제, 7월 7일에 보이는 칠일제, 9월 9일에 보이는 구일제의 四製가 있었다. 이 중 인일제와 칠일제를 儒生上旬輪次, 삼일제와 구일제를 儒生課試라고도 불렀다.<sup>39)</sup>

通讀은 숙종대부터 실시된 시험으로 《續大典》에 의하면 매년 성균관 대사가 경향의 유생들에게 강경과 제술시험을 각각 11번씩 실시하여 두 가지 시험에 성적이 우수한 자 각 5인씩 10인을 문과 회시나 전시에 직부하게 되어 있었다. 이 때의 제술시험에는 賦 1편과 表・箋・論 중 1편을, 강경시험에는 4서 3경을 背講으로 시험보였다.<sup>40)</sup>

到記(科)는 관학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실시된 시험으로 왕의 特旨가 있을 때 불시에 그 당시 식당도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유생을 대상으로 강경이나 제술시험을 보여 이 중 성적이 우수한 자 약간명을 문과 회시에 직부시키거나 給分하는 특별시험이었다. 이 시험은 성균관 유생뿐 아니라 4학 유생들도 응시하였는데 성적이 우수한 성균관 기재생이나 4학 유생들은 생원・진사시 회시에 직부할 수 있었다.

殿講도 조선 후기에 역시 관학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매 4仲朔(2·5·8·11월) 16일에 그 전날 저녁의 식당도기에 올라 있는 성균관·4학 유생을 선발하여 실시한 강경시험이었다. 이 시험에도 기재생·4학 유생이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들 중 우수한 자는 생원・진사시 회시에 직부되었다.<sup>41)</sup>

38) 《經國大典》권 3, 禮典 諸科 製述.

39) 《太學志》하, 권 8, 選舉 節製.

40) 《續大典》권 3, 禮典 諸科 通讀.

41) 《太學志》하, 권 8, 選舉 殿講. 「太學成典」에는 殿講이 每 四孟朔(1·4·7·10년) 15일에 生·進 4~5인, 寄齋生 2인, 四學儒生 1인을 왕의 落點을 받아 시험보도록 했다고 하였다.

應製는 節製 이외에 왕의 특명으로 왕 자신이나 대제학이 출제하여 궁중에서 성균관·4학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출시험이었다. 이 시험은 관학 유생의 수준을 국왕이 직접 테스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때로는 우수한 자를 급제시키기도 하였다<sup>42)</sup>

謁聖試는 국왕이 친히 성균관 문묘에 행차하여 酌獻禮를 행한 직후에 실시하는 제술시험으로서 단 한번의 시험으로 급제자를 정하는 卽日放榜의 특별시험이었다. 뽑는 숫자는 그때그때 정하였고 장원에게만 급제를 주기도 하고, 혹은 수인, 많을 때는 55인에게 급제를 준 적도 있다.

館試는 성균관시의 준말로 성균관 유생들만 시험을 볼 수 있는 문과 초시의 일종이다. 관시의 試取 정원은 50인으로 성균관 유생으로서 원점 300이 찬 사람에 한하여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점 300을 딴 유생이 모자랄 때는 원점수를 그때그때 하향 조정하기도 하였다. 관시는 성균관 유생이 목표로 하는 가장 중요한 정규 문과시험이었다.<sup>43)</sup>

한편 오랫동안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학문과 행실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50세가 된 자나, 학관일강·순과(제), 예조월강의 성적이 우수한 자, 문과관시·한성시에 일곱 번 합격하고 나이가 50이 된 자는 왕에게 천거하여 벼슬을 주기도 하였다.<sup>44)</sup> 이를 公薦이라 하는데 掌議들이 泮宮齋會를 열어 원점을 많이 받은 3인을 이조에 추천하여 벼슬을 주게 되어 있었다.

#### (4) 관 학

《경국대전》에 의하면 성균관 學官의 수는 37인이었다.<sup>45)</sup> 그러나 성균관 학관의 수는 점차 늘어서 《태학지》가 만들어진 조선 후기에는 56인이 되었으며, 유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훌륭한 자질을 가진 관료들을 검교관으

42) 《太學志》 하, 권 8, 選舉 應製. 세조 3년(1457)에 세조가 忠順堂에서 성균관 4학 유생 56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應製에서 진사 成倪에게 급제를 준 바 있다.

43) 《太學志》 하, 권 8, 選舉 館試.

44) 《經國大典》 권 3, 禮典 獎勸.

45)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의 成均館 學官의 職官表를 비교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太學志》 상, 권 5, 職官; 李成茂, 앞의 글, 253쪽).

로 임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 후기의 知館事·大司成·祭酒(漵주)·司業 등의 고위 직책은 대제학 또는 학식이 높은 관료들로 겸임하게 하였고 兼博士·兼學正·兼學錄·兼學諭 등 참하관의 하위직도 奉常寺官이나 4학 훈도가 겸임하게 하였다. 예컨대 여말 선초에 이색·정몽주·권근·변계량 등의 석학들이 검교관이 된 바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김장생을 사업, 이준경·송준길 등을 漵주에 임명하여 사림의 宗長들이 성균관직을 맡는 관례를 만들었다.

품계 \ 계급	태조 원년 (1392)	태종 원년 (1401)	세조 12년 (1466)	《경국대전》	《태 학 지》
정 1 품					知事1 (大提學 兼) 同知事 2 (他官 兼)  大司成 1 (兼官時 정3 품~종1품) 祭酒 2(종1 품~정3품)
종 1 품					
정 2 품	知館事 1	知館事 1	知事 1	知事 1	
종 2 품	同知館事 1	同知館事 1	同知事 1	同知事 1	
정 3 품 (당상관)			大司成 1	大司成 1	
정 3 품 (당하관)	大司成 1	大司成 1			
종 3 품	祭酒 1	司成 1	司成 2	司成 2	司成 1
정 4 품	樂正 2	司藝 2	司藝 4	司藝 4	司藝 2 司業 2(學行人)
정 5 품	直講 1	直講 1	直講 4	直講 4	直講 4 兼直講 1
정 6 품	典簿 1	主簿 1	典籍 4	典籍 13	典籍 13 養賢庫兼主簿 (典籍兼)
정 7 품	博士 2	博士 2	博士 1	博士 3	
종 7 품	諄諭博士 2	諄諭博士 2			
정 8 품	進德博士 2	進德博士 2	進德博士 2		博士 3 兼博士 3 學正 3 兼學正 3
정 9 품	學正 2 學錄 2	學正 2 學錄 2	學正 1 學錄 1	學正 3 學錄 3	
종 9 품	進學 2 學諭 4	進學 2 學諭 4	直講 2 學諭 4	學諭 3	學錄 3 兼學錄 3 學諭 3 兼學諭 3
					兼直長 1 (博士以下兼) 兼奉事 1 (學正以下兼)
계	24	24	28	37	56

성균관 학관은 4학이나 종학의 교관을 겸임하기도 하였다. 성균관 학관이 종학 교관을 겸임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 2년(1430) 3월부터였다.<sup>46)</sup> 그러나 때로는 集賢殿官 등 동반의 顯官이 겸임하기도 하고 군직을 겸대하기도 하였다. 세종 18년에는 성균관 학관과 집현전관이 반반씩 종학 교관을 겸하기도 하였다.<sup>47)</sup> 그러나 세조 12년(1466)에는 導善(정4품)·典訓(정5품)·司誨(정6품) 등 종학의 전임 교관을 두기에 이르렀다.<sup>48)</sup>

국가에서 성균관 교육을 계속적으로 장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균관 학관은 인기가 그리 없었다. 권력의 핵심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주 교체되었다. 검교관제를 활용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으며 直講을 久任職(30개월)으로 하여 성균관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하였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성균관 참의(하)관은 1년 兩都目에 임기는 30개월이었다. 그런데 7품에서 6품으로 올라갈 때 세밑 도목(12월)에 거관하는 사람은 경관 6품을, 6월 도목에 거관하는 사람은 외관 6품을 주었다. 이는 三館(成均館·承文院·校書館) 참하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조에서는 한때 6월 도목을 폐지하였으나 行守法이 실시된 뒤로는 선·후진의 질서가 문란하여져서 6월 도목을 부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문종 즉위년(1450) 4월부터 殿最에 의한 승품규정으로 바뀌었다.<sup>49)</sup> 성균관 書吏는 1년 양도목에 매년 1~2인씩 8품으로 거관되었다.<sup>50)</sup>

### (5) 성균관의 경제적 기반

성균관의 경제적 기반은 성균관 학전의 稅收와 성균관 노비의 身貢에 있었으며, 釋奠祭物과 酒米는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였다.

성균관의 學田은 국초의 1,035결에다가 세종 13년에 준 965결을 합치면 2,000결이었다. 거기에다가 세종 29년에 내려준 학전 약간과 성종 15년(1484)

46) 《世宗實錄》권 14, 세종 12년 3월 병오.

47) 《世宗實錄》권 38, 세종 28년 정월 임오.

48) 《世祖實錄》권 38, 세조 12년 정월 무오.

49) 李成茂, 앞의 글, 254쪽.

50) 위와 같음.

의 400결, 중종 6년(1511)의 100결 등 2,500여 결에 이르렀고 그 후에도 가끔 학전을 더 지급하였다. 학전의 1년 세수입은 세조 4년에 600석이라 하였는데 성균관 유생 200인을 기르기 위하여는 960석이 든다고 하였다. 그러니 360석이 모자라 학생수를 줄이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성종 15년(1484)에 400결을 더 준 것은 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51)</sup>

그리고 성균관의 油炭·鋪陣·席子·地衣 등은 성균관 외거노비의 신공으로 충당하였다. 성균관 노비는 관내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되는데 관내노비는 관내의 잡역과 문묘제향, 유생의 조식공급 등을 맡았고 외거노비의 신공은 앞에 말한 용도로 쓰였다. 성균관 노비는 소위 고려시대에 안향이 시납한 300구와 세종 원년(1419)에 더 지급한 100구 및 그 이후에 늘어난 약간의 노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균관 노비는 종종 시녀나 他司노비·공신노비로 전속되거나 다른 역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차례의 금령이 내려졌으나 제대로 실현된 것 같지는 않다. 성균관의 학전이나 노비가 자주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게 된 것도 성균관 교육을 부실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sup>52)</sup>

성균관의 전곡출납은 양현고에서 맡았다. 양현고는 고려 예종 14년(1119)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sup>53)</sup> 그러나 출납되는 전곡은 호조에서 수령하였다. 국초에는 학당의 경비를 전적으로 양현고에서 맡아 왔으나 세종 17년부터는 豐儲倉에 그 업무를 이관하였다. 그런데 세조 10년(1465)에는 계속되는 흉년으로 양현고를 일시 풍저창에 합속시키고 성균관 녹관 중에서 참상 1인과 참의 2인을 풍저창에 파견하여 전곡을 출납케 하였다. 그러나 양현고가 풍저창에 귀속된 뒤로 여러 가지 불편이 생겨 성종 14년 12월에 양현고를 복설하였다. 양현고에서는 유생들의 飯米·助饌·氷·油炭·紙筆墨·香·席子 등 일체를 공급하였다.<sup>54)</sup>

51) 李成茂, 위의 글, 263쪽.

52) 李成茂, 위의 글, 264쪽.

53) 《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54) 李成茂, 앞의 글, 264~265쪽.

## 2) 4부 학당(4학)

### (1) 학당의 설치

학당은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던 고려 원종대부터 설치되었다. 즉 원종 2년(1261) 3월에 원의 제도를 모방하여 동·서학당을 설치하고 각각 別監·敎學·敎導를 두었던 것이 학당의 시초였다.<sup>55)</sup> 그러나 동·서학당은 고려 말의 내우외환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가 공양왕 2년(1390) 2월에 이르러 경종 5부에 각각 학당을 설치하게 되었다.<sup>56)</sup> 그런데 이 때의 학당은 고려의 사학 12도를 없애고 대신 세운 것에 지나지 않았다.<sup>57)</sup> 그러나 이 때의 5부 학당은 이름뿐이고 학사조차 없어서 불사를 빌려 쓰는 실정이었다.

조선왕조의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뒤인 태종 11년(1411) 6월에 남부학당, 세종 4년(1422) 12월에 중부학당, 세종 17년 11월에 서부학당, 세종 20년 3월에 동부학당의 학사를 각각 마련하였다.<sup>58)</sup> 이리하여 조선 초기부터 5부 학당 가운데 북부학당을 제외한 4부 학당이 운영되게 되었다. 그러나 북부 학당은 끝내 설치되지 못하였다.

4부 학당은 송의 三舍法(外舍·內舍·上舍) 중 외사에 해당하는 학제였다. 3사법은 학생들이 우선 외사에 들어가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좋으면 내사로, 내사에서 상사로 올라가 상사에서 직접 관리로 임명되는 제도였다.<sup>59)</sup> 4부 학당의 생도들은 8세가 되면 입학하여 15세가 되어 《소학》과 「4서」를 시험보이는 승보시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었다.

### (2) 4부 학당의 교육

4부 학당에는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8세에 입학하여 생원·진사

55) 《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56) 위와 같음.

57) 李光麟, 〈鮮初의 四部學堂〉(《歷史學報》 16, 1961), 32쪽.

58) 李光麟, 위의 글, 38~39쪽.

59) 李光麟, 위의 글, 36쪽.

시를 준비하는 교육에 임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學區制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지방학생들도 각 도의 추천을 받아 입학할 수 있었다. 각 학당의 정원은 100명씩으로서 모자라는 경우에는 동몽들로 보충하게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입학시험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학당의 시설과 교육이 충실하지 못하여 정원 100명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흉년이 들면 방학을 하기도 하였다.

학당의 교과목은 소학과 4서가 중심이었으며 교육평가는 경서를 배강게 하는 강경과 논술시험인 제술로 나누어져 있었다. 특히 학당의 교육에서는 향교와 마찬가지로 소학이 중시되었다. 소학이 유교의 기초적인 실천윤리를 간추려 놓은 윤리교과서였기 때문이다. 학당에서 소학교육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4학 유생들이 목표로 하는 성균관 진학시험인 승보시와 생원·진사시에는 소학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었다.<sup>60)</sup>

소학 이외에도 4서와 《孝經》·《三綱行實》·《朱子家禮》·《史略》 등이 학당의 교과서로서 널리 쓰였다. 성균관에서는 여기에 《근사록》·《성리대전》 등의 性理學에 관한 책, 《通鑑》·《좌전》·《宋元節要》 등의 역사책과, 《古文眞寶》·《文選》·《唐宋八家文》·《東文選》 등의 역사책과, 《東國正韻》·《경국대전》 등도 교과서로 쓰였다. 이러한 책들을 적기 위하여 태종 3년(1403) 2월에 주자소가 설치되고 여기에서 활자를 개발하여 많은 책을 찍어 냈다.

학당의 교육평가에는 학관일강, 예조월강, 매 6월마다 남부학당에서 실시하는 四學合製, 승보시와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謁聖試·黃柑試·春塘臺試 등의 별시, 왕궁에서 실시되는 전강·친시 등이 있었다. 학관은 5일마다 각 학당에서 강경시험(배강)을 보였으며, 예조에서는 달마다 역시 강경시험을 쳐서 두 시험의 성적은 연말에 종합하여 왕에게 보고하고 승보시나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때 참작하였다.<sup>61)</sup>

### (3) 4부 학당의 교관

4부 학당의 교관은 국초에 각 학당에 教授官(6품) 2인, 訓導官(7품 이하) 5

60) 《太宗實錄》 권 13, 태종 7년 3월 무인(權近의 勸學事目).

61) 李光麟, 앞의 글, 53쪽.

인씩을 두고 성균관 학관이 겸임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균관 녹관의 수가 부족하여 정원수대로 파견할 수 없어 그 일부를 軍職遞兒(4학에 攝司直 각 1인, 攝副司直 각 1인)로 대체하여 녹봉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학당교육이 부실하게 되고 교관에 대한 처우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 세종 19년(1437)에는 성균관에 司藝(정4품) 이하 主簿(정6품) 이상의 품계에 각 2인씩의 학관을 증설하여 동·서학당에 각 2인, 남·중학당에 각 3인씩을 파견하였다. 4학의 교관수가 줄어든 셈이었다. 그러나 교관수가 줄어들면 학당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서 세종 20년에는 각 학당에 훈도 1인씩을 더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세조 12년(1466)에는 4학에 전임교관을 두기로 하고 겸교수관을 교수, 겸훈도관을 훈도라 개칭하여 군직을 겸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4학에 교수(종7품) 2인, 훈도 2인씩을 두고 성균관 전적 이하의 학관이 겸임하도록 되었다.<sup>62)</sup> 그 후 효종대에는 성균관에 학문이 깊은 사람 출신의 사업 4인을 두어 각 학당을 하나씩 맡도록 하고 성균관 채주가 돌아다니며 교육을 독려하도록 하였다.<sup>63)</sup>

#### (4) 4부 학당의 경비

4부 학당의 경비는 학전·어장의 세수입과 노비신공에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학전으로는 태종 12년(1412)에 국가에서 내려준 100결, 세종 6년에 각 학당에 내려준 菜田 각 1결 20부, 명종 2년(1547)에 내려준 15결이 있었으며, 명종 20년에 떼어준 扶安·萬頃·古群山の 漁箭(어살) 등이 있었다.<sup>64)</sup> 그리고 학당노비로는 태종 11년에 학당에 준 崔沖의 9재노비와 그 후에 이속된 혁거사찰노비·죄인속공노비, 문종대에 가급한 약간의 노비, 명종 2년에 사여한 노비 15구 등이 있었다.<sup>65)</sup> 그러나 이들 학전과 노비는 자주 다른 곳으로 이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학당 운영경비가 모자라 흉년이 되면 방학하거나 常養 액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었다. 학당의 경비는 호조

62) 李光麟, 위의 글, 47~49쪽.

63) 《太學志》하, 권 13, 附編 四學.

64) 李光麟, 앞의 글, 43~45쪽.

《增補文獻備考》권 209, 學校考 8, 四學 참조.

65) 위와 같음.



에서 수납하여 매달 풍저창에서 생도수에 따라 타 오도록 하였는데 1인당 매일 쌀 1되 정도가 지급되었다.<sup>66)</sup>

### 3) 종 학

#### (1) 종학의 설치와 교육

宗學은 종실의 교육을 담당하는 정4품 아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종실은 종친과 마찬가지로 왕의 玄孫(4대손)까지의 자손을 의미한다.<sup>67)</sup> 단 왕세자나 원자는 성균관에 원자학궁을 세워 별도로 교육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종학과 같은 종실 자손에 대한 별도의 교육기관은 없었으나 충선왕이 諸王子府를 개편할 때 그 요속으로서 伴讀(정6품)·直講(종6품)을 두었는데 이것이 그러한 일을 담당한 관직이 아니었나 한다.<sup>68)</sup> 조선시대의 종학은 세종 10년(1428) 7월에 대군 이하 종실 자제들의 교육을 위하여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이듬해 10월에 景福宮의 建春門 밖에 학사를 세우는가 하면, 동왕 12년 3월에는 종학의 학칙인 宗學式略을 상정하였다.<sup>69)</sup>

종실 자제들에 대한 교육은 그들이 문장을 잘 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문을 닦아 몸가짐을 신중히 하고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종친들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고 부귀를 누리는 존재들이어서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무뢰배들과 어울려 갖은 비위를 저지르기 일쑤였으며 공부하는 데 관심이 적었다. 종친들은 고려시대부터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태종대의 사병혁과 이후로 「宗親不任以事」가 강화되었다. 물론 세조대에는 능력있는 종친에게 파격적으로 관직을 주었으나 성종대 이후에는 「종친불임이사」가 강화되었다.<sup>70)</sup> 종친들에게 관직을 주지 않은 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친들을 권력으로

66) 李光麟, 앞의 글, 43~44쪽.

67) 韓祐外, 《譯註 經國大典》註釋篇, 吏典 宗親府(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10쪽. 同姓을 宗이라 하고 父黨(父系)를 親이라 한다.

68) 金成俊, 〈朝鮮初期의 宗學〉(《韓國中世政治法制史研究》, 一潮閣, 1985), 352쪽.

69) 金成俊, 위의 글, 353쪽.

70) 金成俊, 〈朝鮮初期의 宗親府〉(앞의 책, 1985), 316~318쪽.

부터 소외시키려는 의도와 아울러 문신정치 시대에 있어서 관료들이 왕실의 권한 비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sup>71)</sup> 종친들의 사환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종학을 허소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세종은 이러한 풍조를 바꾸기 위하여 세종 12년 5월에 晉平(首陽)大君 瑄·安平大君 瑑·臨瀛大君 瑆 등을 종학에 입학하게 하고 종학에 나아가지 않는 종친들을 처벌하였으나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sup>72)</sup> 그리고 태종대부터 실시되어 오던 종친의 과거응시도 성종 초에는 금지되었다.<sup>73)</sup> 그러나 왕의 五服親(현손까지) 이외는 문무관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응시할 수도 있었고 관직을 가질 수도 있었다.<sup>74)</sup>

이와 같이 종학은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여 명맥을 유지하여 오다가 연산군 11년(1505) 11월에 종친이 문사와 교통한다고 하여 일시 혁파되었다가, 중종 6년(1511) 7월에 복설되었으며, 중종 19년 3월에 결국 흥년으로 다시 혁파되었다가, 숙종 2년(1676) 정월에 부활되었다.<sup>75)</sup> 그러나 《속대전》에는 「今革」이라 하여 종학이 없어졌음을 명기하고 있다.<sup>76)</sup>

## (2) 종학의 교관

종학의 교관은 처음에 종학교수관이라 하였는데, 세종 9년 9월 예조에서 종학의 설치를 건의할 때에는 종학교수관이 2인이었다가, 종학이 창설된 뒤인 세종 11년 2월에는 4인으로 늘어났으나, 그 중 2인은 實差教官, 2인은 預次教官으로 하였다.<sup>77)</sup> 이 때의 종학교수관은 성균관의 사성(종3품)·사예(정4품)·직강(정5품)·주부(정6품)가 겸임하였다. 그런데 세종 11년 3인에 종학식락이 제정되고 세종 12년 5월에 왕이 진평대군 등 왕자들을 종학에 입학시키고 다른 종친들의 입학을 독려하자 교관 4인 전부를 실차하게 되었다. 입학종친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세종 15년 8월

71) 金成俊, 앞의 글, 356쪽.

72) 金成俊, 위의 글, 355쪽.

73) 金成俊, 위의 글, 357쪽.

74) 《經國大典》권 1, 吏典 宗親府.

75) 金成俊, 앞의 글, 358쪽.

76) 《續大典》권 1, 吏典 京官職 宗學.

77) 金成俊, 앞의 글, 359쪽.

에는 종학교수관을 종학박사로 개칭하고 정원을 2인 더 늘려 6인으로 하고 동·서반 3품 이하 6품 이상이 겸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0년 뒤인 세종 25년 2월에는 다시 4인을 늘려 종학박사는 10인이 되었으나, 세조 2년(1456) 4월에는 다시 2인이 줄어 8인이 되었다. 이 때의 종학박사는 비단 성균관 학관뿐 아니라 집현전 녹관이 겸대하기도 하고, 일부는 군직으로 겸대하게 하기도 하였다.<sup>78)</sup>

그러나 종학 교관의 타관 겸대는 종친사환의 금지와 함께 종학교육을 부진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세조는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종친에게도 사환의 기회를 확대하고, 세조 12년 정월에 종학의 겸박사제도를 없애고 導善(정4품) 1인, 典訓(종5품) 1인, 司誨(정6품) 2인 등 4인의 전임교관을 두어 교육에 전념토록 하였다.<sup>79)</sup> 이것은 세조가 관료세력을 누르고 왕실 중심의 강력한 통치체제를 확립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세조가 죽은 직후인 예종 원년(1469) 7월에는 도선은 성균관 사성이, 전훈과 사회는 성균관 사예·직강·전적이 겸대하는 것으로 환원되었다.<sup>80)</sup> 그리하여 《경국대전》에도 이대로 범문화되었다.<sup>81)</sup>

#### 4) 잡 학

##### (1) 10학의 설치

조선왕조는 집권적 관료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각종 관학을 설치하였는데 10학이 그것이다. 10학은 儒學·武學·譯學·醫學·陰陽學·算學·律學·書學·道學·樂學 등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전문관리를 양성하던 조선시대의 관학이었다.

10학 중에도 유학이 가장 우위에 있었다. 조선왕조는 사대부들이 통치하던 유교국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학은 성균관·4학·향교 등 별개의 교육

78) 金成俊, 위의 글, 359~362쪽.

79) 金成俊, 위의 글, 362쪽.

80) 金成俊, 위의 글, 363쪽.

81) 《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宗學.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양반들이 입속하는 유학과 무학을 제외한 나머지의 제학은 잡학이라 하여 천시되었다.

조선왕조의 건국과 더불어 우선 10학 중 유학과 병학(무학)·율학·자학·역학·의학·산학 등 6학이 설치되었다. 유학은 국가의 지배사상으로서 별도의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유신들은 유학을 다른 제학과 구별할 것을 주장하였다. 유학이 포함되어 다른 잡학, 특히 악공천예들과 더불어 四仲朔取才를 치룬다는 것은 「尊儒待士」의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대부들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태종은 유학을 6학 중에 포함시키라고 하였다. 태종은 유학의 三館考講法조차 없앤다는 것은 10학 중의 하나를 없애는 것이요, 吏科·陰陽科·譯科와 같은 제과는 천예가 맡는 것이 아니며 천예가 맡는 악학이 비록 10학 속에 포함되어 있으나 맡은 바 업무가 다르니 유학을 10학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태종 6년(1406)의 10학은 국가의 하급관리를 양성·선발하는 취재교육으로서 전통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10학은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편성이 달라지기도 하였는데 《경국대전》에는 유학·무학·역학·의학·음양학·산학·율학·화학·도학·악학 등이 10학에 포함하게 되었다.

그런데 10학 중에서 유학과 무학은 양반들이 입속하였고, 나머지 8학은 잡학이라 하여 기술관이 담당하였다. 8학 중에서도 악학의 樂生·樂工, 화학의 善書·善繪·繪史 등은 천예들도 종사할 수 있는 잡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10학 중에는 양반들이 종사하는 유학·무학과, 기술관들이 종사하는 역학·의학·음양학·율학·산학·화학·도학·악학 등이 있었으며 그 중 화학·도학·악학에는 양인 및 천인이 종사할 수 있었다.

## (2) 잡학 교육

잡학 교육은 중앙에서는 해당 관아에서, 지방에서는 지방관부에서 실시되었다. 잡학생도의 총원은 경·외 유학생도의 총원인 15,550인의 43.32%가 되는 6,736인이었다.<sup>82)</sup> 이것만 보아도 조선시대의 교육은 유학교육이 중심이었

82) 《經國大典》권 1, 吏典 外官職條에 府 4, 大都護府 4, 牧 20, 都護府 44, 郡 82,

고 잡학 교육은 부차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술직<sup>83)</sup>이 국가운영에 꼭 필요하였기 때문에 잡학교육을 도외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선시대의 지배층이 유교교양을 바탕으로 하는 유자들이었기 때문에 기술학을 잡학으로 대우하여 천시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면 어떠한 부류들이 잡학 생도가 되었는가. 이것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신라 말에는 일부 6두품 귀족들이 잡학에 종사하였고 고려시대에는 양반 자제들도 잡학을 배웠다. 그러나 고려 말 조선 초기부터 잡학은 천시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초기만해도 양반 자제들도 잡학에 입속하였다. 그러나 잡학은 점차 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까닭은 첫째로, 유교의 기예에 대한 관념적인 차별의식 때문이었다. 유교에서는 「君子不器」라 하여 유자는 세부적인 전문기예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董越의 《朝鮮賦》에서도 “兩班子弟 止許讀書 不習技藝”라 하여 조선의 양반유자들이 기예를 천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로, 조선 초기 지배신분의 양분화로 생긴 결과이기도 하다. 조선 초기에는 지배신분이 양분화하여 상급 지배신분층인 양반은 정책입안에 종사하고, 하급 지배신분층인 중인은 행정실무나 각종 기술직에 종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술관에 대한 처우가 격하되었다. 기술관에게는 체아직을 주고 체아직에는 職田조차 주지 않았던 것 등이 그것이다. 셋째로, 기술직에 종사하면 門地가 낮아져 양반가문과 통혼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기술관은 기술직을 세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양반 자제들은 기술직을 기피하였다. 따라서 양반 자제들은 잡학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였다.<sup>84)</sup>

양반 자제들이 잡학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자 양반의 庶孽이나 양반에는 미치지 못하고 양인 중에 넉넉한 자들이 여기에 입속하게 되었다. 문·무관 2품 이상의 첩자손들이 잡학에 들어가 기술관이 될 수 있었으며,<sup>85)</sup> 모자라는 경우에는 교생, 향리의 3정 1자, 지방의 역·의·율생도 중에서 선상하도록 하였다.

縣 75를 기준으로 생도수를 산출한 것이다.

83) 雜職이라고도 하였으나 賤隸들이 담당하는 流外職인 잡직과는 구별된다.

84) 李成茂, 앞의 글, 202~203쪽.

85) 《經國大典》권 1, 吏典 限品敍用.

校生은 본래 양반 자제들도 입속하게 되어 있었으나 15세기 후반부터는 이미 양인 자제들이 군역을 피하기 위하여 많이 입속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는 安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額內生은 양인 자제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들은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잡학 생도로 歲貢되는 길을 택하기도 하였다. 잡학생도에는 중인이 입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생이나 향리 자제라고 해서 누구나 잡학생도로 세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넉넉하고 똑똑한 교생이나 세력있는 향리 자제만이 여기에 세공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86)</sup>

잡학에는 문신·생원·진사 등 양반이 입속하는 習讀官이 있었다. 습독관은 유직자를 「講肄官」, 무직자를 「학생」이라 불렀다. 양반 자제들이 잡학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 침체하게 되자 이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이 제도를 둔 것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습독관의 수는 漢學 30인, 醫學 30인, 吏文 20인, 天文學 10인이었으나 다른 분야에도 있었던 것 같다. 무직자는 매일 상근하였고 유직자는 매월 10~15일만 해당관청에서 공부하도록 하였다. 습독관에게는 여러 가지 특전이 주어졌다. 丘史를 넉넉히 주고, 군직체아를 주며, 성적이 우수한 자는 현관에 임명하고 생원·진사에게는 習讀仕日을 성균관 원점으로 간주해 주는 것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잡학에 대한 천시 관념 때문에 양반 자제들이 습독관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임명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애썼다. 그리하여 습독관제도가 잡학진흥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였다.<sup>87)</sup>

잡학생도들은 중앙의 소관 아문이나 지방관부에서 전문서와 《경국대전》 등을 교육받았으며 일강·월강 성적은 연말에 종합하여 취제의 자료로 삼았다. 지방의 잡학 생도는 한두 명씩 중앙관아에 뽑혀 올라와 교육을 받고 내려가는 제도가 있었으며 의·역·악 3학 생도는 명에 유학을 보내려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遣子弟入學」은 명이 정보가 유출된다하여 반대하였기 때문에 좌절되고 말았다.<sup>88)</sup>

86) 李成茂, 앞의 글, 204~205쪽.

87) 李成茂, 위의 글, 205~206쪽.

88) 李成茂, 위의 글, 207쪽.

### (3) 잡학 교관

잡학 교관은 종6품인 교수와 정9품인 훈도가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 문신이나 생원·진사가 말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들이 달가워하지 않자 한학교수 2인, 의학교수 1인을 빼고는 모두 기술관이 교관직을 담당하게 하였다.

지방의 잡학훈도는 중앙에서 파견되는데 임기는 30개월이었고 察訪·審藥·檢律·驛丞과 마찬가지로 무록관이었다. 역학의 경우는 地方譯學院이 있는 도에 역학훈도 자리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의학의 경우는 태조 2년(1393)에 계수관마다 醫院을 세워 의학교수를 두었는데 태종 16년(1416)에 醫學敎諭로 고쳤다가 뒤에 혁파되었고 유학교수·훈도가 이를 겸임하게 되었다.<sup>89)</sup>

## 5) 향 교

### (1) 향교의 설치와 교육

鄉校의 연원은 삼국시대로 소급되는데 신라에는 淸州 등지에 지방학교가 있었다고 한다.<sup>90)</sup> 그리고 고려가 건국되면서 태조 13년(930)에 西京에 학교를 설치하였으며 성종 8년(989)에 12목을 비롯한 여러 주·부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한 바 있었다.<sup>91)</sup> 이로 미루어 보아 고려 초기부터 지방 학교인 향교가 형식적이거나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의 지배 사상이 불교였는 데다가 군현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예종·인종대에 문운이 일어나면서 특히 인종대부터는 향교기록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무신정권이 들어서자 그나마 부진해졌다. 그 후 공민왕대의 문교부흥운동과 군현제 정비의 추진으로 향교 설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곧이어 몰아닥친 내우외환으로 1군

89) 李成茂, 위의 글, 208쪽.

90) 金光洙, <羅末麗初의 地方學校問題> (《韓國史研究》 7, 1972), 130쪽.

91) 《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1향교가 이룩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sup>92)</sup> 그러므로 1군 1향교의 설치는 인구와 토지비례에 의한 군현제가 갖춰진 조선 초기까지 기다려야만 되었다.

태조는 그의 즉위교서에서 이미 외방 향교의 설치를 강조한 바 있었으며<sup>93)</sup> 태종은 「修明學校」를 守令七事<sup>94)</sup>의 하나로 넣어 그 성과 여부에 따라 수령의 포폄 기준으로 삼았다. 조선 초기에는 중앙에서 수령과 교수관을 파견하여 이들에게 향교의 설치와 향교 교육을 진흥시킬 책임을 지웠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토호를 비롯한 유지들도 향교 설치에 공헌하였다. 다시 말하면 향교의 설치는 수령·교관·지방유지 3자의 협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군현에 향교가 일시에 다 설치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여건에 따라 빨리 설치된 곳도 있고 늦게 설치된 곳도 있었다. 처음에는 학사를 지을 경비가 없어 불사를 빌려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국가에서는 불교사찰을 혁파하는 대신 향교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혁파된 사찰의 토지와 노비의 일부를 향교에 지급하기도 하였다. 태종 13년(1413)에 향교에 일제히 지급한 토지와 노비 등은 혁파된 사찰의 토지와 노비였다. 이와 같이 「수명학교」를 수령 7사의 하나로 넣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향교 설치를 독려한 것은 국가의 지배사상을 불교에서 유교로 바꾸는 정책의 일환이었다.<sup>95)</sup>

향교 교육은 명륜당에서 실시되었다. 향교에는 공자를 모시는 대성전과 선현을 봉안하는 東·西廡로 구분되는 문묘와 향교 생도의 講學所인 명륜당과 그들이 기숙하는 동·서재로 구성되는 학사가 있었으며 그 이외에 제사를 관장하는 典祀廳 등이 있었다. 향교 생도들은 중앙 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자와 선현을 모신 곳에서 유교예절과 유교경전을 익혔다.

향교 생도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들로서는 4서 5경 이외에 《소학》·《효경》·《성리대전》 및 《삼강행실》 등 초등교과서와 《근사록》·《가례》 등 유

92) 朴贊洙, 《高麗時代 教育制度研究》(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1), 143~197쪽.

93) 《太祖實錄》 권 1, 태조 원년 7월 무신.

94) 守令七事는 存心仁恕·行己廉謹·奉行條會·勸課農業·修明學校·賦役均平·決訟明允이었다(《太宗實錄》 권 12, 태종 6년 12월 을사).

95) 李成茂, 〈朝鮮初期의 鄕校〉(《漢坡李相玉博士回甲紀念論文集》, 1970), 235~239쪽.



학서, 《통감》·《송원절요》 등 사서, 《文選》·《楚辭》·《柳文》·《韓文》·《고문진보》 등 문학서가 쓰였으며 莊子·老子 등 제자백가서는 금서로 되어 있었다.<sup>96)</sup>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소학》·《가례》·4서 5경이 주된 교과서였다. 소학은 이미 權近의 勸學事目에서 관학 일반의 필독서로서 권장된 바 있었다.<sup>97)</sup> 소학은 經史子集 중에서 유교사회의 도덕규범이 될 만한 어구들만 골라 놓은 입문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학은 성균관 입학시험, 생원시의 先修科目으로 되어 있었다.<sup>98)</sup> 소학의 정신은 學습의 기초로 반영되어 있었던 것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향교의 교과과정은 학령에 준하였다. 다만 향교의 학령은 성균관의 학령을 약간 손질하여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었다. 향교의 교육평가도 강경과 제술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제술에 역점을 두었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강경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강경은 매일 실시되는 일강이 있었는데 비하여 제술은 수령이 직접 한달에 望前·望後에 한 번씩 두 번 실시되는 月課가 있었을 뿐이었으며 우등자는 월말에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戶役(잡역)을 덜어주고 교육의 성과 여부에 따라 교관을 인사할 때에 참고하였다.<sup>99)</sup> 그리고 매년 6월 都會에는 강경·제술시험을 보여 우등자를 생원·진사시 복시(회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게 하는 특전을 주었다.<sup>100)</sup> 이 때에 문관출신 교수, 閑官 중 3인이 시관이 되었으며 경상·전라·충청도는 각 5인, 나머지 도는 각 3인씩을 뽑았다. 또한 생도 중에 품행이 단정하고 학문이 해박하며 시무에 통달한 한 두 사람을 관찰사를 통하여 천거하여 임용하기도 하였다.<sup>101)</sup>

한편, 일강·월과의 성적이 좋지 않은 자는 역·의·울생이나 書吏로 세공되었다. 유학을 연마시키기 어려운 자들을 잡학생도로 편입시킨 것이다. 특히 왜학생도의 경우는 바다를 건너 멀리 왜국에 왕래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

96) 《慶北鄕校資料集成》 1, 慶州學令(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1992), 26~30쪽.

李成茂, 위의 글, 239쪽 참조.

97) 《太宗實錄》 권 13, 태종 7년 3월 무인.

98) 위와 같음.

99) 《經國大典》 권 3, 禮典 獎勸.

100) 위와 같음.

101) 《慶北鄕校資料集成》 1, 慶州學令.

원자가 없어 정원 30인 중 연해의 향교생도 중에서 세공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세조 8년(1462) 4월에 제정된 倭學勸勵條件에서는 경상도 연해와 여러 고을 향교에서 연소한 교생 20인을 올려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3년마다 교생 중 나이 많고 재주없는 자는 서리로 세공하기도 하였다.<sup>102)</sup> 교생이 기술관이 되거나 서리가 되는 것은 양반에게는 신분이 하락되는 반면에 양인에게는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반은 교생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대신 양인은 교생이 되는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생은 점차 양인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향교 교육은 날이 갈수록 부실하게 되어 갔다. 이에 향교는 지방의 유학교육 기관이라기 보다 군역을 피하거나 기술관·서리 등 중인이 되기를 원하는 양인들로 가득차게 되었다. 건국 초기에 활발했던 향교 교육은 크게 부진하게 된 셈이다.

군역을 면제받으려 몰려드는 양인 교생들을 줄이고 군역을 늘려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세조대에는 校生落講定軍法을 마련하여 강경시험에 떨어진 교생은 무조건 군역에 충당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군 교생의 정원을 정하여 부·대도호부·목은 50인, 도호부는 40인, 군은 30인, 현은 15인으로 하고 그 이외의 교생은 군역에 충당되었다. 교생의 연령은 40세 미만으로 정하고 이들 중에도 재주가 없는 자는 충군하도록 하였다. 연령 제한은 그 후 더욱 강화되어 15~20세로 한정하기도 하였다.<sup>103)</sup> 그러나 낙강정군의 충격이 큰 데다가 교생들의 불평이 늘어가자 성종 2년(1471) 6월에는 각 향교의 정원을 늘려 부·대도호부는 90인, 도호부는 70인, 군은 50인, 현은 30인으로 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 되었다. 단 16세 이하의 童蒙은 군역과 관계가 없으므로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다.<sup>104)</sup>

## (2) 향교의 문묘

향교에도 학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능과 문묘를 중심으로 하는 교화기능이 분화되어 있었다. 향교의 교육기능은 국가의 경비지원 의지가 약화되

102) 李成茂, 앞의 글, 247쪽.

103) 李成茂, 위의 글, 248쪽.

104) 李成茂, 위의 글, 249~250쪽.

자 교생 낙강정군, 향교 교관의 질적 저하 등으로 인한 양반들의 외면 때문에 날로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문묘를 중심으로 한 교화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 갔다. 지방 양반들이 향교를 향촌교화의 중심기관의 하나로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왕명을 받아 부임하는 수령도 到任·遞任 때는 먼저 문묘에 배알하여야 하였으며 석전제의 현관이 되어야만 하였다. 과거 급제자들도 고향에 돌아와 家廟에 告由하기 전에 문묘에 먼저 배향하게 되어 있었다. 지방 양반들도 교생이 되는 것은 기피하면서도 靑衿錄을 만들어 그들만이 입록하고 향교제향을 독점하여 왔다. 지방 양반들은 留鄉所의 鄉案과 향교의 청금록을 통하여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온 것이다. 문묘에서 행해진 석전제·삭망분향제·위안제·환안제뿐 아니라 社稷祭·城隍祭·祈雨祭·勸祭·養老宴·鄉飲酒禮(10월)·鄉射禮(3월 3일, 9월 9일)·投壺禮 등이 향교에서 양반들의 주도 아래 아울러 행해졌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sup>105)</sup>

향교 문묘에 봉안하는 선현의 범위는 군현의 격에 따라 달랐다. 《大典續錄》에 의하면 개성부와 도의 계수관은 성군관 문묘와 배향인물이 같았으나, 주·부·군은 兩廡 제현을 봉사하지 않았고, 현은 宋儒 周敦頤·程顥·程頤·朱熹와 薛聰·崔致遠·安珣 만을 배향하였다. 그 후 숙종 40년(1714)에 張載·邵雍이 성군관 문묘에 배향되면서 개성부와 도의 계수관에 한하여 배향하던 것을 영조 22년(1746)에는 이들을 주·군·현에도 다 배향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향교는 초기에 비하여 교육기능보다 제례기능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주자학의 정착과 향교를 통한 지방 양반들의 대민교화의 필요성이 늘어난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민교화의 중심지는 문묘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따라서 조선 후기 향교의 존립 의미는 교육기능보다는 오히려 제례기능을 통한 향촌지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sup>106)</sup>

향교의 제례가 강화되자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기도 하였다. 가중되는 제

105) 尹熙勉, 《朝鮮後期鄉校研究》(一潮閣, 1990), 199쪽.

姜大敏, 〈韓國의 鄉校研究〉(慶星大出版部, 1593), 161쪽.

106) 尹熙勉, 위의 책, 201~202쪽.

수의 조달을 위하여 지방민을 착취하거나 執事校生의 수를 늘려 이들로부터 군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 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금록에 등재된 양반 유생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은 모두 제례에 참석할 수 있었으므로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도 다른 하나의 폐해였다. 더구나 空名帖의 남발, 納粟補官 등으로 新鄕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도 청금록에 들기를 원하고 제례의 校任이 되거나 참여하고자 하여 신·구향 간에 鄕戰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이에 향교는 모름지기 鄕權의 쟁탈지로 바뀌어 가게 되었다.<sup>107)</sup> 향전은 신·구향 간의 대립뿐 아니라 당쟁의 성격을 띠고 행해지기도 하였다. 향교는 공론의 소재지로서 통문을 발하여 당론에 입각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이들의 여론 수렴은 儒會를 통하여 정했다. 유회에서는 교생의 입속·교임의 선출, 향교 건물의 관리, 향촌의 교화 등 향내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漸文義理·討逆·정부정책 비판 등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다루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통문·상소를 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校保·除役村을 두거나, 집사 교생에 대한 뇌물수수, 제수를 빙자한 지방민의 착취 등 지방사회의 이권집단으로 탈바꿈해 가게 되었다. 따라서 향교는 지방 양반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교두보로서 이용되었다.<sup>108)</sup>

### (3) 향교의 교관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유교정치 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군현마다 향교를 세우고 향교마다 교관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태조는 즉위하자 곧 각 도의 유학교수관을 본직에 머물러 있게 하고 교관이 없는 곳에는 70세 이상된 한량관들을 향교 교도로 임명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그들의 득실을 보고하도록 하였다.<sup>109)</sup> 그러나 태종조에 이르러서는 중앙에서 향교 교관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그 우선적인 대상으로는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성균관·교서관에 분관되어 있는 三館權知들이었다. 3관 권지는 입관 순서에 따라 각관의 유학

107) 尹熙勉, 위의 책, 204~208쪽.

108) 尹熙勉, 위의 책, 203~217쪽.

109) 李成茂, 앞의 글, 242쪽.

교수관에 임명되어 관찰사의 감독과 포폄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모든 군현에 문과 급제자인 3관 권지를 한꺼번에 파견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우선 주·부에만 3관 권지를 교수관으로 파견하고 나머지 군현에는 그 지방에서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 學長이라는 직책을 주어 향교 생도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학장에게는 녹봉이 지급되지 않아 질 좋은 교관을 구할 수가 없었으며 이들마저 교육보다는 피역에 목적이 있어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sup>110)</sup>

태종 16년(1416)에는 전국의 군현을 재정비하여 주·부를 비롯한 큰 군현에는 문과출신인 교수관을, 그 이외의 군현에도 참외 문신인 훈도관을, 생원·진사를 교도로 임명하여 향교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생원·진사들이 교도가 되는 것을 기피하거나 자기들의 승진을 위한 도구로 여기자 세종이 즉위하면서 일시 교도직을 없앴다가 다음해부터는 500호 이상 되는 군현에 한하여 교도직을 두기로 하였다. 이것은 조선 초기의 향교 교도의 보임이 하나의 정식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때의 향교 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문과 급제자(교도관), 참외 문관(훈도관), 생원·진사(교도), 지방 지식인(학장) 등이었다. 한편 생원·진사들이 교도직을 출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 취재시험을 보이기도 하고 교도가 될 수 있는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이들에게는 원점에 관계없이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주기도 하고 면역의 특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문과 출신자들이나 생원·진사들이 향교 교관이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교관직은 寒職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문과 회시의 초장 입격자도 교관에 임명하고 咸興·安州 이북의 양계 교도에게는 부임 즉시로 加資하며, 종래에 3개월이었던 거관 가자기간을 15개월로 단축하고, 학장에게도 녹봉을 지급하고, 성과있는 학장에게는 산관직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에 이유없이 3개월간 부임하지 않는 자는 杖 100에 파직하여 서용하지 않고, 辭避者는 3년 동안 서용하지 않기로 하였다.<sup>111)</sup>

110) 李成茂, 위의 글, 242~243쪽.

111) 李成茂, 위의 글, 244~245쪽.

그 후 성종대에 이르러 향교 교관의 명칭은 교수(職高 문과출신자)·훈도(秩卑 문과출신자)·교도(생원·진사·유학)·학장(기타)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향교 교관은 한직이어서 문신 좌천자들의 유배직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향교 교관은 무자격자·무능자로 채워지게 되었다.<sup>112)</sup>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국의 교수는 72인, 훈도는 257인, 합계 329인으로 이 인원수는 전국의 군현수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명목상으로는 부·목·대도호부에 교수, 군현에 훈도 1인씩이 파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과 출신자들이나 생원·진사들이 교관이 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자격있는 사람을 뽑아 쓰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교관의 자질부족 문제가 향교 교육에 심각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었고, 자질은 부족하더라도 녹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학장을 두어 교육에 임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향교 교육이 쇠퇴하고 교관도 천시되어 임명되기를 꺼려하자 17세기 이후에는 국가에서 교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향교는 청금록에 입안된 유생대표인 교임(儒任·齋任·執綱)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향교의 교임에는 교장(都有司·齋長·齋首·首任) 1인, 掌議(校貳·次任) 1인, 色掌(任末) 2인이 있었다. 양반들의 東齋와는 별도로 西齋에는 교생 가운데서 堂長(堂掌)을 두어 향교의 수직과 제향의 집사를 담당하고 동재 교임을 돕게 되어 있었다. 서재 재임 이외에 또 典穀(典任)을 두어 향교재정을 출납하게 하였다. 교임은 自代하거나 三望으로 유림들이 선출하여 수령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sup>113)</sup> 교임들은 훈장을 임명하여 향교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일정한 기간만 모여서 시험을 보게 하였으므로 향교의 교육기능이 약화되어 유명무실하였다.<sup>114)</sup> 향교가 향촌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양반출신의 청금록 유생들에 의한 지방교화의 중심지로 되고 양반출신이 아닌 교생들은 군역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향교의 교육기능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의 향교는 교육기능을 상실하고 교화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112) 李成茂, 위의 글, 245~246쪽.

113) 尹熙勉, 앞의 책, 152~156쪽.

114) 尹熙勉, 위의 책, 153쪽.

#### (4) 교생의 신분

조선사회는 신분사회였으므로 관학에서 유교교육을 받아 과거를 통하여 관료가 되는 데는 당시의 지배층이던 양반이 가장 유리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에는 양반 자제들이 많이 향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다. 국가에서도 「興學校」를 수령 7사의 하나로 넣어 향교의 건립과 향교 교육을 장려하였으므로 양반 자제들이 향교에 들어갈 만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향교에 대한 관심이 줄고 향교의 시설이나 교관들의 수준이 떨어짐에 따라 양반 자제들은 향교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다. 이들은 향교에 들어가 양인 교생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싫어하였다. 국가에서는 전적으로 국비로 지급하는 관학에 유교 교육을 전담시키기 보다는 양반들의 서재나 서당 같은 사학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양반들은 그들의 사학에서 자기들만이 따로 과거준비를 교육시킴으로써 일반 양인들보다 관료가 되는 유리한 고지를 오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래는 관학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과거시험을 사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도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문에 명·청의 제도처럼 학교시험의 최종시험이 곧 과거시험이 되도록 하는 제도는 실시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학교제와 과거제가 일직선상에 연결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115)</sup>

교생은 출신신분에 따라 上額·中額·下額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상액은 액내로 靑衿錄·赴舉案에 수록되고 중·하액은 校生案에 수록된 사람들이었으나 뒤에는 액내생이 교생으로 채워졌다.<sup>116)</sup> 양반들이 교육을 받을 생각도 없으면서도 굳이 향교 청금록에 등록하고자 한 것은 학교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으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한 규정과 확고한 지방 양반의 지위를 인정받아 향촌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동재유생에는 정원이 없었다.<sup>117)</sup> 청금록에 등재되는 동재유생은 춘추 석전제 때에 유생들이 내외 현족자 중 유교경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를 천거하게 되어 있었다. 이 때 경전

115) 李成茂, 앞의 글.

116) 尹熙勉, 앞의 책, 10~20쪽.

117) 《大典會通》권 3, 禮典 諸科.

시험을 보여 3하 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에 한하여 뽑았다. 따라서 청금록은 향안과 함께 양반자격을 보증받는 중요한 문적이 되었다. 다만 향안은 내외 현족의 여부만을 따지는데 반하여 청금록은 현족 중에서도 유교지식의 유무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장차 과거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었으므로 청금록이 향안보다 어느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였다.<sup>118)</sup>

교생의 수는 《경국대전》에 군현 등급에 따라 부·대도호부·목은 90인, 도호부는 70인, 군은 50인, 현은 30인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지켜지지 않고 군현의 교생수가 수백·수천·수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군역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邑誌나 戶籍臺帳에 규정된 교생수만 적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교생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 액내교생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서재교생 중에서 액내생을 정하였다. 그러나 군역을 피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백외교생의 수는 제한이 없었다.<sup>119)</sup> 국가에서도 교화를 목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는 백성들을 만들고자 액외교생의 존재를 묵인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기술직이나 書吏로 진출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주기도 하였다.<sup>120)</sup> 국가보다도 지방관이나 향교에서는 돈을 받고 액외교생을 시켰으므로 수령의 치부수단이나 향교재정의 보완을 기할 수 있었다. 이들을 願納校生이라 하였다. 액외교생이 불법적이면서도 없애지 못하였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sup>121)</sup>

액내교생은 평민의 상층부와 서얼·서족 등 중인층에 속하였고 그 신분은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16세부터 60세에 除役될 때까지 향교의 여러가지 업무를 맡았으며 군역과 잡역이 면제되었다. 액내교생은 정원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別監·農有司·鄉任·風憲·군관 등을 맡을 수도 있었다. 교

118) 尹熙勉, 앞의 책, 27~28쪽.

119) 향교에서는 守直이나 각종 祭禮의 執事, 兵營에 兵符傳達, 국가의 경사 때 赦文(赦免令)을 監營에 전달하는 일, 赦文을 읽는 일, 勅書의 보관과 감시, 香祝의 보관 養老宴의 시중, 戶籍臺帳의 淨書 등 잡일을 맡기기 위하여 額外校生을 뽑았다. 이들 日直校生·執事校生·兵符賚去校生·赦文校生 등은 향교의 유지와 관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존재들이었다(尹熙勉, 위의 책, 52~58쪽).

120) 尹熙勉, 위의 책, 109쪽.

121) 尹熙勉, 위의 책, 121·127쪽.



생의 입교는 교임의 차출, 유희에서의 심사, 관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생안(西齋案)에 입안되었다. 교생안은 청금록이 없어진 19세기 이후까지도 계속 존속되었다. 액외교생은 평민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역이 면제되고 잡역은 본인만 면제되었다.

### (5) 향교의 경제기반

향교를 운영하는 데는 일정한 재정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재정은 지방관아의 지원이나 鄕校田의 수입, 향교노비의 신공 등으로 충당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적어도 그러하였다.

향교전은 태종대에 처음으로 지급되었다. 성균관·4학·향교의 學田은 대체로 혁파된 사원노비로 충당되었다. 즉 태종 6년(1406) 3월에는 전국의 사원 중 12종 242사만 남기고 나머지 사원의 토지와 노비는 모두 국가에 귀속시켜 軍資田과 典農寺의 노비로 삼고 여기에서 일부를 향교에 할당했던 것이다. 이것은 불교사원의 경제기반을 유교의 교육기관에 옮김으로써 유불 교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 조치이다.<sup>122)</sup>

향교전에는 유토전과 무토전이 있을 수 있는데 유토전은 향교노비나 향교촌의 양인이 경작하여 소작료(花利 또는 禾利)를 내는 토지요, 무토전은 실제 토지는 지급하지 않고 일정한 토지의 양에 해당하는 什一租(생산물의 10분의 1)만을 관에서 지급하는 토지이다. 태종조의 향교전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노비의 신공은 일반노비의 신공과 마찬가지로 2필이었다.

향교전과 향교노비가 각관 향교에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그대로 유지된 것 같지는 않다. 향교전과 향교노비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간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유력한 군현에는 토지와 노비가 많고 무력한 군에는 토지와 노비가 적거나 없게 되었다. 이에 전국 향교에 학을 지급하는 문제가 논란되어 성종 15년(1484) 12월에 성균관에 학전 400결, 4학에 각 10결, 각급 향교에는 군현 등급에 따라 10~5결씩의 학전이 지급되었다.<sup>123)</sup> 이것은 《속대전》에 성균관에 400결, 4학에 각 10결, 주·부 향교에 각 7결, 군현 향교에 각 5결

122) 李成茂, 앞의 글(1970), 250쪽.

123) 《大典續錄》권 2, 戶典 諸田.

씩 급하는 것으로 재조정되었다.<sup>124)</sup> 이 때의 학전은 물론 수조지였다. 그러한 학전 규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향교노비는 태종 17년(1417)에 각급 향교에 할당된 수가 그대로 《경국대전》에 반영되어 부에 30인, 대도호부·목에 25인, 도호부에 20인, 군현에 10인씩 배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大典會通》까지 그대로 존속되었다.<sup>125)</sup> 이들 향교노비는 좀처럼 면천될 수 없도록 향교에 긴박되어 있었다.<sup>126)</sup> 그러나 향교노비도 향교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되어 향교운영이 잘되지 못하였다. 타인의 침탈·도망, 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의 실시, 불법적인 면천·매매·속랑 때문이었다. 각급 향교에서는 모자라는 노비를 관에 더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양인이나 사노비를 雇立할 수 밖에 없었다.<sup>127)</sup>

각급 향교에서는 교보를 설정하여 재정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세조 5년(1459)에 保法이 생긴 이후 납포제가 일반화되어 군보 이외에 각종의 보가 생겨나게 되었다. 교보도 그 중의 하나였다. 교보는 처음에 정원이 없었으나 숙종 39년(1713)에 서원의 원보가 賜額書院에 20인, 未賜額書院에 10인으로 정해지면서 40인으로 정하여졌다. 교보는 매년 춘추로 1냥씩 2냥을 향교에 내게 되어 있었다. 교보는 京案에 등록된 군액이 아니고 군현에서 사사로이 정한 邑軍이었다. 군현에서 교보를 책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保錢을 향교에 진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除役村인 향교촌(校村 또는 校下村)이 군현마다 있었다. 향교촌은 군역·잡역이 면제되는 대신에 향교의 수직·수리·사환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향교재정을 보충하는 방법으로는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여 그 이식을 활용하는 殖利錢이 있었다. 이러한 식리전은 향교뿐 아니라 書院·司馬所·養士齋·鄉約·洞約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식리전은 고율의 이자를 받는

124) 《續大典》 권 2, 戶典 諸田.

125) 《經國大典》 권 5, 刑典 外奴婢.

《大典會通》 권 5, 刑典 外奴婢.

126) 《受教輯錄》 권 5, 刑典 公賤.

127) 尹熙勉, 앞의 책, 231~239쪽.

고리대(1년에 1할 이상 5할까지 다양함)로 운용되었다. 식리전의 본전은 관에서 마련해 주기도 하고, 향교 자체에서 마련하기도 하였다. 식리전은 집안 형편이 넉넉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보통이었다.<sup>128)</sup>

그리고 각종 제례의 제수를 비롯한 제기·제복, 향교의 중건·중수비를 관에서 보조해 주었다. 향교전·향교노비·교보·식리전도 관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향교는 군현의 주관 아래 운영되는 군현의 학교였던 것이다.<sup>129)</sup>

그러나 향교는 군현의 것만은 아니었다. 지방 양반들의 중요한 활동무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儒錢 거두어 향교 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하였다. 양반뿐 아니라 향교(서원·향청·작청에서도)마다 屬寺가 있어서 향교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종이·신발 등)를 헐값에 공급하게도 하였다. 속사뿐 아니라 店村에서도 鐵器·柳器·瓮器·器皿·紫木·黑炭·灰石 등을 헐값에 공급하게도 하였다. 또한 竹田·賜山·漁箭을 소유하여 그 수익을 향교재정에 보태 쓰는 경우도 있었다.<sup>130)</sup>

이상의 향교수입 중 가장 큰 것은 학전·교전의 수입이며 교보·제역촌·식리전·官補는 보완적인 수입이었다. 지출은 제례비용이 대종을 이루었으며 나머지는 기타 잡비에 쓰였다. 관에서는 향교재정이 교육·교화에 집중적으로 쓰이기를 바랐으나 지방 양반들은 향교를 그들의 향촌지배의 근거지로 운영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향교재정의 출납은 교임이 수행하되 관에서 검사하게 되어 있었다.<sup>131)</sup>

## 2. 사 학

조선시대의 사학으로는 書齋와 書堂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이외에도 家

128) 尹熙, 위의 책, 251~256쪽.

129) 尹熙勉, 위의 책, 256~258쪽.

130) 尹熙勉, 위의 책, 259~263쪽.

131) 尹熙勉, 위의 책, 263~269쪽.

塾이 널리 유행하고 있었으나 공식적인 교육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려·조선 초기에는 서재와 함께 귀족들의 사학으로서 12도가 있었고 산사에서 공부하거나 마을의 鄕先生에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산사 교육은 빛을 잃게 되었으며 향선생은 서재나 사당에 용해되어 갔다.

## 1) 서 재

고려 말에는 사원·精舍와 아울러 개인농장에 개설된 서재에서 사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 말에 중국으로부터 강남농법이 도입되어 농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방에 많은 농장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농장에는 서재가 설치되어 사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sup>132)</sup> 더구나 고려 말에는 홍건적·왜구의 침입과 무신들의 정권쟁탈로 문사들이 지방의 농장으로 은둔하는 경우가 많아 서재의 발달을 촉진하게 되었다. 고려말 문신·유사들의 號에 隱字가 많이 들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sup>133)</sup> 이들 중에는 주자학을 신봉하고 이를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었다. 吉再·安軸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하였다. 서재는 亭·榭·軒·菴·室 등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sup>134)</sup> 서재는 가숙의 다른 형태로서 발달한 사학이었다.<sup>135)</sup>

이러한 서재는 조선 초기에도 널리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초에는 억불숭유책의 일환으로 군현마다 향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서재의 師儒와 유생을 강제로 향교의 유학교수관이나 교도로 임명하였다.<sup>136)</sup> 이것은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본인의 뜻과는 달리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고 생업을 버려야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태종 7년(1407) 3월 권근은 권학사목을 만들어 사학 서재의 사유들을 강제로 다른 군현의 교수로 데려가지 않도록 하고 오

132) 柳洪烈, 〈麗末鮮初의私學〉(《靑丘學叢》 24, 1936), 92~95쪽.

133) 牧隱(李穡)·圃隱(鄭夢周)·陶隱(李崇仁)·治隱(吉再) 등이 그러한 예이다(위와 같음).

134) 위와 같음.

135) 《東文選》 권 76, 復齋記.

136) 《增補文獻備考》 권 202, 學校考 1, 太學 1 공양왕 원년 大司憲 趙浚 上疏.

히려 서재교육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바꾸었다.<sup>137)</sup> 서재교육도 유교 진흥에 큰 몫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학도 관학과 아울러 보완적으로 유교 교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 조에서 사사로이 서재를 세워 생도를 교육하는 것을 권장하고 여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포상하였다.<sup>138)</sup> 조선 초기의 서재는 서원·사당 등으로 불리웠으나 동명이칭에 지나지 않는다. 서재 이외에 독립된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가속도 널리 유행하고 있었다. 가족이나 가문의 자제들을 집에서 초학교육을 시켜 서재나 사학 12도·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 2) 서 당

여말 선초의 서재는 16세기 이후 士林의 성장과 향촌사회의 발달로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림의 근거지로서 서원이 발달하고 군현제의 정비로 향촌사회의 조직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재는 道學과 과거준비를 목표로 하는 서원에 재편되는가 하면 賤庶를 가리지 않고 교육하는 향촌의 소규모 초학 교육기관으로 분립하게 되었다. 서원에 부속된 書院書堂과 향촌의 독자적인 유학교육기관인 鄕村書堂의 성립의 그것이다. 서재가 신분적인 차별에 근거하여 양분화된 것이다. 그리고 조선왕조의 유교 교화정책이 향촌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교화의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산조 이후 급격히 쇠퇴해 가는 관학의 교육기능을 사학이 대신하게 된 것도 서당 발달의 다른 하나의 이유였다. 이에 과거에는 서재·서원·서당으로 불리던 서재의 명칭도 사당으로 일원화되어 갔다. 서원이라는 명칭은 이제 학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사적인 유교 교육기관만이 아닌 도학을 추구하고 선현을 봉사하는 祠宇의 기능까지를 정하는 존재로서 재정립되었고 여기에 서당을 부설한 데 지나지 않았으며 향촌의 서당은 지배층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서재와는 달리 향촌의

137) 《太宗實錄》 태종 7년 3월 무인.

138) 《世宗實錄》 권 2, 세종 즉위년 11월 기유.

하층민까지도 교육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재는 서당이라는 명칭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서원은 자제를 교육하는 서재와 先師·先賢을 봉사하는 사은의 기능을 합쳐 놓은 것이었다. 서원이 서재(또는 서당)나 사우를 바탕으로 생겨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sup>139)</sup> 16세기에 이르러 사람들에 의하여 조선의 주자학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도학을 추숭하고 선현·선사를 봉사하는 그들의 새로운 근거지가 필요하였다. 양반 사람들은 향촌사회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원을 발생케 한 것이었다. 서원은 이들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양반 사람의 집합체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16세기 이후의 서원은 과거의 서재적 성격의 서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周世鵬이 중종 38년(1543)에 처음으로 세운 白雲洞書院 이전에 세워졌다는 道川書院·川谷書院·道洞書院·百源書院·慕巖書院도 실상은 그 이후에 중창된 것이었다.<sup>140)</sup> 물론 16세기 이후에 세운 서원도 주자의 白鹿洞書院의 예에 따라 건립된 것이었다.

서원에는 서당이 별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서원은 양반 자제들이 수학하는 초학 교육기관이었고 도학과 학업이 목표였다. 양반 사람들은 그들의 세력을 이용하여 서원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지원받는 기관으로 만들었다. 사액서원은 그러한 증표였다. 사액서원은 국가로부터 扁額과 아울러 토지·노비를 하사받았다. 마치 고려시대의 사원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고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 뿐이었다. 사림은 국가의 正脈이요, 운영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집합체인 서원이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의 정치는 사림의 여론정치였으므로 서원의 발언권은 대단하였다. 서원서당은 여론정치를 담당할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기관이었다. 조선왕조의 서원의 수는 594개에 이르게 되었고 그 중의 사액서원만도 264개에 이르렀다.

17세기 이후에는 향촌서당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17세기에 이르면 面里

139) 柳洪烈, 〈朝鮮에 있어서의 書院의 成立〉(《韓國社會思想史論攷》, 1980), 39쪽.

140) 柳洪烈, 위의 책, 98쪽.

制度가 정비되어 보다 소규모의 초학 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향교가 군현단위로 하나씩 있었는데 비하여 향촌서당은 면·리를 단위로 여러 개가 있었다. 이미 명종 원년(1546) 6월에 제정된 「學校事目」에서 향촌의 천서를 불문하고 들어갈 수 있는 향촌서당의 설치를 장려한 이후로 향촌서당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sup>141)</sup> 향촌서당에서는 士庶童蒙을 대상으로 《童蒙先習》·《類合》·《小學》 등을 먼저 가르치고 점차 4서를 가르쳤다. 향촌 서당은 면·동·리의 향교 입학을 준비하는 校下學校로 운영된 것도 있고 그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었다. 洞書堂·同姓書堂(門中書堂)·個人私塾 등이 그것이었다. 양반이 자기집에 교사를 초빙하여 일족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고 리·동에서 공동으로 숙사를 마련하고 교사를 초빙하여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교사가 자기집에 숙사를 정하고 직업적으로 생도를 모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한 사람의 교사가 여러 서당을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sup>142)</sup> 교사를 초빙해 오는 경우에는 일정한 대우를 해 주어야 했고 서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洞契·學契·宗契 등을 모으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시대의 교육은 관학보다도 사학인 서당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에서는 모든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하는 관학보다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에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도 문치주의 국가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시키는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교육이 유명무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교육열이 민족성이 될 만큼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향교에까지 동몽훈도를 두어 서당식 초학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니 한국교육은 사학의 전통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李成茂〉

141) 渡部學, 《近世朝鮮教育史研究》(雄山閣, 1968), 171쪽.

142) 渡部學, 위의 책, 187쪽.

### 3. 과거제의 정비와 운영

조선왕조가 성립되자 새로이 文·武散階制가 실시되고 문과와 아울러 무과도 실시되어 명실상부한 양반관료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태조는 즉위교서를 통해 첫째, 문·무 양과를 균형적으로 운영한다. 둘째, 고려 과거제의 유품인 座主門生制와 國子監試를 없앤다. 셋째, 관학을 육성하여 과거제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sup>1)</sup>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없었다.<sup>2)</sup> 무과가 공양왕 2년(1390)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태조 3년(1393)부터이다. 문과와 아울러 무과가 실시됨으로써 문무양반 체제의 제도적 관료 공급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감시는 고려시대의 국자감시요, 조선시대의 進士試이다. 주자학을 신봉하는 신진 유학자들은 詞章을 배격하고 經學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집권하게 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사장시험인 진사시(國子監試)보다 경학시험인 생員試를 중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태조 4년에 예조가 제정한 과거법에서는 진사시를 없애버렸다. 그 뒤 세종 20년(1438)에 일시 부활되었다가 6년 뒤인 세종 26년에 폐지, 단종 원년(1453)에 다시 복구될 때까지 조선 초기의 약 60년 동안 진사시는 실시되지 않았다.<sup>3)</sup> 일설에는 태조 이성계가 일찍이 고려의 생원시에 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진사시보다 생원시를 중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자학이 도입된 뒤 유학의 경향이 사장 중심에서 경학 중심으로 바뀌어 가게 된 추세가 보다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리하여 문과시험에는 初場講經이 실시되었다. 제1차 시험에서 경서를 시험 보였으므로 여기에 합격이 안되면 2차 시험에는 가볼 수도 없었던 것이다. 좌주문생제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대부들의 집요한 반대로 말미암아 태종 13년(1413)에는 貢擧制와 좌주문생제가 제도적으로 철폐되었

1) 《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2) 李成茂, 〈韓國의 科擧制와 그 特性〉(《科擧》, 一潮閣, 1981), 77·118쪽.

3) 宋俊浩, 《李朝 生員進士試 研究》(國會圖書館, 1970), 13~14쪽.



으며, 그 이전에 실시된 문·무과 급제자와 생원·진사의 명단을 작성하여 좌주문생의 폐해를 일소하고 과거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후로는 몇몇 형식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좌주문생제는 자취를 감추었다.<sup>4)</sup>

관학 부흥운동은 고려 말의 신진 사대부들에 의하여 이미 추진되어 왔으나 그 본격적인 실시는 조선왕조의 건국을 기다려 이루어졌다. 관학은 이제 국가의 이데올로기인 주자학 보급의 근거지일 뿐 아니라 새 왕조에 맞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역할하게 되었다.

다음은 학교제도와 과거제도와 관계이다. 고려시대의 국자감(또는 성균관)은 대부분의 과거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물론 예부가 과거의 주 담당기관 이기는 했지만 실무는 거의 국자감이 맡았다. 그러므로 새로운 과거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어서의 조선 초기의 과도적 과거 업무를 성균관이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조선 초기에 과거 실무는 성균관 학관의 집합체인 成均正錄所와 成均長貳所에서 맡고 있었다. 성균정록소는 성균관 실무학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權設機關으로서 성균관 안의 일반서무를 분담할 뿐 아니라 각종 과거 응시자들의 예비심사를 담당하였다. 성균장이소의 뚜렷한 기능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성균관 고위학관들의 집무가 아닌가 한다.

태종 17년(1417) 윤 5월에는 예조에서 성균관과 문과와의 관계를 명시한 규정인 新科擧法이 제정되었는데<sup>5)</sup> 여기서 생원은 「입학의 문」이요, 급제는 「入仕의 길」이라는 원칙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태종 17년 과거법에는 문과 응시자격 중에 성균관 유생일 것 이외에 다시 圓點 300을 딸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있어온 제도였다. 원점이란 성균관 출석성적을 의미한다. 성균관 식당에 아침과 저녁의 두 끼를 참석하면 원점 하나로 계산해 주었다. 이 때에 받는 출석 표지를 食堂到記라 한다. 그러므로 원점 하나를 따다는 것은 곧 성균관에서 하루 동안 수학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원점 300을 따려면 300일간 성균관에서 수학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거

4) 李成茂, <鮮初의 成均館研究>(《歷史學報》35·36, 1967), 235쪽.

5) 《太宗實錄》권 33, 태종 17년 윤 5월 기사.

의 일년이 되는 셈이다. 생원시 또는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은 누구나 성균관에 들어가 약 1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문과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균관 유생이 모자랄 때에는 4학에서 升補試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충하게 되어 있었다. 승보시에는 15세 이상된 4학 유생으로 품행이 단정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었다. 이들은 성균관에서 생원·진사시를 준비하였다.

고려시대에 內舍人 國子學·太學·四門學에서 上舍人 七齋로 올라가는 시험을 승보시라 했던 것을 조선시대에는 4부 학당에서 성균관으로 올라가는 시험을 승보시라 하였다. 조선시대 성균관에는 내사·상사의 구분이 없어지고 외사인 4학과 상사인 성균관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4학에서 성균관으로 올라가는 시험을 승보시라 하고 성균관 입학시험에 해당하는 생원시와 진사시가 있게 되었다. 고려 말·조선 초기의 성균관 四書五經齋가 고려의 7재를 계승한 제도이기 때문에 경학을 배우는 4서 5경제에 입학하는 시험이라는 뜻에서 생원시(본래는 승보시)가 되고, 고려의 국자감시가 조선의 진사시로 계승된 셈이다.

문과 응시자격에 생원·진사일 것과 성균관에서 원점 300을 딸 것을 요구하게 되자 양반 자제들은 무과에 응시하거나 武衛·各司 南行 등 다른 벼슬길을 찾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건국과정에서 생긴 많은 공신·훈신의 자제들에게 忠順衛·忠義衛·忠贊衛 등 무위와 행정실무직에 직접 종사하는 각 사 남행 등의 벼슬길이 열려 있었다.<sup>6)</sup> 또한 고급관료의 자제들에게 주는 蔭敍의 혜택도 고려시대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종9품부터 정7품에 이르는 참하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양반 자제들의 과거시험에 대한 열망은 위에 든 몇 가지의 벼슬길로 만족시킬 수 없었다. 더구나 그들은 극히 제한된 숫자만을 뽑는 式年문·무과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양반들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식년시 이외에 자주 別試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별시가 자주 실시되었던 것은 그들을 모두 등용하려는 뜻이 아니라 양반층을 회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6) 李成茂, 앞의 글, 239~244쪽.

별시에는 增廣試・庭試・謁聖試・春塘臺試・外方別試・黃柑試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별시에서는 식년시와 같이 응시자격에 생원・진사일 것과 성균관 원점 300을 채울 것을 그리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다. 이는 양반 회유책으로 실시되는 시험이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관학이 점차 쇠퇴해 가자 성균관에서 수학하는 유생이 적어 원점 300이 차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때로는 일정한 기준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성균관에 기숙하고 있는 유생에게만 별시의 응시자격을 주기도 하고 원점을 줄여주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별시의 원점 요구가 서서히 무너져가서 나중에는 원점을 전혀 묻지 않는 상태로까지 몰고 갔다. 조선 후기의 특히 영조 이후에는 원점뿐 아니라 생원・진사일 것조차 문제삼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幼學이 문과 응시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문과 응시자격에 있어서 생원・진사나 성균관 원점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로 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별시의 횟수가 식년시의 횟수보다 훨씬 많았다. 조선시대 전체로 문・무과를 합해 741회에 14,620명 뽑은 가운데 식년시가 163회에 6,063명, 별시가 581회에 8,557명이었다.<sup>7)</sup>

또한 생원・진사로서 정식으로 문과에 응시한 사람과 유학으로서 응시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간 \ 구분	문과급제자	생원・진사(%)	유 학(%)
태조~성종	1,796	1,526(85.0)	270(15.0)
연산군~선조 25년	2,350	1,777(75.6)	573(24.4)
선조 25년~경종	3,833	2,538(66.2)	1,295(33.8)
영조~정조	2,901	929(32.0)	1,972(68.0)
순조~고종 31년	3,740	668(17.9)	3,072(82.1)
계	14,620	7,438(50.9)	7,182(49.1)

7) 宋俊浩, 앞의 책, 19쪽.

급제한 전체 인원을 <표 1>에서 보면 생원·진사와 유학이 비슷한 수이나 시기별로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영조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은 생원·진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나 그 이후는 유학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영조조 이후로 문과 응시에 생원·진사일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되도록이면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밀착시켜 보려고 애썼다. 향교와 4학에서 양성한 인재를 생원·진사시로 뽑아 성균관에 입학하도록 하여 원점 300을 따게 한 다음 문과에 응시시키는 제도는 비록 명·청에서처럼 학교시험 자체가 과거시험의 예비시험으로 된 것과는 다르지만 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보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학교제도와 과거제도가 일원화될 수 없었던 까닭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조선사회가 양반이 지배하는 양반관료제 사회였기 때문이다. 양반들이 구태여 평민들과 어울려 향교에서 공부하려 하지 않고 사학이나 자기집에서 특권적으로 공부하려 했기 때문이다. 또 양반 중에서도 문벌 양반이 학당과 성균관 교육 및 과거시험에 있어서 사실상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별시도 실제로 서울 양반들이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시험이 가까워서야 갑자기 발표되는 시험기일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도 없거니와 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합격하는데 불리하였다. 한편 국가에서도 지배층인 양반의 요구에 못이겨 원칙대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과거라 하면 문과가 그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문과에 대한 규정은 까다롭고 또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무과나 잡과에 대한 규정은 그리 까다롭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교적 양반이 아닌 신분에게도 개방되어 있었던 편이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대체로 세종조에 정비된다. 성균관이 담당하였던 조선 초기의 과도적 과거업무는 태종 13년(1413)에 좌주문생제를 제도적으로 철폐한 다음 예조로 이관되었다. 즉 문과와 생원·진사시를 모두 예조가 주관하되, 생원·진사시는 성균관과, 문과는 藝文·春秋館과 함께 시험을 보이게 하였다. 예조가 주관하는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세종조에 크게 정

비된다.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제도는 대부분 세종 때에 제도화되었다.<sup>8)</sup>

다음은 과거와 관직과의 관계이다. 과거는 본래 일정한 시험을 통하여 관인을 뽑는 登龍門이었다. 과거 중에 문·무과는 고급관료를 뽑는 시험이고, 잡과는 하급관료를 뽑는 시험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는 初入仕路로서 중요한 관문이었다. 그러나 초입사로는 과거 이외에 門蔭과 薦擧가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문음·과거 외에 遺逸·南班雜路·成衆愛馬 등이 있었으나<sup>9)</sup> 조선시대에 들어와 남반과 성중애마가 吏職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자 천거의 성격이 강한 유일(隱逸이라고도 함)만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 있어서 문음과 과거는 초입사로서 쌓벽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관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보다 문음의 폭이 넓고 과거가 비교적 덜 발달되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5품 이상 관리의 아들에게 주어지던 蔭職이 조선시대에는 3품 이상 관리의 아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sup>10)</sup> 또한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없었던 무과가 문과와 나란히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숙한 상태로 있었던 고려시대의 과거제를 철저한 시험제도에 입각하여 정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양반관료제의 발달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한편 인사제도는 과거제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고려시대에는 초입사의 의미가 강하였던 과거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초입사에 못지않게 超資·超職의 의미가 컸던 것이다. 과거 급제자는 벼슬길을 터주는 것은 물론 과거 시험의 성적과 이미 가지고 있던 관품의 높고 낮음에 따라 초자·초직의 특혜가 덧붙여 주어졌다. 문·무과뿐만 아니라 잡과도 마찬가지였다. 이 초자·초직의 특전은 조선시대 과거의 특징을 드러내 주는 법제였다. 循資法·考課法과 같은 까다로운 진급규정을 무시하고 과격적으로 고급관료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조선시대 과거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였다.

양반관료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종9품에서 정3품 당하관까지 올라가려면

8) 李成茂, 《韓國의 科擧制度》(春秋文庫 19, 韓國日報社, 1967), 80쪽.

9) 《高麗史》 권 73, 志 27, 選舉 1 序文.

10) 李成茂, 〈朝鮮初期의 蔭敘制와 科擧制〉(《韓國史學》 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140쪽.

약 41년이 걸린다. 양반의 경우 만약 20세에 처음 벼슬을 시작하면 거의 60세가 가까워져야 정3품 당하관에 도달할 수 있었다. 기술관의 경우 호조의 算士와 형조의 明律의 예를 들면 역시 종9품에서 그들의 한품인 정3품 당하관까지 도달하려면 약 44년이 걸린다. 기술적 참하관이 한 품계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근무일수는 514일이었기 때문이다. 書吏의 경우는 2,600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순조롭게 올라가는 경우이고 그 동안 근무성적이 나쁘다든가 사고가 있을 경우는 실제로 얼마만한 세월이 걸릴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sup>11)</sup>

더구나 양반관직이 아닌 관직에는 소위 遞兒職이라는 것이 있어서 6개월마다 교체되고, 물러나온 사람은 1년간은 쉬었다가 다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난관을 겪게 되어 있었다. 숫자상으로 양반과 비양반의 근무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실제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거시험에 합격하면 어느 정도의 초자·초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규정은 다음 <표 2>·<표 3>과 같다.<sup>12)</sup>

이 《경국대전》의 문·무과 加資法은 세종 26년(1444)에 제정된 문·무과 散官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문과 장원은 참하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참상관인 종6품직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은 다른 관료들이 거쳐야 하는

<표 2> 문·무과 급제자 超資·超職表

등 급	과 별	문 과		무 과	
		인 원	품 계(관직)	인 원	품 계
壯	元	1	종 6품직		
甲	科	2	정 7품직	3	종 7품계
乙	科	7	종 8품계	5	종 8품계
丙	科	23	정 9품계	20	종 9품계

11) 李成茂, 《朝鮮初期 兩班研究》(一潮閣, 1980), 159쪽.

12) 《經國大典》권 1, 吏典 諸科.

《太宗實錄》권 3, 태종 2년 정월 기미.

〈표 3〉

잡과 급제자 超資表

등 급	역 과	기 타 잡 과
1 등	종 7품계	종 8품계
2 등	종 8품계	정 9품계
3 등	종 9품계	종 9품계

약 7년여의 승진기간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문과의 장원과 잡과 급제자에게는 정7품 실직을 주었으며 나머지는 성적에 따라 관품만 주었다. 7품에서 6품으로 올라가는 것을 出六(陞六)이라 하여 넘기 어려운 분계선으로 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행정직은 7품 이하인 참하관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계선을 문과 장원은 단숨에 넘어버리는 것이다.

무과와 잡과도 합격자에게 품계를 올려주는 특전을 부여하였지만 문과보다는 못하였다. 문과의 잡과 급제자에게는 품계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 품계에 해당하는 실직을 주게 되어 있었다. 또한 문과 급제자에게는 正品을 주었다. 종품은 정품보다 격이 떨어지는 관품이었다.

그런데 현직 관리의 경우는 더욱 큰 혜택을 받았다. 예로서 문과 급제자의 초자규정을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sup>13)</sup>

〈표 4〉

등 급	인 원	품 계
장 원	1	4계를 더해 준다.
갑 과	2	3계를 더해 준다.
을 과	7	2계를 더해 준다.
병 과	23	1계를 더해 준다.

갑과의 경우는 현직에 있으면서 합격한 사람에게 1계가 높은 관직을 주었다. 또 문·무과 합격자로서 품계를 올려받아 정3품 당하관의 먹이 찬 사람은 무조건 당상관으로 올려주었다. 급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엄격한 인품평정

13) 《經國大典》권 1, 吏典 諸科.

과 가계심사를 거치거나 국왕의 특별명령이 있어야만 당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문·무과는 당상관 이상의 고급관료를 뽑기 위한 시험이라 할 수 있다. 급제자는 이미 고급관료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문과 응시자격을 당하관 이하의 관료로 국한하고 있는 것도 문과가 당상관 이상으로 승진할 자격을 주는 시험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 10년에 한 번씩 보이던 重試도 당하관 이하만을 응시하게 하였는데 이것도 당상관으로의 승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듯싶다. 그리고 기술직은 체아직으로 되어 있어 자주 교체되므로 승진하기 어려워 잡과에 합격하지 않고는 참하관에서 참상관으로 승진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승진규정이 까다로웠던 조선시대에 있어서 과거시험은 그 승진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현직관리에게 과거 응시자격을 주는 것과 그 합격자에게 더 큰 승진의 특전을 주었던 것은 조선 양반관료제의 하나의 특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반관료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고려시대부터 음서제도를 두어왔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과거가 음서보다 중요시되자 과거시험에까지 그들의 특권을 반영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 참하관 이하에게만 과거 응시자격을 주던 것을 조선시대는 당하관 이하로 확대시킨 것도 그 까닭이라 하겠다.<sup>14)</sup>

그러므로 과거에서 문벌이 중요시되었다. 고급관료의 자제들이 과거에 있어서조차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고급관료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 문벌 자제들이었다. 조선 후기에 급제자의 진출은 分館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분관은 급제자를 문과는 弘文館·承文院·成均館·校書館 등 四館에, 무과는 訓練院·別侍衛에 분속시키는 제도였다. 조선 초기에는 급제자의 능력에 따라 분관이 실시되던 것이 조선 후기에는 문벌이 작용하여 홍문관 분관이 제일 좋은 것으로 되었다. 분관은 당쟁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sup>15)</sup>

과거는 관직을 차지하는 관문이었다. 양반들은 과거에 합격해야만 관직을

14) 《高麗史》 권 105, 列傳 18, 許冠.

《經國大典》 권 3, 禮典 諸科.

15) 李瀾, 《星湖僊說》, 人事門 分館.



차지할 수 있었고 관직을 차지하고 있어야 과거시험에서도 그 자손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과거와 관직은 양반의 가문과 신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은 그들의 숙명인 것처럼 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나친 양반들의 과거와 관직경쟁은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또한 17·18세기 실학자들의 맹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과거제가 철폐되는 1894년의 갑오개혁 때까지 과거는 계속되었다. 양반관료 체제가 무너지고 근대적인 사회의식의 사회체제로 이행하기 이전까지는 간단히 과거제도를 없앨 수는 없었던 것이다. 과거제도에 대한 개혁안조차도 양반체제에 변혁이 오지 않는 한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과거제가 별다른 개선없이 5백년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 4. 과거의 종류

조선시대 과거에는 문과·무과·잡과와 문과의 예비시험으로서 생원·진사시가 있었다. 문·무과와 생원·진사시는 양반들이 많이 보는 과거시험이었고, 잡과는 중인들이 많이 보는 시험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무과가 남발되어 일반 양인들뿐 아니라 천인들까지도 많이 응시하였다. 문과와 생원·진사시는 예조에서 주관하였고, 무과는 병조에서 주관하였으며, 잡과는 예조와 해당 관청에서 주관하였다.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 문·무과료들을 대상으로 보이는 중시도 예조에서 주관하였다. 그러므로 과거시험은 예조와 병조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1) 문 과

문과는 정규시험인 식년시와 특별시험인 각종 별시로 구분되어 있었다. 식

년시는 문과뿐 아니라 모든 과거시험의 공통적인 정규시험으로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었다. 식년시는 세 차례의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었다. 初試・覆試(會試)・殿試가 그것이다. 문과 초시에는 鄉試・漢城試・館試가 있었다. 향시는 8도에서 실시하였고, 한성시는 한성부에서, 관시는 성균관에서 실시하였다. 초시인 향사에서 240인(경기 20, 강원 15, 황해 10, 충청 25, 경상 30, 전라 25, 평안 15, 함경 10), 한성시에서 40인, 관시에서 50인을 뽑아 복사에서 33인을 뽑았고 전시에서 등급을 결정하였다.

문과 초시의 試取 액수는 다음 <표 5>와 같다.<sup>16)</sup>

<표 5> 문과 초시 시취 액수

단위 : 인

구 분		1417년 이전	1417년 이후	경 국 대 전	속 대 전
관 시		30	50	50	50
한 성 시		30	40	40	40
향   시	경 기 도	20	(20)	20	(20)
	강 원 도	15	10	15	15
	황 해 도	15	10	10	10
	충 청 도	20	20	25	25
	경 상 도	30	30	30	30
	전 라 도	20	20	25	25
	평 안 도	10	10	15	15
	함 경 도	10	10	10	12
계		200	200	240	222

문과 향시의 시취 인원은 240인에서 222인으로 줄었다. 식년 문과에서 33인을 뽑은 것은 불교의 三十三天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33인의 급제자는 정종 원년(1400)에 시험성적에 따라 장원 1인을 포함한 을과 3인, 병과 10인, 동진사 23인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태종 14년(1414)에는 잠시 을과 1·2·3등으로 바꾸었다가 곧 복구되었다. 세종 9년(1427)에 이를 다시 을과 1·2·3

16) 曹佐鎬, 〈學制와 科擧制〉(《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4), 138쪽.

등으로 바꾸었다가 세종 11년에 복구되었고, 세종 20년에는 同進士를 丁科로 바꾸어 혹은 을과 1·2·3등, 혹은 을·병·정과로 불렸다. 그러나 세조 12년(1467)에는 을·병·정과를 갑·을·병과로 바꾸어 조선시대 내내 그대로 실시하였다.<sup>17)</sup> 갑과 3인 중 1등을 壯元이라 하였고, 2등을 榜眼, 3등을 探花(郎)라 하여 우대하였다. 이 중 探花는 御賜花를 왕으로부터 받아 급제자들의 모자에 국왕 앞에서 나누어 꽃아주는 일을 맡았던 데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문과 급제자에게는 무과 급제자와 함께 붉은 색의 합격증인 紅牌를 주었다. 홍패에는 왕의 科擧寶라는 玉璽를 찍어 주었다.<sup>18)</sup>

문과에서 33인을 뽑게 되어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는 24인, 많게는 74인을 뽑을 때도 있었다. 적게 뽑을 때는 적합한 인제가 많지 않을 경우이고 초과해서 뽑을 때는 殿講·通讀·到記科 등의 直赴生과 恩賜가 합쳐졌을 경우이다. 또한 조선 후기로 올수록 문·무과의 경우는 양반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뽑는 수가 많았다. 조선시대의 식년시에서는 167회에 6,123인을 뽑았다.<sup>19)</sup>

문과 별시에는 增廣試·別試·謁聖試·庭試·春塘臺試·重試·春試·拔英試·登俊試·進賢試·擢英試·求賢試·賢良試·忠良試·新舊試·丕闡試·道科·景武臺試·明倫堂試·殿試·節日製·黃柑製·通讀·殿講·到記科 등이 있었다. 이들 별시는 국가의 경사가 있거나 문·무관, 성균관 유생들의 사기를 북돋우어 주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증광별시를 제외한 각종 별시는 문과 또는 무과만 특별히 실시되었다.

增廣試는 대체로 새로운 국왕이 설 때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조선시대 최초의 증광별시는 태종 원년(1401)에 실시되었다.<sup>20)</sup> 그러나 조선 후기에

17) 沈勝求, 〈朝鮮初期 武科制度〉(《北岳史學》장간호, 國民大, 1989), 49쪽.

18) 《經國大典》권 3, 禮典 紅牌式.

#### 敎 旨

具官 아무개는 文科(武科는 武科라 칭한다)의 아무 科(甲科·乙科·丙科로 칭한다) 第 몇 人으로 及第 出身한 자이다.

年 國 月 日

19) 李成茂·崔珍玉, 《朝鮮時代 文科榜目 總覽》(韓國精神文化研究院, 근간예정).

20) 《增補文獻備考》권 186, 選舉考 3, 科擧 3 태종 원년.

는 宗系誣辨·討逆 등을 이유로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지 않은 때도 실시되었다.<sup>21)</sup> 증광별시는 식년 문과와 똑같은 정원을 뽑았으며 이 때는 문·무·잡과, 생원·진사시를 다 실시하였다. 다만 경사가 겹칠 때에는 大增廣試를 보이는데 초시에서 340인 복시에서 40인을 뽑았다. 조선시대에 실시된 증광별시에서는 총 60회에 2,447인을 뽑았다.<sup>22)</sup>

別試는 국왕의 즉위 이외의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시험이었다. 별시 문과는 초시와 전시 두 단계만 있었다. 이 때의 초시는 식년 문과의 복시에 해당한다. 별시 문과는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별시는 예고없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방 유생에게 불리하였다. 그러나 지방 유생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별시에 응시하고자 하였다. 별시 문과에서 뽑은 인원은 일정치 않고 그때그때 정하여졌다. 초시에서는 대체로 300~600명을 뽑았다. 초시 합격자에게는 다시 4서 중 한 책, 3경 중에 자기가 원하는 책 하나씩을 背誦하게 되어 있었다. 이를 會講이라 하였다. 이 회강에서는 粗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되었다. 회강 합격자는 대개 30인 이내였다.<sup>23)</sup> 별시는 비교적 합격하기 쉬웠으므로 응시자수가 많았다.

별시에는 또 外方別試가 있었다. 외방 별시는 국왕이 蒙塵할 때나 능침·온천에 갈 때 行在所에서 특별히 실시하는 과거시험이었다. 여기에 합격하는 사람에게는 급제를 주거나 문과 절시에 직부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외방 별시에는 국방상의 요지인 평안도에서 실시하는 西道科와 함경도에서 실시하는 北道科를 비롯하여 강화도와 제주도·개성부에서 실시하는 별시가 있었다. 무과도 마찬가지이며 임진란 이전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여사를 파견하여 그 곳의 유생들을 詩·賦로서 시험하여 1등 한 사람에게만 전시에 직부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그러다가 인조 21년(1643)에 서도과가, 현종 5년(1664)에 북도과가 외방별시로 정식 설행되었다. 이 때부터는 10년에 한 번씩 중신을 보내어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상례였다. 시험과목은 賦·

21) 崔珍玉, 《朝鮮時代 生員進士 研究－司馬榜目の 分析－》(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20쪽.

22) 李成茂, · 崔珍玉, 앞의 책.

23) 가장 많았을 때가 1524년의 30명, 가장 적었을 때가 1786년의 3명이었다.

表·策 중의 1편이었고 뽑는 인원은 때에 따라 다르나 대략 3명 정도였다. 試券은 봉한 채로 서울로 보내져 급제자를 결정하였는데 급제자에게는 홍패를 주었다. 서도과는 뒤에 淸南·淸北, 북도과는 關南·關北로 나누어 각가 2~3명씩 뽑았다.<sup>24)</sup>

외방 별시 이외에 試才라는 것이 있었다. 시제는 정식으로 외방별시까지는 되지 못했으나 국방상의 요지나 특수지역의 민심을 어루만지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특별시험으로 제주·강화·화성 등지에서 실시되었다. 시험과목은 시·부·표·책 중 하나를 선택케 하여 2~3명의 합격자를 내어 전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謁聖試는 국왕이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행하여지는 성균관의 文廟釋奠禮에 참석한 뒤 명륜당에서 실시하는 특별시험이었다. 국왕이 직접 나와서 실시하는 親臨試의 하나였는데 태종 14년(1414)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험은 문·무과에만 있었고,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刻燭試<sup>25)</sup>였다. 전시만 있는 시험인 셈이다. 따라서 합격자도 그날로 발표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3품 이하의 현직 관료와 성균관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나중에는 지방 유생에게까지도 개방하였다. 알성시는 친림과이기 때문에 相避制<sup>26)</sup>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관들의 협잡이 많았다. 또 하루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시험과목은 10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하고 시험관은 다른 전시보다 훨씬 많은 수를 두었다.<sup>27)</sup> 알성시에는 시험과목이 적고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요행수를 바라는 응시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과거제도가 별시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였는데 알성시도 그 원인 중의 하나였다. 조선시대의 알성시에서는 57회에 398인을 뽑았다.<sup>28)</sup>

庭試는 본래 매년 봄·가을로 성균관 유생을 궁전의 뜰에 불러들여 시험을 보여 우수한 사람에게 전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給分

24) 曹佐鎬, 앞의 글, 144쪽.

25) 초에 글을 그어 놓고 촛불이 그 글까지 타 들어오면 시험을 종료하게 하는 시험 방법이다.

26) 과거시험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관의 가까운 친척들을 응시할 수 없게 한 제도이다.

27) 《續大典》에 의하면 讀券官 10명, 對讀官 20명을 두었다고 한다.

28) 曹佐鎬, 앞의 글, 145~146쪽.

하던 특별시험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선조 16년(1583)부터는 하나의 독자적인 과거시험으로 승격되었다. 정시도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뒤에는 討逆科·忠良科·蕩平科 등의 명목으로 다양하게 설행되었다. 심지어는 無名科도 있는 형편이었다. 또 시험도 자주 있었다. 1년에 두세 번 있을 때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 있을 때조차 있었다. 정시도 알성시와 마찬가지로 당일로 시험을 끝내고 합격자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서시험은 치를 수 없었다. 그리하여 表·賦·策·箴·頌·銘·詔 중의 한 과목을 선택케 하여 시험보게 되어 있었다. 문체는 일정한 격식을 맞추어 써야 하는 駢儷體를 요구하였다. 시험문제는 국왕이 참석할 때는 국왕이, 시관에게 위임할 때는 시관이 출제하였다. 정시도 알성시처럼 당일에 결판이 나고 상피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관의 협잡이 많고 응시자도 많이 몰려들었다. 이에 영조 19년(1743)부터는 정시를 초시와 전시로 나누고, 영조 35년에는 초시 합격자에게 다시 3경 중 자기가 원하는 경서 하나를 배강케 하는 회강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헌종 10년(1844)부터는 초시를 서울뿐 아니라 각 도 감영에서도 실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정시는 다른 별시보다 폭넓은 과거가 되었다. 정시는 문·무과에만 있었다. 조선시대의 정시에서는 206회에 2,610인을 뽑았다.<sup>29)</sup>

春塘臺試는 본래 국왕이 각 군문의 무사들을 춘당대에 모아 武才를 시험하던 특별시험이었는데 뒤에는 문과에도 적용되었다. 춘당대시는 선조 5년(1572)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34회에 207인을 뽑았다. 춘당대시도 친림과요, 당일로 결판이 나고 상피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시관들의 협잡이 많고 응시자가 많았던 것은 알상시나 정시와 마찬가지로였다. 심지어는 부자가 동시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어 영조 20년부터는 부자가 동시에 응시하는 것을 중지하였다. 춘당대시의 시험관은 알성시와 같고, 시험과목은 증광전시의 경우와 같았다. 뽑는 인원은 그때그때 정하였는데 3~15명을 뽑았다.

節日製는 人日製·三日製·七夕製·九日製의 네 가지가 있었다. 인일제는 1월 7일, 3일제는 3월 3일, 칠석제는 7월 7일, 9일제는 9월 9일에 실시되었

29) 曹佐鎬, 위의 글, 146~148쪽.

다. 3일제와 9일제는 조선 초기부터 실시되었으나 인일제와 칠석제는 뒤에 생긴 것인데, 전자를 課製, 후자를 上旬輸次라 하였다. 과제는 의정부·6조의 당상관이 참석한 아래 실시되는데 비하여 상순윤차는 館閣堂上만 참석한 아래 실시되었고, 과제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는 문과 전시에 직부하는 특전을 주었는데 비하여 상순윤차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는 문과 회시에 직부하는 특전밖에는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과제가 상순윤차보다는 격이 높은 시험이라 할 수 있다.

절일제는 본래 성균관에 재학하는 유생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는 특별시험이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성균관 유생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생원·진사들이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생기자 응시자격을 제한하게 되었다. 《속대전》에는 성균관 유생으로서 원점 50점을 취득한 사람에게, 《大典會通》에는 원점 30점을 취득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왕의 특명에 의하여 지방 유생에게도 응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많았다. 시험과목은 증광전시와 같았다. 절일제도 하루에 시험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서를 피하고 시·부·표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영조·정조시대에는 재경 유생에게는 표를, 지방 유생에게는 부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뽑는 인원은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영조20년(1744)부터는 서울 유생 한 사람, 지방 유생 한 사람씩을 뽑았다. 절일제도 시험과목이 간단하고 단 한번의 시험으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黃柑製는 매년 12월 제주목사가 바치는 감귤을 성균관·4학 유생에게 나누어 줄 때 실시하는 제술시험이었는데 뒤에는 왕의 특명으로 성균관·4학 유생뿐 아니라 지방 유생들에게까지도 응시자격을 주었다. 황감제는 명종 19년(1564)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원점 20 이상을 딴 유생에게 응시자격을 주어 1등 한 사람을 급제시켰다. 그러나 뒤에 지방 유생들에게까지 응시자격을 주게 되자 영조 24년 이후에는 서울 유생 한 사람, 지방 유생 한 사람씩을 뽑게 되었다. 시험문제는 대제학이 내어 국왕의 낙점을 받은 다음 承旨와 中使가 시험문제와 감귤을 가지고 성균관 명륜당에 가서 시험을 실시

하게 되어 있었다. 시험과목은 절일제와 같았다. 시험이 끝나면 승지가 시험지를 가지고 대궐로 들어가 대제학이 兩館提學과 함께 채점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다.<sup>30)</sup>

이 외에도 전강·도기과·통독 등의 특별시험 제도가 있었다. 殿講은 성종 원년(1470)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영조 20년 《속대전》을 만들 때에 비로소 제도화되었다. 전강의 대상은 성균관·4학 유생이었다. 전강은 매년 2월·4월·6월·8월·10월·12월 11일에 승정원에서 건의하여 그 달 15일 아침까지 성균관 출석부에 실려 있는 유생을 대상으로 그 다음날 16일에 실시하였다. 이들은 성명·주소 및 희망하는 경서를 적어내면 그것에 의하여 시험이 실시되었다. 시험관은 의정 한 사람, 종2품 두 사람, 정3품 이하 네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험에서 純通은 문과 회시에 직부하고, 通은 2분을, 略은 1분을, 粗는 지필목을 각각 주었다. 급분은 뒤에 과거시험에 통산해 주게 되어 있었다.<sup>31)</sup>

到記科도 성균관 4학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시험인데 일명 圓點科라고도 하였다. 도기과에는 1월 1일부터 7월 말 사이에 실시되는 春到記와 8월 1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실시되는 秋到記가 있었다. 도기과 실시를 위해 국왕은 사관이나 중사를 성균관과 4학에 보내어 식당도기<sup>32)</sup>를 가져오게 하여 원점 30 이상을 딴 유생을 골라 시험을 보게 했다. 시험과목은 강경과 제술 중 한 과목을 택하게 하여 두 과목의 1등 한 사람을 뽑아 문과 전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sup>33)</sup>

通讀은 숙종조부터 실시된 시험으로 《속대전》에 의하면 성균관 대사성이 매년 중앙과 지방의 유생들에게 강경과 제술시험을 각각 11번씩 실시하여 두 시험의 성적이 우수한 자 각 5인씩 10인을 식년 문과의 회시나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시험이었다. 이 때의 제술시험에는 부 1편과 표·전·론 중 1편을, 강경시험에는 4서 3경을 배강으로 시험보였다.<sup>34)</sup>

30) 曹佐鎬, 위의 글, 150~151쪽.

31) 曹佐鎬, 위의 글, 151쪽.

32) 출석부에 해당된다.

33) 曹佐鎬, 앞의 글, 151쪽.

34) 《續大典》권 3, 禮典 諸科 通讀.



위에 열거한 절일제·황감제·전강·통독·도기와 등 각종 별시는 성균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실시된 특별시험이었는데 이들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문과 전시 또는 문과 회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문과 초시에 分數를 가산해 주는 급분의 특전을 주었다. 직부생의 경우는 처음에 식년시에만 응시케 하였으나 나중에는 증광별시·별시·정시에도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식년 문과와 증광별시 문과의 전시에 응시하는 직부생은 일반 수험생과 섞여 앉아 시험을 보았으나 별시·정시의 전시에 응시하는 직부생은 아직 합격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수험생과 구별하기 위하여 臺上에 따로 앉아 시험을 보게 하였다. 합격자를 발표할 때에도 이들은 榜尾에 별도로 발표하였다. 전시에 직부하는 사람은 이미 합격이 확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테도 바로 급제시키지 않는 것은 그 때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唱榜儀를 따로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부 회시생의 경우 회시가 없는 별시 정시에는 초시에 응시해야 하는데 시험만 같이 보았지 합격 여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직부 전시생은 이미 합격이 결정된 사람이므로 정원 33명 외로 계산하였다. 각종 별시의 초시에 급분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 급분을 받은 사람들도 정원 외로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급분을 받은 사람도 초시에 응시하기는 하지만 회시에 직부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었다. 급분도 처음에는 식년 문과에 한하여 인정하였으나 뒤에는 각종 별시에도 적용하였다.<sup>35)</sup> 이와 같이 식년시 이외에 각종 별시를 자주 실시한 것은 양반들이 집요하게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양반들은 그들의 가문과 신분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관직을 차지하고자 하였고 관직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重試는 10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정기시험으로 당하관 이하의 문신을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丁年에 실시하다가 뒤에는 丙年에 실시하였다. 시험은 대궐에서 국왕이 참석한 아래 실시되었는데 이 때에 문·무과 별시도 실시되었다. 시험과목을 그 때마다 지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대개 표·책 중 하나를 시험보이는 것이 보통이었다. 시험관은 의정 한 사람, 종 2품 두 사람을 讀券官에, 당하관 네 사람을 對讀官에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 뽑는 인

35) 曹佐鎬, 앞의 글, 152쪽.

원은 3~19명이었다. 합격자는 을과 1·2·3등으로 나누었는데 장원한 사람은 4등급을, 2~3등은 3등급을, 을과 2등은 2등급을, 을과 3등은 1등급씩을 특진시켜 주었다. 이 특진제도는 중시 합격자를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참하관은 모두 참상관인 6품으로 승진하였다. 중시의 합격자 발표에서도 문과·무과와 같이 賜牌·賜花·賜蓋하고 3일 동안 遊街하였다. 그리고 고향에 금의환향하면 수령이 迎親宴을 베풀어 주는 것이 관례였다.<sup>36)</sup>

중시와 비슷한 형태의 시험으로 文臣庭試가 있었다. 문신 정시는 세조 9년(1463)부터 시작된 특별시험으로 정3품 당하관의 문신을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수시로 실시되어 오다가 현종 10년(1669)부터 춘당대시와 번갈아 실시되었다. 시험과목은 증광별시와 같았고 시험관은 중시와 마찬가지로 七試官이었다. 뽑은 인원도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개 5~6명이었고 가장 많은 때라야 효종 3년(1652)의 문신 정시이었는데 11명이었다. 문신 정시에 합격한 사람에게에는 정3품 당하관으로서 資窮(근무년한이 찬 것)인 사람은 당상관, 참상관은 당하관, 참하관은 참상관으로 승진시켜 주었고 나머지는 모두 상을 주었다.<sup>37)</sup>

문신 정시와 비슷한 시험으로 또 발영시·등준시·진현시·탁영시·충량시·구현시·신구시·비천시·경무대시·명륜당시·전시·친시 등이 있었다. 이러한 시험도 문신의 승진시험이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는 정2품 이하의 문신이 참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그 이후 계속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비천시·경무대시·명륜당시·전시·친시도 시험장소만 달랐지 그 실시 목적은 비슷하였다. 특히 친시와 전시는 국왕이 친히 시험관이 되어 실시한 시험이었다. 이는 세조와 성종·중종·영조가 새로운 관료군을 구성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한 일시적인 시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발인원도 3인에서 15인 정도를 넘지 않았다.<sup>38)</sup>

36) 曹佐鎬, 위의 글, 153~154쪽.

37) 曹佐鎬, 위의 글, 154쪽.

38) 沈勝求, 앞의 글, 28~29쪽.

정식 과거시험은 아니었지만 문신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한 文臣仲月賦詩法이 있었다. 이는 文臣月課法이라고도 하였는데 고려 성종 15년(996)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태종조에 권근의 주장으로 春秋仲月賦詩가 행하여졌다. 이 시험은 3품 이하 6품 이상의 문신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뒤에는 이 시험은 四仲朔<sup>39)</sup>에 실시되게 되었는데 3품 이하의 문신에게 시·부·표를 시험보였다. 여기에 1등으로 합격한 사람에게는 승급(加資)의 특전을 주었다. 이 시험은 국초에는 성행하였으나 뒤에는 유명무실하였다.<sup>40)</sup>

문신들의 경서공부를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던 시험으로는 文臣殿講이 있었다. 문신 전강은 3품 이하의 문신들에게 각각 전공하는 경서를 지정하여 주고 이를 국왕 앞에서 배강케 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5경을 번갈아 시험을 보임으로써 문신들의 경학공부를 권장한 것이다. 문신 전강은 영조·정조 시대에 가장 성행하였는데 역시 1등으로 합격하는 사람에게는 승급의 특전을 주고 나머지는 상을 주었다.<sup>41)</sup>

또 천거제와 과거제를 혼합한 賢良科가 있었다. 이는 중종 14년(1519)에 趙光祖 등 사림파의 주장으로 실시된 특별한 과거시험이었다. 중종은 조광조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勤政殿에서 독권관 申用漑 등에게 명하여 장령 金湜 등 120인을 뽑았다. 이것이 현량과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다. 이 현량과는 영의정 鄭光弼 등 구신들의 반대로 곧 罷榜되고 현량과 자체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南袞·沈貞 등 사장파·훈구파에 의하여 조광조·金駟孫·김식 등 사림파가 몰려나게 되자 현량과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조광조 등의 개혁정치는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훈구세력에 대한 영남출신인 신진세력의 도전이었고 현량과의 파방은 곧 사림파의 패배를 의미한다. 현량과는 과거가 詞章에 사로잡혀 科文이나 공부해 온 보잘것 없는 선비들만을 뽑게 되고 의리의 학문을 공부하는 眞儒를 뽑을 수 없다는 주장에서 실시된 과거시험이었다. 서울은 四館에서 유생이나 현직관료 중에서 유능한

39) 2월·5월·8월·11월의 11일.

40) 曹佐鎬, 앞의 글, 154~155쪽.

41) 曹佐鎬, 위의 글, 155쪽.

인재를 성균관에 추천하고, 성균관은 예조에 다시 보고하게 하였으며 증추부·한성부·홍문관에서도 역시 아는 사람을 추천케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각 지방의 유향소가 추천한 인물까지를 합쳐 의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이 때에 추천자의 성명도 아울러 적어서 책임을 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의리있고 덕있는 선비를 뽑는다는 것이다. 현량과가 파방된 지 50년 뒤인 선조 원년(1568)에 李浚慶 등의 주장으로 復科되었다. 尹元衡의 독재시대가 지나고 다시 사람들이 의한 정치가 부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趙憲·金宇顥 같은 이들이 현량과와 같은 薦舉科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sup>42)</sup>

한편 독립된 문과시험은 아니지만 漢吏科와 明經科가 설치되어 별도의 吏文·明經시험을 보여 문과 급제자의 수에 포함시킨 적도 있었다. 즉 태조 2년(1393)에 권근의 요청으로 한리과를 설치하여 초시의 초장에 시·부 중장에 이문을 시험보이고, 회시의 초장에 이문과 4서 3경·漢語를, 중장에 표·전·기·송을, 중장에 排律을 시험보여 문과 급제자를 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그 뒤 계속 시행되지 않았다가 중종 37년(1542)에 金安國의 건의에 따라 부활되어 魚叔權이 이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經國大典》이나 《大典續錄》·《國朝榜目》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리과 시험이 계속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명경과는 《己丑大典》<sup>43)</sup>에 수록되어 있었는데, 문과 초시의 초장을 제술로, 문과 복시의 초장을 강경으로 시험을 보임에 따라 경학이 약화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조 6년(1460)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명경과(시)에서는 초시에서 4서 5경 시험에 略通 이상 자를, 복시에서 七通二略者를, 전시에서 4서 중 1서, 5경 중 1서를 추천하여 시험보인 다음 여기에 합격한 사람을 문과 식년시 33인 정원 외로 뽑도록 하였다. 그 후 성종 9년(1478)에 「明經科試取節目」이, 성종 10년에 「明經科別試條件」이 제정됨에 따라 명경과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乙巳大典》<sup>44)</sup>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42) 李成茂, 앞의 책(1976), 129~130쪽.

43) 예종 원년(1469), 즉 己丑년에 일시 반포한 《경국대전》.

44) 성종 16년(1485), 즉 乙巳년에 최종적으로 반포된 《경국대전》.

세조 12년 12월에는 이미 성균관 九齋<sup>45)</sup>를 설치하여 매년 봄·가을로 성균관 당상 및 예조 당상 2인, 예문관 당상 1인, 대간 1인이 모여 구두와 의리에 통한 자를 다음 齋에 차례로 올라가게 하고, 한꺼번에 여러 경전에 통한 자는 월반시켜 易齋에 이른 다음 매 식년의 문과 회시에 직부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명경과는 세조 6년에 한번 실시된 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과거시험에서 강경이 제술에 압도된 때문이었다.<sup>46)</sup>

문과 실시의 횟수를 보면 정시의 206회와 별시의 180회, 식년시 167회의 순이었으며, 급제자수는 식년시의 6,123인이 가장 많고 정시의 2,610인, 별시의 2,385인 순이었다. 정시와 별시의 급제자수를 합치면 4,995인으로 식년시 167회의 급제자 6,123인에 미치지 못하지만 각종 별시를 모두 합치면 638회의 9,014인으로 실시 횟수나 급제자수가 훨씬 많다. 식년시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어 한꺼번에 33인 이상을 뽑았다. 각종 별시는 자주 설행되었으나 뽑는 인원수는 적었다. 즉, 식년시에서는 1회 평균 36.6인을 뽑았는데 비하여 각종 별시에서는 1회 평균 14.1인을 뽑았고,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씩 실시되었는데 비하여 각종 별시는 7개월에 한 번씩 실시된 셈이다.

태종조에 알성시와 즉위기념 증광별시가 생긴 이후로, 세종조에 인재를 널리 뽑기 위하여 별시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명종조에 給分直赴會試·殿試法이 강화되었고 이어서 별시·정시 등 각종 별시가 남발되어 과거시험이 문란하게 되었다. 科弊도 심하여 削名·削科·罷榜되는 경우도 많았고 상황이 바뀌면 복과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성균관 유생에 대한 별시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숙종 26년(1700)에는 황감시 외에 유생들을 위한 정시·알성시의 시취 액수를 3인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45) 大學齋·論語齋·孟子齋·中庸齋·書齋·詩齋·春秋齋·禮記齋·易齋.

46) 鄭 光, 《朝鮮朝譯科試券研究》(大東文化研究叢書 10,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90), 50~51쪽.

朴連鎬, 《朝鮮前期 士大夫教養에 관한 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102~118쪽.

## 2) 생원·진사시

조선의 개국 초에는 고려시대 귀족들이 사장을 중시하던 풍조를 없애기 위하여 진사시인 국자감시를 혁파하고 생원시만 실시하였다. 즉 태조 원년(1392) 7월에 내린 즉위교서에서 진사시에 해당하는 국자감시는 혁파되었다. 이는 주자학을 신봉하는 개혁파사대부들이 감시가 고려시대 과거제도의 폐풍을 자아낸 장본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감시 자체보다도 좌주문생제에 얽힌 貢擧制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감시는 고려 귀족들의 봉당·학벌·족벌을 유지·강화하는 도구로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민왕 18년(1369) 7월부터 신진 사대부들에 의하여 실행되기 시작한 과거 3층법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고려 구귀족의 온상인 감시의 혁파가 필요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왕조가 서자마자 고려의 국자감시에 해당하는 진사시는 혁파되고 말았다. 진사시를 없애는 대신 성균관 입학시험으로서 생원시를 설치하였다.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시대 문풍을 좌우한 사장 중심의 유학을 배격하고 주자학에서 중시하는 경학 중심의 유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장 시험인 진사시를 아예 없애고 경학시험인 생원시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 일대를 거쳐 설행되어 오던 진사시를 하루 아침에 없애기는 어려웠다. 좌주문생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유생들의 관념에 있어서도 그러하였고 건국 초기에 지나치게 급격한 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진사시를 혁파하기로 한 다음해인 태조 2년에는 감서(진사시)를 실시하여 朴安信 등 99인을 뽑았다. 고려시대와 국자감시도 대체로 99인을 뽑았었다.<sup>47)</sup>

태종 4년(1404)에 예조에서 제정한 과거 법에서 진사시는 다시 없어졌다. 그리하여 그 뒤에는 생원시만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진사시 폐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진사시 혁파는 태조조의 정책 입안을 오로지하고 있던 鄭道傳의 주장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정도전이 제

47) 李成茂, 앞의 책(1976), 109쪽.

거된 태종조에는 경학 일변도의 정책보다 사장도 아울러 공부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점점 높아졌다. 더구나 정도전을 대신하여 文翰을 잡은 권근은 고려 말 사장과 의 거두로서 과거시험에 기초과목인 경학도 중요하지만 응용과목인 시·부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근은 경학만을 공부하고 시·부를 모르면 실제 관직생활을 영위하는 데 실용적이 못된다고 하였다. 예컨대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신이 문신인 경우 그와 시·부로 수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48)</sup>

이러한 주장은 끈질기게 계속되어 문과시험에 초장은 강경을 하고, 중장에 시·부, 종장에 策問을 쓰게 하였다. 고려시대의 제술업과 명경업을 문과시험에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 진사시의 복구를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 세종 20년(1438)에 진사시가 복구되었다. 그러나 역시 진사시가 경학 위주와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6년 만인 세종 26년에 다시 혁파되다가 단종 원년(1453)에 복구되었다. 그 이후 진사시는 과거제도가 철폐되는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조선 초기의 약 60년간만 진사시가 실시되지 못한 셈이다.<sup>49)</sup> 그러므로 조선 초기는 적어도 생원시가 진사시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설에는 태조가 일찍이 생원시에 합격한 바가 있어서 진사시보다 생원시를 중요시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경학 우선주의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 조선 초기와는 달리 조선 후기에는 생원시와 진사시가 비중이 같았으나 조선 말기에는 오히려 생원시로 다 진사시가 더 중시되었다.<sup>50)</sup>

한 연구 결과의 통계에 의하면 조선 중기 이후의 생원과 진사의 선발인원, 지역별 진출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순조~철종 년간의 경우는 다르다. 예컨대 고종 28년(1891)에 생원 238명에 진사 559명, 고종 31년에는 생원 278명에 진사 1,055명을 뽑았다. 생원보다 진사가 많았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유생들이 생원보다는 진사가 되기를 원하는 쪽이 많았

48) 李成茂, 위의 책 109~110쪽.

49) 宋俊浩, 앞의 책(1970), 13~14쪽.

50) 李成茂, 앞의 책(1976), 110쪽.

기 때문이다. 한말의 黃玟인 지은 《梅泉野錄》에 보면 당시에 늙은 유생들을 생원이라 불렀으므로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일반 老儒와 구별하기 위하여 오히려 진사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생원·진사시까지도 진사시라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한말에 있어서는 진사시를 더 격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51)</sup>

조선시대의 생원·진사시는 향시와 복시(會試)로 구분되는데 향시는 각 지방에서, 복시는 예조에서 실시되었다. 향시에서 뽑힌 후보자는 회시에 응시하여 생원·진사 각 100명씩 200명을 뽑았다. 생원·진사시에는 국왕이 친히 참석하는 전시가 없었다. 전시는 문·무과에만 있었다. 생원·진사시의 초시에는 한성시와 향시가 있었는데 한성시에서 200인, 각 도의 향시에서 500인을 선발하여<sup>52)</sup> 예조가 실시하는 복시에서 생원·진사 각 100인씩을 합격시키게 되어 있었다.

다만 철종·고종년간에는 생원·진사 합격자수가 각각 100인이 훨씬 넘는 숫자를 뽑기도 하였다. 과거제가 문란해지고 신분제가 흐트러지면서 과거 증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생원·진사시 초시와 복시에는 초장과 종장 두 차례의 시험이 있었는데 초장에는 진사시를, 종장에는 생원시를 실시하였다. 즉 첫날 진사시를 실시하고 다음날 생원시를 실시하였다.<sup>53)</sup> 이 때문에 생원·진사시 양시에 한꺼번에 합격할 수도 있었다. 양시는 雙中·俱中이라고도 하였다.<sup>54)</sup> 李石亨·裴孟厚·金絿·李珥 등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진사시에서는 시와 부를 각각 한 문제씩 출제하였으나 후기에 와서는 양자택일을 하였고, 생원시에서는 《경국대전》에 五經義 1편<sup>55)</sup>과 四書疑 1편을 부과하였는데 5경의는 《詩經》·《署經》·《周易》·《禮記》·《春秋》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하다가 뒤에 와서는 5경 중 어느 하나만을 택하여 출제하였으며 4서의는 《論語》·《孟子》·《大學》·《中庸》중 어느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통틀어 한 문제를 내어

51) 安俊浩, 앞의 책, 29~30쪽.

52) 경기 60, 경상 100, 충청 90, 전라 90, 강원 45, 황해 35, 평안 45, 함경 35.

53) 曹佐鎬, 앞의 글, 126쪽.

54) 崔珍玉, 앞의 글, 12쪽.

55) 《大典通編》에는 《春秋》를 빼고 四經義.



하나의 긴 논문을 쓰게 하였다. 그러나 인조 11년(1633)부터는 5경의도 4서의와 마찬가지로 통틀어 한 문제만 내게 되었다.<sup>56)</sup>

생원·진사시는 子·卯·牛·酉년에 실시하는 식년시와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증광시가 있었다. 식년시와 증광시는 생원·진사시뿐 아니라 문·무·잡과가 다 같이 실시되었으나 별시·정시·춘당대시는 문무과에, 알성시·황감시·통독·절일제·전강 등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별시는 문과에만, 4학의 승제는 생원·진사시에만, 都試·觀武科 등은 무과에만 있었다. 경사가 겹칠 때에 실시되는 大婚廣試에서는 문·무과에 한하여 증원해서 뽑았고 생원·진사시나 잡과는 증광시에서도 식년시의 정원으로 뽑았다. 조선 시대의 생원·진사시는 식년시가 163회, 증광시가 67회, 합계 230회 설행되었다. 식년시는 3년에 한 번, 증광시는 7.5년에 한 번 설행된 셈이다. 식년시는 전란이나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 설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4회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임진·정유왜란이 있었던 선조 27년(1594)과 선조 30년, 과거부정이 있었던 광해군 13년(1621), 병자호란이 있었던 인조 14년(1636) 등이 그러한 해였다. 식년에 실시하지 못하여 다음으로 퇴행된 것도 아홉 차례나 있었다. 증광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였을 때에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태종 원년(1401)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종계무변·토역 등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에 자주 실시되었다. 증광시는 식년시와 같은 해에 실시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때로는 같은 해에 실시되기도 하였으며 오히려 식년시를 다음해로 이루어 실시할 때도 있었다.<sup>57)</sup>

조선시대 생원·진사의 총수는 생원 24,221인, 진사 23,776인, 합계 47,997인이었다.<sup>58)</sup> 이 중 현재 방목이 남아 있는 것만을 보면 생원 19,675인, 진사 20,974인, 합계 40,649인이다.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생원 또는 진사의 자격증인 白牌를 주

56) 曹佐鎬, 앞의 글, 124쪽.

57) 崔珍玉, 앞의 글, 18쪽.

58) 宋俊浩는 《李朝 生員進士試 研究》에서 생원 24,096인, 진사 23,652인, 합계 47,748이라 하였으나 이 통계에 빠진 고종 28년(1891) 식년시의 생원 125인, 진사 124인을 합치면 총 47,997인이 된다.

었다.<sup>59)</sup> 문·무과에 합격한 사람을 及第·出身이라 한 데 비하여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은 入格이라 하였다. 그러나 잡과 합격자의 백패와는 달리 생원·진사시합격자의 백패에는 국왕의 御寶 중의 하나인 과거보를 찍어 주었다. 다시 말하면 생원·진사의 백패는 국왕이 내려주는 합격증이었다.

그러면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자격이 부여되었을까. 우선 생원과 진사는 성균관 상재생으로 들어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한 다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생원(및 진사)은 입학의 문이요, 급제(문·무과)는 입사의 길이다”라고 한 것처럼 생원·진사는 입사가 목적이 아니라 성균관에 입학하여 문과시험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생원·진사시는 문과의 예비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생원·진사시를 문과의 일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년시나 증광사에서 배출되는 생원·진사 200인이 곧바로 성균관에 입학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문과에 전혀 응시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생원·진사는 원칙적으로 성균관에 들어가 원점 300을 따라 문과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었다. 약 300일 동안 성균관 교육에 출석하면 문과 응시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sup>60)</sup> 그러나 문과에 응시한다고 해서 바로 급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여러 번 떨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자면 오랫동안 백패를 안고 무직의 사류로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스스로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무직의 사류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으며 또 국가에서 이러한 무직의 사류를 양산하기 위하여 생원·진사시를 설행하고 있었던 것인가. 결국 이러한 문제는 학교제와 과거제가 일원화되지 않고 별개로 운영된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중국의 명·청시대처럼 학교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쳐 최종적으로 과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제와 과거제가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게 된 것은 양반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양반들이 구태여 일반 양인도 입학할 수 있는 향교나 4학에 들어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부하여 문과에 응시하는 것을 바라지

59) 《經國大典》권 3, 禮典 白牌式.

60) 曹佐鎬, 앞의 글, 117쪽.

않았던 것이다. 양반들도 원칙적으로는 향교나 4학을 거쳐 생원·진사시를 합격한 다음 성균관에 들어가 다시 문과를 준비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양반의 특권이 보장될 수 없었다. 그들은 별도로 私學을 만들어 특권적으로 과거준비 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官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사학을 장려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자면 반드시 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생원·진사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원·진사시가 향교·4학과는 별도로 설행되었던 것도 이러한 양반들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전근대시대 교육이 관학보다 사학전통이 강하였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관학 중에서도 일반 양인이 많이 들어가는 향교보다는 서울의 양반 자제들이 많이 들어가는 4학에 특전이 더 주어져 있었고 생원·진사가 아니면서도 성균관 下齋(寄齋)에 들어가 생원·진사시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승보시도 4학에 편중해서 운영하였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성균관 유생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균관에 들어가는 유생수가 날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학이 허소하다는 한탄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문과 응시에 필요한 원점 300을 채운 자격자가 늘 모자라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문과 응시에 필요한 원점을 줄여 주거나 아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식년시보다 자주 설행되던 각종 별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특히 단 한번의 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알성시·황감시·정시 등에서는 당시에 재학하고 있는 성균관 유생을 시험 대상으로 하거나 아예 재학과 관계없이 시험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성균관 유생수도 늘 200인을 채울 수 없어 한때 75인으로 줄었다가 《속대전》에 126인으로 정하여 그 중 106인을 생원·진사로 채우도록 하였다. 서울의 세력있는 집안의 자제들은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시설이 나빠서 성균관에서 수학하기를 꺼려 성균관에는 시골출신 유생 30~40명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과거시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또 국가에서도 이를 수용하곤 하였다. 또 부모가 나이가 많거나 병들었을 경우에, 원점을 면제해 주게 되어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원점없이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문과 응시자에는 생원·진사로서 원점 300을 채웠거나 미달한 자, 전혀 원점을 따지 않은 생원·진사, 생원·진사시를 합격하지 않은 幼學들이 있었다. 그런데 영조조 이전에는 생원·진사(원점이 있고 없고를 관계없이)가 70% 이상 문과에 급제하였거나 영조조 이후에는 오히려 유학이 70% 이상 문과에 급제하였다.

생원·진사시가 실시된 229회에 47,748인을 뽑았으나 조선왕조 502년간(1392~1894) 연평균 95인씩을 뽑은 셈이다.<sup>61)</sup> 이 47,748인 중 문과에는 7,438인만 급제하였으니 나머지 40,310인의 생원·진사는 무직의 사류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생원·진사 중 약 6.4% 만이 문과에 합격하고 93.6%는 생원·진사의 자격증만 가진 채 늙어간 셈이다.

이 4만여 명이나 되는 생원·진사 중에는 蔭仕나 取才를 통하여 관직에 진출한 자들과 관직과 관계없이 그대로 늙어간 두 부류들이 있었을 것이다. 문과에 급제한 생원·진사들은 물론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고위관직을 역임하였을 것이다. 즉, 생원·진사중 문과급제자들은 정랑·지평·교리·좌랑·정언·감찰·전직·박사· 저작·검열·학유 등 이른바 名宦을 지냈는데 비하여 생원·진사 중 蔭官으로 관직에 나아간 사람들은 참봉·현령·현감·찰방·교도 등 하위 외직에 임명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문과에 급제한 생원·진사는 50% 이상이 정3품 이상으로 승진하였는 데 비하여 음관으로 진출한 생원·진사는 9%만이 정3품 이상으로 승진하였다. 반대로 중4품 이하의 관직에는 문관이 27.4%, 음관이 80.7%가 속해 있었다. 또한 문관의 終職은 70%가 정품직이었던 데 비하여 음관의 종직은 5.5%만이 정품직이고 나머지는 종품직이었다. 이것은 대체로 名宦이 정품직이었고 참봉·현령·찰방 등 외직이 종품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sup>62)</sup>

한편 조선 초기에는 1회의 생원·진사시 입격자 200인 중 30%인 66인이 문과에 진출한다는 전제 아래 54명이 문과에 급제하였으니 88%가 목적(문과 급제)을 달성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14명이 문과에 급제하였으니 24%가 목

61) 崔珍玉의 통계에는 186회에 생원 19,675인, 진사 20,974인, 합계 40,649인을 뽑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현존하는 司馬榜目(小科榜目)에 나타나는 것만을 정리한 숫자이다.

62) 宋俊浩, 앞의 책, 48~49쪽.

적을 달성한 셈이고, 고종시대에는 12%만이 목적을 달성하였다. 즉 조선 초기에는 문과에 응시하기 위하여 생원·진사시를 본 사람이 많았는데 비하여 조선 후기 이후에는 문과에 뜻이 없거나 문과를 단념하지 않을 수 없어 생원·진사의 자격만을 따기 위해 생원·진사시를 본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sup>63)</sup>

그러나 음관의 경우 생원·진사가 되자마자 관직을 받은 자는 극히 소수이며 그 중의 반 이상이 10년을 기다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20년을 기다려 관직을 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관직이라 해도 五衛將이니 참봉이니 교도니 하는 미관말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문과에 급제한 생원·진사도 5년 이내에 급제한 사람은 34%에 불과하며, 10년이 넘어서 급제한 사람이 33%이고, 30년이 넘어서 급제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물론 음관으로 진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직의 사류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았다. 무직의 사류로 남아 있는 사람 중에는 가문의 배경이 약한 지방 출신이 더 많았다. 서류 출신은 33%가 무직의 사류였는데 지방 출신은 70~80%가 무직의 사류였다.<sup>64)</sup>

이러한 무직의 사류들은 지방사회에서 司馬所 등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구를 만들어 향촌지배에 앞장 섰다. 향교의 靑衿錄을 장악하고 서원의 유사를 맡는 것도 이들의 할 일이었다. 따라서 생원·진사는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이었을 뿐 아니라 지방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확실한 양반의 자격증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문과 몇 장, 생원·진사 몇 장을 냈느냐에 따라 가문의 성쇠가 좌우되었다. 이들은 생원·진사의 자격을 내세워 지방민의 교화, 하층민의 지배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인물의 진퇴, 조세수납, 군역책정, 수리시설의 관리·이용, 혼인관계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들은 또한 지방토호로서 지방수령과 결탁하여 각종 이권과 권한을 독차지하였으며 지방양반으로서 지방통치에 군림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양의 Gentry와 같은 지위와 권한·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지방사회의 지배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문과에는 급제하지 못하더라도 생원·진사가 되고자 애쓴 것이며 조선 후기

63) 宋俊浩, 위의 책, 40~41쪽.

64) 宋俊浩, 위의 책, 49~52쪽.

로 올수록 생원·진사를 양산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 3) 무과

고려시대에는 예종 4년(1109)부터 인종 11년(1133)까지 24년간을 제외하고는 武科가 실시되지 않았다. 고려시대의 崇文偃武 정책으로 무관을 양성하는 무학이나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에 무관은 行伍에서 무재가 있는 사람을 뽑아 쓰는데 그치고 있었다. 지방의 반독립적인 무적 성격이 강한 향리세력을 누르고 중앙집권적인 문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고려 광종조에 과거제도를 실시할 때, 문과에 해당하는 제술업·명경업과 잡과에 해당하는 잡업만 실시하고 무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양반관료제를 운영하려면 문·무과가 균형있게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양반관료 체제에서는 문반과 아울러 무반이 짝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미 고려 말인 공민왕 원년(1352)에 李穡이 무과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민왕 20년 12월에 문·무의 균형을 꾀하여 유학인 성균관·향교와 아울러 무학을 설치하였고, 공민왕 21년에 10학을 설치할 때 무학을 軍候所에 두기로 하였으며, 다음해인 공양왕 2년(1390)에는 都評議使司의 건의에 따라 무과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고려왕조가 멸망함에 따라 무과는 실시되지 못하였다.<sup>65)</sup>

그리하여 무과의 실시는 조선왕조의 건국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문과와 아울러 무과도 訓練觀 주관으로 33인을 뽑도록 명하였다.<sup>66)</sup> 이는 공양왕 2년에 정해진 무과의 실시 규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훈련관은 송의 무학을 본뜬 것으로 고려 말의 군후소를 합병하여 무과를 주관하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태조가 즉위한지 한 달 뒤인 태조 원년(1392) 8월에는 入官補吏法을 만들어 정도전이 제창한 문과·무과·

65) 沈勝求, 앞의 글, 6~7쪽.

66) 《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이과·문음을 관리를 뽑는 네 가지 길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태조 2년에는 文·武科放榜儀를 제정하고 태조 3년 12월에는 무과시험에 太一算을 포함시켰으며, 태조 6년 5월에는 무과 출신자를 문과의 예에 따라 서용하도록 하였다.<sup>67)</sup>

그러나 새 왕조가 개창되었다고 해서 고려의 구체제를 즉시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태조 2년 3월에 실시된 과거시험에서는 제도적으로 혁파되었던 국가감시를 그대로 실시하였다. 이에 조선시대의 무과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태종 2년(1402) 정월에 가서였다.<sup>68)</sup> 이 무과법은 《經國大典》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태종조의 무과 실시는 정종 2년(1400) 4월에 있었던 사병혁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고려 말에는 병제가 해이되어 각 節制使들이 멋대로 군사를 뽑아 거느리고 있었다. 잦은 외침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이렇게 뽑힌 군사들은 그들을 뽑은 무장들의 사병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병은 새로이 건국된 조선왕조의 군사권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이에 태조조의 정도전은 義興三軍府를 설치하면서 사병을 혁파하고 병권을 국가에 귀일시키려고 하였으며, 정도전이 실각한 뒤에 새로이 집권한 李芳遠(태종)은 정종 2년 4월에 사병을 혁파하였다. 반면에 중앙군과 시위군을 강화하기 위하여 別侍衛·內禁衛·內侍衛·甲士 등 특수군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무관과 군사를 양성·선발할 필요가 있었다. 무학과 무과를 설치·실시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고려 말부터 설치되어 온 무학이 태조 2년에는 兵學·律學·字學·譯學·醫學·算學 등의 8학에 포함되어 무과에 응시하려면 훈련관에서 무학교육을 받은 다음 무과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무학이 유학인 성균관·4학·향교처럼 따로 설치된 교육기관으로 독립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무학에 입학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과에 응시할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무과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태종 6년 11월에 증설된 10학<sup>69)</sup>에서는

67) 沈勝求, 앞의 글, 9~10쪽.

68) 《太宗實錄》권 3, 태종 2년 정월 을축.

69) 儒學·武學·史學·譯學·陰陽風水學·醫學·字學·律學·算學·樂學.

유학만은 현임 7품 이하가 입학하게 하고 무학을 비롯한 나머지 9학은 현임·전임 4품 이하가 四仲朔에 시험을 통하여 입학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은 취재시험을 통하여 임용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무학은 하급관리들의 취재 교육기관으로 전락하였다. 결국 무과는 무학교육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도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무학취재가 더 중요한 목적으로 된 셈이다.<sup>70)</sup>

한편 座主門生制를 혁파하면서 무과의 시관 명칭도 바뀌었다. 즉 태종 10년(1410) 10월에는 무과의 監校官·同監校官을 폐지하고, 태종 14년에는 兵曹祝壽齋와 武科祝壽齋를 혁파하였으며, 종래 훈련관이 담당하던 무과업무를 병조가 주관하고 훈련관이 동참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종조에는 무과 시험과목으로 무예만 시험보이던 것을 병서와 유교경전을 아울러 시험보였다. 將才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무예뿐 아니라 유교적인 경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전술보다는 전략이 우선이라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sup>71)</sup>

무과에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정기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시험인 별시가 있었다. 3년 1試의 원칙은 이미 고려 선종조에 정해졌으나 고려시대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후 태조 2년(1393) 3월에 3년 1시의 원칙이 다시 확인되어 태종 2년 무과부터 철저히 준수되어 왔다. 식년 무과에는 식년 문과처럼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 시험이었다. 그러나 무과에는 문과의 생원·진사시와 같은 예비시험은 없었다. 무과 초시에는 훈련원<sup>72)</sup>에서 실시되는 院試와 각 도별로 실시되는 향시가 있었다.<sup>73)</sup>

원시는 훈련원에서 錄名試取하였고, 향시는 각 도병마절도사가 차사원을 보내어 녹명시취하였다. 초시에서 뽑힌 190인을 다시 병조에서 실시하는 복시(회시)에 응시하여 28인을 뽑아 전시에서 왕의 친림 하에 등급을 정하여

70) 沈勝求, 앞의 글, 15쪽.

71) 沈勝求, 위의 글, 16~17쪽.

72) 訓練觀이 뒤에 訓練院으로 바뀌었다.

73) 무과 초시의 정원은 훈련원 70인, 경장 30인, 충청·전라 각 25인, 강원·황해·평안·함경 각 10인, 합계 190인이었다(《經國大典》권 4, 兵曹 武科).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을 정하였다. 그런데 무과의 경기 향시는 태종 2년부터 있어 왔으나 세종 8년(1426)정월에 폐지되고 그 정원은 원시에 편입되어 50인에서 70인으로 늘었다.<sup>74)</sup> 식년 무과는 거의 식년 문과와 함께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초시는 上式年(식년 전해인 寅·申·巳·亥年) 가을에, 복시와 전시는 식년 봄에 실시되었다.

무과의 경우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식년시 이외에 증광시·별시·알성시·정시·觀武才(춘당대시)·외방별시·중시·발영시·등준시·진현시 등의 별시가 있었다. 증광시는 시험방법이나 시취액수가 식년시와 같았고 대증광시에서는 초시·복시에 증광시의 두 배를 뽑았다. 증광시는 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는데 증광 문과는 태종 원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증광 무과는 세종 원년(1419) 4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증광시에는 문·무·갑과가 동시에 설행되었다. 대증광시는 경사가 겹칠 때에 설행되었다.<sup>75)</sup>

문과 중시는 태종 7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나 무과 중시는 태종 10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태종 16년부터는 문·무과 중시가 함께 실시되었다. 중시는 丙年에 실시되는 것이 상례였고 당하관 이하의 문·무 관료들이 응시하였으며 합격한 사람에게는 승진의 혜택이 주어졌다. 중시를 실시할 때에는 별시도 함께 설행하였는데 이를 초시라 불렀으나 이것은 문·무과 초시와는 다른 것이었다. 무과 중시는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취하였는데 문과 중시와 함께 10년만에 한 번씩 실시되었다. 그러나 초시 兩所에서 각 50인씩을 뽑는 것이 다르다.<sup>76)</sup>

별시·알성시·장시·관시제·중시는 초시·전시 두 차례의 시험만 있었으며 그때그때 뽑는 수를 정하였다. 다만 알성시는 초시의 양소에서 50인을 뽑아 전시에서 국왕의 친림 아래 시취하는 것이 다르다. 알성시는 국왕이 성균관 문묘에 나아가 석전제를 지낸 다음 실시하는 특별시험이었다. 알성시는 태종 14년(1414) 7월에 처음으로 설행되었는데 이 때에는 문과만 실시되었다. 그 이유는 武聖廟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세종 13년(1431) 3월에

74) 《世宗實錄》권 31, 세종 8년 정월 기유.

75) 沈勝求, 앞의 글, 25쪽.

76) 沈勝求, 위의 글, 27~28쪽.

는 훈련관 북쪽에 무성묘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문신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그 대신 알성시에 무과도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세종 16년 2월부터 무과도 알성시에 함께 보이기로 하였다. 알성 무과는 초시와 복시의 두 단계가 있었다.<sup>77)</sup>

관무제는 2품 이상 문관과 무관 각 1인이 시관이 되어 한량·군관·조관에서 시취하였고 禁軍은 따로 병조판서가 시관이 되어 시취하였으며 전시는 춘당대에서 국왕의 친림 아래 2품 이상 문관 1인, 무관 2인이 참시관이 되어 시취하고 외방 관무제는 의정 1인이 命官(왕명을 띤 관원)이 되어 시취하였다. 관무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은 한량은 전시에 직부시키고, 출신은 수령이나 변장에 임명하였으며 군관은 가자하거나 상을 주었다.<sup>78)</sup>

무과 중시는 정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취하였는데 문과 중시와 함께 10년 만에 한 번씩 실시되었다. 그러나 초시 양소에서 각 50인씩을 뽑는 것이 정시와 달랐다.

중시와 비슷한 시험으로 발영시·등준시·진현시가 있었다. 발영시는 세조 12년 5월 단오절에, 등준시는 세조 12년 9월에 실시되었다. 발영시와 등준시에는 중진 및 재상 이하 모든 관료가 응시하였는데 합격자는 관직을 올려주었다. 이들 시험에는 초시와 전시 두 차례의 시험이 있었다. 진현시는 성종 13년(1482) 10월에 실시되었는데 문신 4인 무신 10인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시험은 세조·성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특별시험으로 한 번씩밖에 실시되지 않았다.<sup>79)</sup>

외방 별과는 평안도·함경도·강화·제주에서 국왕의 특旨에 의하여 실시되는 무과 별시의 일종으로 중신이나 어사를 보내어 단 한번의 시험으로 급락을 결정하였다. 중신이 파견될 때는 空名牌를 보내어 합격자의 이름을 직접 써넣어 발표하게 하였고 어사를 파견할 때는 합격자를 무과 전시에 직부하게 하였다.<sup>80)</sup>

그리고 무과와는 조금 다르지만 지방의 한량과 군관·조관을 대상으로

77) 沈勝求, 위의 글, 26~27쪽.

78) 曹佐鎬, 앞의 글, 180쪽.

79) 沈勝求, 앞의 글, 29쪽.

80) 沈勝求, 위의 글, 26쪽.

무예를 시험보이는 都試와 觀武科가 있었다. 도시는 무관들의 무예를 꾸준히 연마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조선시대에만 있던 시험이었다. 이것은 문관의 문신월과법에 비견되는 시취제도였다. 도시는 매년 봄(4월경)·가물(8~11월경) 두 차례 실시되었다. 다만 국상 등 국가의 큰 일이 있을 때는 거르기도 하였다. 京中都試의 시관은 병조의 주관하에 의정부·6조·도총부·당상관·훈련원·당상관 각 1인이 되었으며 시험일에는 의정부·6조·당상관이 모두 칙관하게 되어 있었다. 外方都試의 시관은 처음에는 각 도의 감사와 都試制使가 맡았는데 세조 12년(1467)부터 감사와 병마절도사가 맡았다. 그러므로 경기·황해·강원도와 같이 감사가 병마절도사를 겸임하고 있는 곳에서는 감사 혼자 도시의 시관이 되었다. 도시는 한 차례의 시험밖에 없었다. 다만 외방 도시는 예비시험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세종대를 전후하여 중앙군이 외방 도시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시험절차는 경중 도시와 같아지게 되었다.<sup>81)</sup>

태조대의 도시에는 전국의 군민이 다 응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종조의 도시에는 삼군갑사·별시위·성중애마·한랑인·각품양첩자 등 다양한 계층이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의 주목적은 중앙군을 대상으로 하여 훌륭한 감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경중 도시의 경우는 적어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외방 도시에는 侍衛牌·營鎮軍·守城軍·騎船軍·閑良 등 일반 병종의 군사들도 응시하게 되어 있었다. 이는 세종조 말의 중앙군의 지방군화로 군역이 일원화되는 데에 따른 결과였다. 다만 수령·우후·만호와 그 자제들은 그 도의 외방 도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시험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내금위의 군사는 도시에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조 6년(1460) 5월부터는 내금위와 무과 급제자·검사복·종3품 이하의 동·서반 관료들까지 자원에 따라 도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에게는 1등의 예로 선발하는 특전까지 주었다. 무재가 뛰어난 무관을 뽑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들에게는 무예시험을 면제해 주고 講書시험을 보여 별도로 상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세조조

81) 沈勝求, 위의 글, 29쪽.

沈勝求, 〈朝鮮初期 都試와 그 性格〉(《韓國學報》 60, 1990), 103~104쪽.

의 도시는 세종조의 도시와 달리 무관의 加資·給到를 위한 시험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에 강서시험을 첨가한 것도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였다.<sup>82)</sup>

도시의 선발 인원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태조 4년(1395)에는 문과와 같은 33인이었다. 무과가 실시되기 이전인 태조대의 도시는 무과적 성격을 띠고 실시되었던 때문이다. 그 후 세종 25년(1443)에는 도시의 정원을 1등 7인, 2등 23인, 3등 40인, 합계 70인으로 정하였으며, 세조 6년에는 무과 급제자와 무관들까지 도시에 참여하게 하여 정원을 1등 7인, 2등 33인, 3등 60인, 합계 100인으로 늘렸다. 이것은 무예로써 뽑는 정원이고 따로 병서를 시험보여 20인을 뽑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예와 병서의 성적을 종합하여 성적순으로 뽑았으므로 두 가지 시험의 구별은 무의미하게 되었고, 《경국대전》에는 정원조차 밝히지 않았다.<sup>83)</sup>

도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관품을 一資씩 올려주거나 갑사·별시위에 입속시키거나 급사·급도의 특진을 주었다. 그러나 지방 도시합격자에게는 서울의 도시합격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급사·급도의 혜택을 주었다. 이와 같이 도시는 무관·군사들의 무재를 시험하여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과 급제자와 내급위 군사는 반드시 도시에 응시하게 하여 승진의 특진을 보장해 주었다. 무과가 무재를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인 데 비하여 도시는 무과 급제자를 포함한 무관·군사들의 무예 단련을 위한 재훈련과정으로서 우수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는 신분의 차이없이 광범하게 응시할 수 있었던 한 번의 시험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단시험제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도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는 무과 전시에 직부시키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sup>84)</sup>

그런데 식년 무과에서는 28인의 정원을 대체로 지켰으나 별시 무과의 경우는 항상 식년 무과의 시취액수보다 많이 뽑았다. 특히 세조는 북정에 따른

82) 沈勝求, 위의 글(1990), 106쪽.

83) 沈勝求, 위의 글, 101·115~121쪽.

84) 沈勝求, 위의 글, 121~123쪽.

야인의 회유책 또는 서북 지방민을 위한 인심수습책의 하나로서 별시 무과를 자주 실시하여 많은 인원을 뽑았다. 이것은 조선 후기의 萬科設行의 시작에 불과하였다.<sup>85)</sup> 조선 전기에는 남으로 왜, 북으로 여진의 세력이 성장하여 남북으로 조선을 괴롭혔다. 이에 조선에서도 이러한 南倭·北胡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86)</sup> 이러한 군사행동에는 많은 군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외침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각 진에 배치되어 있는 留防兵만으론 충분하지 않았다. 더구나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유방병의 병력수를 채울 수 없었던 데다가 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변장들의 침탈로 도망병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만과를 자주 실시하여 군사를 보충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을묘사변 이후에도 외환은 그치지 않았다. 선조대에 尼湯介亂을 비롯하여 선조 25년(1592)의 임진왜란, 인조 14년(1636)의 병자호란 등이 잇따라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전공을 세운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 무과에 등과시키기로 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왜인의 목 하나를 베어 오면 공·사천을 막론하고 무과에 등과시켜 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과 급제자는 수천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飢民의 머리를 베어 왜인의 머리라고 신고하여 급제한 자도 생기고 천인들이 행운을 얻는 자가 많아 무과는 드디어 일반화가 되었다.<sup>87)</sup> 그리하여 임진왜란 이후에는 무과출신을 기간요원으로 하고 양민과 노비를 혼성한 東伍軍이 출현하게 되었다.<sup>88)</sup>

85) 萬科란 무과시취를 천인·만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숙종 2년(1676) 3월에는 八道庭試에서 18,251인을 뽑은 바 있었으며, 인조 5년(1627) 2월 山城庭試에서 5,464인, 광해군 10년(1618) 7월 庭試에서 3,200인, 동왕 12년 7월 庭試에서 3,000인, 동왕 13년 9월 庭試에서 4,301인을 뽑은 바 있다. 茶山 丁若鏞도 “有取數百者 謂之千科有取數千者 謂之萬科 此又何法也”(丁若鏞, 《經世遺表》 권 43, 夏官修制 武科)라 하여 무과에서 수백 인을 뽑는 것을 千科, 수천 인을 뽑는 것을 萬科라 하였다.

86) 鄭道傳의 北邊 개척(태조조), 李從茂의 對馬島 정벌(세종조), 金宗瑞의 六鎭 개척(세종조), 申叔舟의 北征(세조조)·三浦倭亂 진압(중종조)·乙卯倭邊 진압(명종조) 등이 그것이었다(李洪烈, 〈萬科設行의 政策史的 推移〉, 《史學研究》 18, 1964, 216쪽).

87) 李晔光, 《芝峰類說》 권 4, 官職部 科目.

88) 李洪烈, 앞의 글, 225쪽.

이러한 현상은 광해군조의 만주출병, 효종조부터 숙종조에 이르는 북벌계획으로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광해군 10년(1618) 7월에 병조는 대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나머지 증광 무과의 초시에 입격한 사람을 전시에 직부하는 조치까지 내렸다.<sup>89)</sup> 이러하여 아들 여섯이 다 무과에 급제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만과는 계속 성행하여 무과는 천한 과거로서 천인들로 차 있었으며 무과 출신자라고 다 변방에 入防하는 것이 아니어서 서울에는 등용되지 못한 자들이 가득하여 불평자들로 들끓게 되었다. 한편 한번 북변에 부방한 문과 출신자들은 병역 면제의 특혜를 받게 되어 오히려 정상 병력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쌀값도, 오르고 뇌물을 주어 관직을 구하는 행위(奔競)가 성행하게 되었다. 정치인들은 이들을 당쟁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병력과 전결이 그 이전보다 약 3분의 1이 줄어들어 국가재정이 극도로 피폐하여졌다. 이에 국가에서는 그 변통책으로서 賣官賣爵·庶孽許通·奴婢放良·通行帖發給·納粟補官·校生免講 등 비상수단을 동원하였다. 이와 아울러 무과 급제자들에게 쌀이나, 화폐의 대용으로 쓰이던 면포를 받고 북변 근무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북변지방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청나라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조치를 합리화하기도 하였다. 만과 출신의 除防 納米量은 1인당 5섬으로 정하여졌다.<sup>90)</sup> 이것은 식년 무과 출신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무과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납미뿐 아니라 군포·군량·전마를 징수하기도 하여 국가의 웅색한 재정을 타개하고자 하였다.<sup>91)</sup> 그리하여 《속대전》에 납미자, 60세 이상된 자, 부모가 80세가 된 자를 제외한 무과 출신자는 모두 서북 변경의 군아 赴防해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sup>92)</sup> 그런데 양반 자제에 대한 부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유의해 볼 만하다. 변방 방위를 위하여 양반의 무과 출신자들은 의무적으로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 기타 양·천의 무과 출신자들에게는 납미하게 하여 국가재정을 보완해 보

89) 《光海君日記》(太白山本) 권 130, 광해군 10년 7월 갑인.

90) 산간지방은 綿布로 대납.

91) 李洪烈, 앞의 글, 326~238쪽.

92) 《續大典》 권 4, 兵典 留防.

자는 의도였다.

만과의 설행은 변방 방어의 긴요성이 줄어든 조선 후기에도 계속되었으며 식년 무과의 시취인원도 늘어만 갔다. 국방상의 이유에서라기 보다는 재정상의 이유 때문이었다. 시취 명목은 국가경사나 권무를 방자하였다. 현종 초년에는 따로 勸武廳을 두고 권무과를 실시하기도 하였다.<sup>93)</sup> 무과 출신자는 그 자신은 물론 그 아들·사위·동생·조카까지 충순위에 소속되는 有廳軍官으로 명명되어 포 1필(전은 2냥)씩을 납부해야만 하였다.<sup>94)</sup> 국가재정 보전책의 일환이었다. 이와 같이 만과는 처음에는 국방상의 이유로, 뒤에는 재정상의 이유로 자주 설행되어 많은 무과 출신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들 급제자 중에는 양반 자제뿐 아니라 천인 자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병력의 저질화와 신분제의 혼효를 초래하게 되었다. 만과의 현상은 과거제도가 폐지되는 고종 31년(1894)까지 계속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별시에서 수백·수천 인의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식년 무과에서도 정원인 28인을 넘고 특히 숙종조 이후에는 수백 인씩 뽑았다. 그리고 무과는 거의 매년 실시되었고 한 해에 몇 번씩 실시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결국 무과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회혼란을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국가의 궁핍한 재정을 보완하고 하층민들의 신분 상승을 돕는 계기로도 이용되었다.

한편 임진왜란 이후인 선조 28년(1600)에는 각 도에 중앙의 훈련원에 비견되는 무학을 설치하고 武學事目を 만들어 군사 양성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였다.<sup>95)</sup> 그리고 武學案에 등재된 사람을 무학이라는 직역을 부여하게 되었다. 무학이라는 직역은 선조 39년의 《出陰帳籍》에서부터 보인다.<sup>96)</sup> 무학은 마병으로 편제되었으며 때로는 포병·수군으로도 편제되었다.<sup>97)</sup> 또한 인조 22년(1644)의 各道校生考講事目에서는 낙강자를 우선 무학시재를 거쳐 여기

93) 李洪烈, 앞의 글, 239쪽.

94) 丁若鏞, 《牧民心書》 권 28, 兵典 勸武.

95) 李俊九, 〈朝鮮後期の「武學」攷〉(《大丘史學》 23, 1983), 6~7쪽.

96) 李俊九, 〈武學과 그 地位變動〉(《朝鮮後期 身分職役變動研究》, 一潮閣, 1993), 68쪽.

97) 李俊九, 위의 글(1993), 70쪽.

에서 떨어진 자를 軍保에 편입하도록 하였다.<sup>98)</sup>

무학은 본래 忠順衛·忠壯衛·業武·業儒와 함께 규정 외의 면역자였다. 그러나 현종 5년(1664) 이후에는 이들은 모두 종신토록 면포 2필씩만을 부담하는 의무만 지게 되었다.<sup>99)</sup> 무학에는 양반자제들이 많이 속해 있었다. 그러나 숙종 31년(1705) 이전에 이미 무학이 무학군으로 作隊되면서 여기에 입속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학의 지위도 낮아지게 되었다.<sup>100)</sup> 따라서 양반 자제 이외에 중인·서얼들도 입속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학은 반상의 중간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sup>101)</sup> 무학은 또한 도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무학은 일반 양인들의 신분 상승의 기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인들도 노비를 소유하고 雇工을 둘 만한 경제적 여유를 가진 富戶들이었다고 추정된다.<sup>102)</sup>

#### 4) 잡 과

조선시대의 잡과에는 譯科·醫科·陰陽科·律科 등 네 종류가 있었다. 태조 원년(1392) 8월의 入官補吏法에는 국가관리를 뽑는 관문으로 文(門)蔭·문과·무과·이과·역과·의과·음양과 등 7과가 있었는데 이 중 잡과로는 이과·역과·의과·음양과의 4과가 있었다.<sup>103)</sup> 율과가 빠지고 서리를 뽑는 이과가 있었던 셈이다.

고려시대의 잡업으로는 醫卜·地理·律·書·算·三禮·三傳·何論이 있었다. 이 중 율·서·산이 취재시험으로 바뀌고 경전시험인 3례·3전·하론이 빠진 것이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 신설된 吏科는 문·무과와 구별되는 파급서리인 성중관원(뒤에 녹사)를 뽑는 잡과 시험이었다.<sup>104)</sup> 그러나 이과는

98) 《備邊司謄錄》 37책, 숙종 9년 12월 12일.

99) 李俊九, 앞의 글(1993), 71~72쪽.

100) 李俊九, 위의 글, 75쪽.

101) 李俊九, 위의 글, 78쪽.

102) 李俊九, 위의 글, 85·92쪽.

103) 《太祖實錄》 권 1, 태조 원년 8월 신해.

104) 鄭道傳의 《朝鮮經國典》 入官條에 7과를 설명하는 가운데 “謂薄書期會金穀營



7과가 설치된 태조 원년(1392) 8월에 바로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실록에 의하면 이과는 취재로 뽑아오다가 세종 8년(1426) 4월에 처음 잡과에 편입되어 다른 잡과의 예에 따라 식년마다 가례·율·서·산·《元六典》·《續大典》·《訓民正音》등 시험을 보여 70인을 뽑아 성중관에 빈 자리가 생기면 임용하도록 되어 있었다.<sup>105)</sup> 그러나 이과에 관한 법규가 육전에 기록되지 않아 세종 13년 9월에 가서야 실시하게 되었다.<sup>106)</sup> 그리하여 이과 1등에는 架閣庫丞同正, 2등에는 副丞同正, 3등에는 錄事同正을 주었으나 뒤에 각각 고가 헛이름에 불과하다고 하여 백패를 주었다.<sup>107)</sup> 이와 같이 이과는 조선 초기의 약 40여년 동안 실시되어 오다가 다시 吏員取才로 바뀌게 된 것이다. 당시에 이과가 실시됨으로 해서 율·서는 여기에 포함되었다가 이과가 없어진 다음에 율만의 율과로 독립되고 산은 算員取才로 그대로 남게 되었다. 算學取才案이 계속 남아 마치 산과와 같은 인상을 주게 된 것도 이러한 때문이었다.

이과와는 별도로 吏文科도 일시 시행되었다. 즉 태종 7년(1407) 3월에는 이문을 문과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하거나 문과 종장에 「吏文之士」를 같이 시험 보여 문과 급제자에 포함시키는 특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sup>108)</sup> 그러나 세종 5년(1423) 12월에 승문원이 생기자 이문과는 없어지고 문과에 이문을 아울러 시험보여 승문원에 보내게 되었다.<sup>109)</sup> 이와 같이 이문과는 설치된 지 불과 6년만에 없어지고 승문원이 이문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문과와 함께 譯科도 조선왕조의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관 충원을 목적으로 국초부터 실시되었다. 역과 중에는 漢語·蒙語·女眞語·倭語의 4과가 있었는데 한어가 가장 중시되었다. 대명외교의 중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한어과는 국초부터 실시되었으나 몽어과는 세종 원년 4월에,<sup>110)</sup>

造之事 供給應對之節 不可以不習 置吏學”이라 한 것으로 보아 吏科은 吏員選拔試驗이었음을 알 수 있다.

105) 《世宗實錄》권 32, 세종 8년 4월 갑신.

106) 《世宗實錄》권 53, 세종 13년 9월 계미.

107) 《世祖實錄》권 46, 세조 14년 6월 병진.

108) 《太宗實錄》권 13, 태종 7년 3월 무인.

109) 《世宗實錄》권 22, 세종 5년 12월 을축.

110) 《世宗實錄》권 3, 세종 원년 4월 경인.

왜어과는 세종 23년 7월 이전에,<sup>111)</sup> 여진어과는 문종 원년(1451) 4월에<sup>112)</sup>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성종 13년(1482) 무렵 한때 문과에 한어를 함께 시험보여 그 합격자를 문과 출신자와 같은 자격으로 서용코자 하였으나 문신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sup>113)</sup>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조선사회에서 한역관의 지위가 양반만은 못하였지만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역과를 담당하던 관청은 司譯院이었다. 사역원의 연원은 泰封의 史臺에 소급되며, 고려 충렬왕 2년(1276)에 通文館이 생겨 외국어에 관한 사무를 맡았고, 뒤에 사역원이 생겨 역관의 교육과 역과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공양왕 3년(1391)에 漢語都監을 한문도감으로 바꾸었다고 한 것을 보면 고려말에 한어도감이 있었다가 이 때에 한문도감으로 바꾼 것 같다.<sup>114)</sup>

이와 같은 고려시대의 중첩된 역학·역과 담당 관서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사역원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역과 중에 한어과·몽어과·왜어과·여진어과가 차례로 생기게 되었다.<sup>115)</sup>

한편, 지방의 역학은 지방 요충지에 설치되었다. 세종 10년에는 이미 있었던 평양 譯學院의 예에 따라 義州에 한학이 생기고, 동왕 12년에는 乃而浦·富山浦·鹽浦에 왜학을, 동왕 15년에는 黃州에 한학을, 예종 원년(1469)에는 熊川·東萊에 왜학을 각각 설치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웅천·동래의 왜학이 폐지되었고, 義州·昌城·理山·碧潼·渭原·滿浦·北靑에 여진학이 신설되었으며, 정조 때에 만든 《대전통편》에는 薺浦·鹽浦의 왜학이 없어진 대신 巨濟에 왜학을, 濟州에 한학과 왜학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고종 때에 만든 《六典條例》에는 제주의 한학·왜학과 의주와 여진학이 없어진 대신 宣川에 몽학, 海州·甕津·咸興에 한학, 全羅左·右水營과 統制營에 한학과 왜학을 각각 신설하였다. 이러한 지방 역학원에서는 鄉通事를 양성하여 중앙의 사역원에 파견근무시켰으며 중요한 역관은 사역원에서 양성·선발하였다.<sup>116)</sup>

111) 《世宗實錄》권 93, 세종 23년 7월 정미.

112) 《文宗實錄》권 7, 문공 원년 4월 을해.

113) 《成宗實錄》권 139, 성종 13년 3월 을축·계사.

114) 李洪烈, 〈雜科試取에 對한 一考〉(《白山學報》3, 1967), 334쪽.

115) 李洪烈, 위의 글, 334~335쪽.

116) 李洪烈, 위의 글, 336쪽.

의학교육이나 의학시취를 담당한 관청은 典醫監이었다. 고려시대에는 太醫監(목종대)·惠民署(예종대)가 있었으나, 고려 말에는 典醫寺·惠民庫局으로 개칭되었다. 조선 태조의 즉위 초에 전의감·혜민국을 두었고, 태조 6년(1397)에는 따로 濟生院을 두어 三醫司라 불렀다. 이 중 전의감에서 의학교육과 의과시취를 담당하였으며 혜민국에서는 약재 수집과 민생의료료, 재생원에서는 약재 수집·의녀교육·미아수양 등의 일을 맡았다. 그러나 재생원은 세조 6년(1460)에 혜민국과 일시 합쳤다가 곧 부활되었다. 전의감에서 뽑은 의과 출신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세종조부터는 3의사에 의생방을 따로 두어 의학교육을 시켰다. 이것이 의학설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sup>117)</sup>

3의사 이외에 고려 목종 때는 전의감에 병설되어 있던 內藥局<sup>118)</sup>이 설치되어 왕실의 의료를 담당하였으나 고려 말에 奉醫署로 개칭되었다가 전의사에 통합되었고,<sup>119)</sup> 세종 25년(1443)에는 內醫院으로 독립되었다. 그리하여 재생원이 폐지된 뒤에는 전의감·혜민국·내의원을 3의사라고 부르고 의학교육은 전의감과 혜민국이, 의과시취는 전의감이, 의녀교육은 혜민국이, 왕실의료는 내의원이 담당하였다. 지방 의학기관으로는 서경에 醫學院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예종 11년(1116)에는 分司大醫監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각 군현에는 의학박사를 두어 지방의학교육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각 군현에 의학이 두어져 審藥 1~3인씩을 두었다. 그러나 지방 의학은 유명무실하여 의관 양성은 주로 중앙에서 전담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sup>120)</sup>

율학교육과 율과시취는 형조의 考律司에서 담당하였는데 《秋官志》에는 율학청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역시 형조의 고율사 소속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태조 때부터 형조 밑에 율학을 두었으며, 세조 때에는 율학청을 따로 지어 고율사의 낭청이 주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종 16년에 율학을 司律院이라 바꾸었다가, 세조 12년(1466)에 다시 율학으로 환원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왕조 내내 율학이 계속하여 존재해 왔다.<sup>121)</sup>

117) 李洪烈, 위의 글, 330~332쪽.

118) 그 전신은 목종 때 설치된 尙藥局.

119) 李洪烈, 앞의 글(1967), 332쪽.

120) 李洪烈, 위의 글, 332~333쪽.

지방 율학기관으로서는 고려 명종8년(1178)에 서경의 속관으로 法曹司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율학이 두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와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지방에도 율학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조선시대에는 각 군현마다 율학이 있었으며 檢律 1인씩이 있어 형률을 적용하고 율학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지방율학도 지방의학과 마찬가지로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sup>122)</sup>

음양학과 음양과는 觀象監에서 주관하였다. 관상감의 전신으로 신라 때에는 漏刻典과 천문박사가 있었으며 고려 초에는 太卜監과 太史局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고려 말에 이르러 書雲觀으로 통합되어 풍수·음양학을 부설하였다. 서운관은 조선 태조 원년에 다시 설치되었으나 세조 12년(1467)에 관상감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연산군 때에 일시 司曆署로 격하되었으나 중종 초에 환원되어 고종 때까지 계속되었다. 태조 때에 6학의 하나로서 음양·풍수학이 설치되었으나, 세종 때에 음양학·천문학·풍수학으로 3분되었으며, 세조 때에는 풍수학을 지리학, 음양학을 命課學으로 개칭하였다.<sup>123)</sup>

지방의 음양학을 담당하는 관청으로는 고려 초에 서경의 刻漏院이 있었다가 예종 11년(1116)에 分司大史局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에도 토관직으로 평양의 掌漏署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군현에는 그러한 기관이 없었다.<sup>124)</sup>

위의 역학·의학·율학·음양학의 4학은 정식으로 잡과가 실시되었던 분야였다. 이 중 역학·의학·율학의 3학은 중앙과 지방에 다 설치되어 있었으나 음양학은 지방에는 없었고 중앙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방 잡학은 유명무실하였다. 같은 잡학지만 算學·樂學·書學·道學은 잡과가 실시되지 않고 취재시험만 있었으며 주관부서도 중앙에만 있었고 지방에는 없었다.

산학은 호조에서 담당하였는데 산학교수·산학훈도를 두어 주관하게 하였다. 호조는 신라의 倉部, 고려의 民官에 해당하는 6부 중의 하나였다. 고려 때의 산학은 書學과 함께 잡업시험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잡과

121) 李洪烈, 위의 글, 336~338쪽.

122) 李洪烈, 위의 글, 338~339쪽.

123) 李洪烈, 위의 글, 339~342쪽.

124) 李洪烈, 위의 글, 342쪽.

에서 제외되었다.

악학은 掌樂院에서 담당하였는데 左坊에는 雅樂의 樂生(양인이 소속), 右坊에는 俗樂의 樂工(천인이 소속)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樂師가 있었다. 장악원의 연원은 신라의 聲音署, 고려 초기의 典樂署로 소급되며, 고려 말에는 典樂署·雅樂署·慣習都監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조선 태조 2년(1393)에는 전악서에 武工局을 두어 武樂을 가르쳤으며, 태종 때에는 10학의 하나로 악학이 설치되었다. 세조 3년에는 악학과 관급도감을 악학도감으로, 아악서와 전악서를 장악서로 합병하였으며 일시 악과를 실시하였으나 예종 초에 중단되었다. 성종 원년(1470)에는 장악서를 장악원으로 개칭하였으며, 연산군 11년(1505)에는 이를 聯芳院으로 격하시켰다가 중종반정 후에 다시 장악원으로 바꾸었다.<sup>125)</sup>

書學은 圖書署에서 주관하였다. 도화서에는 교수 1인이 있어서 생도를 가르쳤다. 도화서의 연원은 신라의 彩典<sup>126)</sup>으로 소급되며 고려시대에도 개경과 서경에 圖書院이 있었다. 조선 초기에도 도화원이 계속 있어 오다가 세조 12년(1467) 관제개혁 때에 도화서로 명칭을 바꾼 듯하다. 화학은 조선 초기의 10학에 끼어 있지 않았으나 《경국대전》에는 10학 중에 포함되어 있다.<sup>127)</sup>

道學은 유교의 도학이 아니라 도교와 관련된 잡학을 의미하는데 昭格署에서 이를 담당하였다. 고려시대에는 大清觀이 도학을 담당하였으나 조선 태조 원년 11월에 昭格殿으로 바꾸었다. 대청관은 그 후에도 계속 있어 오다가 세종 때에 혁파된 것으로 보이며, 소격전은 세조 12년 정월에 소격서로 개칭되었다. 소격서는 연산군 때에는 일시 혁파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다시 설치되었으며, 조광조 등 사람들의 주장으로 중종 13년(1518)에 없앴다가, 乙卯土禍로 조광조 등이 실각하자 중종 17년 12월에 다시 설치되었으나, 임진왜란 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러한 잡학 관서는 고종 31년(1894)의 갑오개혁으로 없어지거나 크게 개

125) 李洪烈, 위의 글, 344~345쪽.

126) 뒤에 典彩署로 바뀌었음.

127) 李洪烈, 앞의 글(1967), 345~348쪽.

편되었다. 전의감·사역원·관상감·도화서는 없어지고 내의원은 典醫司(뒤에 태의원)로 개칭되었으며 장악원은 궁내부 산하에 편입되고, 외국어 번역은 外務衙門(뒤에 외무)의 번역국에서 담당하였다. 지리학과 의학은 內務衙門(뒤에 내부)에 지리국과 위생국을 두어 관장하게 하였으며, 學務衙門(뒤에 학부) 내에 관상소·외국어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산학은 度支衙門(뒤에 탁지부) 내에 회계국, 율학은 法務衙門(뒤에 법무)에 법관양성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주관하게 하였다.<sup>128)</sup>

잡과는 식년시와 증광시·대증광시에서만 시취되었고 다른 별시는 없었다. 《경국대전》에 나타나 있는 잡과 초시·복시의 시취 정원은 다음 <표 6>과 같다. 식년시와 증광시의 시취 정원은 조선시대 내내 같았으나 대증광시만은 《속대전》에 역과 27인, 의과 11인, 음양과(雲科) 21인, 율과 11인으로 되어 있다.

&lt;표 6&gt;

잡과 초시·복시 정액표

구 분				초 시	복 시
역과	漢		學	45	13
	蒙		學	4	2
	倭		學	4	2
	女	眞	學	4	2
의 과				18	9
음양과	天	文	學	10	5
	地	理	學	4	2
	命	課	學	4	2
율 과				18	9
계				121	46

\* 《經國大典》 권 3, 禮典, 諸科.

잡과에는 전시가 없고 초시와 복시만 있었는데 초시는 해당 관청에서, 복시도 역시 해당 관청에서, 그 관청의 提調와 예조 당상이 실시하였다. 향시가 있는 것은 한어과뿐으로 역과 초시인 향시는 역학원이 있는 평안·황해

128) 李洪烈, 위의 글, 960쪽.

도에서 관찰사가 실시하였다.<sup>129)</sup> 시험과목은 전문서·경서·《경국대전》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성적은 통 2분, 약 1분, 조 반분으로 계산하여 분수가 많은 자를 선발하였다.<sup>130)</sup> 그리하여 합격자에게는 처음에 홍패를 주다가<sup>131)</sup> 뒤에는 백패를 주었다. 그러나 문과의 홍패와 생원·진사시의 백패에는 과거보를 찍어 주었는데 비하여 잡과 백패에는 禮曹印만 찍어 주었다.

잡과에 응시하는 사람은 대체로 기술관이나 잡학생도들이었다. 양반 자제들이 잡과에 응시하는 것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기술관에 취재되기 위해서는 우선 잡학 생도가 되어야만 하였다. 잡학 생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현직 고위 기술관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였다. 잡학 교육은 중앙에서는 해당 관청에서, 지방에서는 해당 지방의 군현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잡학 생도의 총원 6,736인은 성균관·4학 및 향교의 유학생도 총원 15,550인에 비하면 절반이 안되는 43.32%에 지나지 않는다.<sup>132)</sup>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조선시대의 교육정책이 유학 중심이었고 잡학 교육은 부차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잡학 교육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잡학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잡학교육은 끊임없이 장려되었다. 다만, 유교교양을 바탕으로 하는 양반 지배체제 하에서 양반 유학자들이 잡학을 관념적으로 천시하여 중인들이 종사하는 전공 분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부류들이 잡학 생도가 되었는가. 조선 초기만해도 양가 자제뿐 아니라 양반 자제들도 잡학에 입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sup>133)</sup> 그러나 고려 말 사대부세력의 성장과 더불어 기술직에 대한 차별의식이 심해지고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는 잡학과 기술직에 대한 관념적·법제적 차별로 나타나게 되었다.<sup>134)</sup>

129) 위와 같음.

130) 위와 같음.

131) 《太祖實錄》권 6, 태조 3년 11월 을묘.

132) 성균관 유생 200인, 4학 유생 400인, 향교 생도 14,900인, 합계 15,500인이었다.

133) 《世宗實錄》권 45, 세종 11년 9월 기유.

《太祖實錄》권 3, 태조 2년 정월 을해.

134) 李成茂, 〈朝鮮初期의 技術官과 그 地位〉(《惠庵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1971),

따라서 양반 자제들은 잡학 생도가 되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 결과 잡학 생도를 충원하는 방법은 달리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이 마련되었다. 하나는 상급 지배신분층인 양반에서 떨어져 나온 부류들을 잡학 생도 또는 기술관에 편입시키는 방법이었다. 즉, 문·무 2품 이상의 첩자손들을 잡학 생도 또는 기술관에 입속시켰다. 다른 하나는 향리나 일반 양인에서 잡학 생도를 충원하는 방법이었다. 양반 자제들이 잡학 생도가 되는 것을 꺼리자 校生, 鄕吏 3정 1자, 地方醫·律 생도의 선상을 피하게 되었다.

교생은 본래 양반 자제도 입속하게 되어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안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額內生은 오히려 비양반 자제들로 채워져 있었다.<sup>135)</sup> 이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잡학 생도가 되었다. 잡학 생도·기술직 취재·잡과 등을 통하여 이들은 免役의 특전을 받을 뿐 아니라 신분을 양인에서 중인, 중인에서 양반으로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생·향리라 해서 누구나 세공되는 것은 아니었다. 잡학 생도가 되려면 교생 중에 노비를 소유한 자이거나, 똑똑한 자라야만 하였으며 향리 자제도 3정 1자에 한하였다. 이는 잡학 생도로 세공되는 자들이 교생 중에 부유한 자나 향리의 3정 1자에 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경제적 능력이나 실력면에서 하급 신분층인 중인이 되기에 충분한 자들이었다.<sup>136)</sup>

이와 같이 잡학 생도가 되는 것은 상급 지배신분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나 하급 신분에서 올라온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나 조선 초기에는 전자가 많았고 조선 후기에는 후자가 많았다. 물론 이 두 가지 길 이외에 投化人이 역하 생도로 편입된 예도 있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sup>137)</sup>

그러나 잡학 생도가 되려면 고위 기술직을 지낸 세 사람의 천거를 받아야만 하였다. 적어도 조선 후기에는 그러하였다. 이것은 기술직이 세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천거한 사람은 천거된 사람의 보증인으로서 일이 잘못

202쪽.

135) 李成茂, 〈朝鮮初期의 鄕校〉(《漢波李相玉博士回甲紀念論文集》, 1970).

136) 李成茂, 앞의 글(1971), 204~205쪽.

137) 《世宗實錄》권 30, 세종 7년 10월 신사.



되면 연대책임을 저야만 하게 되어 있었다.<sup>138)</sup>

잡학 생도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다음 기술관 취재시험이나 잡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기술관 취재는 四孟朔取才<sup>139)</sup> 원칙이었다. 4맹삭 취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태종 16년(1416) 3월 초이고, 그 이전에는 4중삭 취제·4계삭 취제가<sup>140)</sup> 시행되었다. 시험관은 해당 관청의 제조와 예조 당상관이 되었으며 시험과목은 전공서·경서·《경국대전》 등이었다. 취재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잡학 생도, 잡과를 합격한 다음 해당 관청에 임시로 배속되어 있는 權知, 전·현직기술관 등이었다. 취재 성적은 잡과와 마찬가지로 분수로 계산하는 데 10분 이상을 1등, 6분 이상을 2등, 3분 이상을 3등으로 하여 1·2등은 서용하고 3등은 서용하지 않았다. 都目政事(인사행정)에는 취재성적이 우선이었으나 전공에 따라 근무일수·업무실적·수업일수가 고려되기도 하였다.<sup>141)</sup>

기술관 취재에 합격한 사람은 체아직을 받았다. 그러면 조선 초기에 있어 녹관 체아직과 수직 대상자와의 비례는 어느 정도였는가. 사역원의 예를 들어 보자. 사역원 녹관은 모두 29자리였는데 그 가운데 체아직이 아닌 교수와 훈도 10자리를 뺀다면 체아직은 15자리였다. 그런데 이 15자리의 체아직을 받을 수직 대상자들은 역학 생도 80인, 別齋學官 13인, 전직 역관 약간 명, 역과 출신의 권지 19인을 합치면 백 수십 인이 넘었다. 이 숫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났을 것이다. 이들은 불과 15자리의 체아직을 놓고 경쟁해야만 하였다. 물론 지방의 훈도로 가는 길이 있었다지만 그 수는 10인 이하였고 지방의 역학 생도 156인<sup>142)</sup>까지를 합친다면 수직 대상자수는 더욱 늘어난다.

한학이 11.9 : 1, 몽학이 9 : 1, 왜학이 27 : 1, 여진학이 3 : 1이다. 이는 조선 초기의 현상이고 시대가 내려갈수록 경쟁율은 더욱 높아갔다. 이렇게 어려운 경쟁을 뚫고 기술관이 된 사람들도 체아직의 경우는 5개월마다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다시 취재시첩을 보아 재임여부가 결정되었다.

138) 金玄穆, 《朝鮮後期 譯學生徒 薦學에 관한 研究》(仁荷大 博士學修論文, 1994).

139) 1·4·7·10월의 1일.

140) 3·6·9·12월의 1일.

141) 李成茂, 앞의 글(1971), 216~217쪽.

142) 한학 90인, 여진학 40인, 왜학 26인.

잡학 생도 이외에 잡학을 공부하는 양반 출신의 習讀官이 있었다. 습독관에는 문신·생원·진사 등 양반들이 입속하였는데 관직이 있는 자를 講肄官, 관직이 없는 자를 학생이라 하였다.<sup>143)</sup> 양반 자제들이 잡학에 종사하는 것을 꺼려 잡학이 침체되자 양반들로 하여금 직접 기술학을 습득케 한 것이다. 예컨대 한학의 경우 중국사신이 왔을 때 화제가 經史에 미치면 역관들이 통역을 감당치 못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수가 많았다. 역관들이 한어만 알고 경사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 일에 밝고 정사에 밝은 문신들이 한어까지 능통하면 이상적이었다. 습독관 제도는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습독관은 음사제·4관<sup>144)</sup>·참외관·성균관 유생·4학 유생 등 문신이나 장차 문신이 될 양반 자제들이 입속하게 되어 있었다.<sup>145)</sup>

습독관은 잡학 절반에 걸쳐 두어진 듯하나 《경국대전》에는 한학 30인, 이문 20인, 천문학 10인만 나타나 있다.<sup>146)</sup> 이들 습독관은 관직이 없는 경우에는 상근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직이 있는 경우는 매월 10~15일씩 해당 관청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역학의 경우는 매월 1일과 16일을 제외하고는 관직이 있는 자라도 한어를 강습하도록 하였다.<sup>147)</sup> 이들 습독관에게는 교육을 받은 다음에 많은 특전이 부여되었다. 丘史(수행 노비)를 너럭히 주고, 군직 체아직을 주며, 성적이 우수한 자는 좋은 관직에 임명하고, 생원·진사에게는 교육일수를 성균관 원점으로 간주해 주었다.

습독관수와 군직 체아직의 비율은 대체로 약 3:1이다. 이것은 기술관과 체아직의 비율 10:1과 비교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다. 습독관은 문신이었으므로 잡직인 기술관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잡학에 정통한 습독관은 肄習官이라 하여 해당 기술직에 종사하기도 하였고 임기를 마치면 동반 현직이나 수령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양반 습독관에게 잡학을 훈련시킨 것은 양반관료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

143) 《世宗實錄》권 63, 세종 16년 정월 갑진.

144) 藝文館·成均館·承文院·校書館.

145) 李成茂, 앞의 글(1971), 205~206쪽.

146) 《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147) 李成茂, 앞의 글(1971), 206쪽.

하게 하기 위해서였다.<sup>148)</sup>

잡과에는 잡학 생도와 7품 이하의 전·현직 기술관들이 응시하였다. 습독관은 양반이었으므로 잡과에 응시하지 않았다. 잡과는 꼭 필요한 인원만 뽑았기 때문에 정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잡과가 처음 실시된 것은 태종 2년(1402)이다. 그러나 태종 2년부터 연산군 4년(1498) 이전까지는 몇몇 單回榜目을 제외하고는 잡과 방목이 남아 있지 않다.

의과를 제외하고는 16세~20세 사이의 입격율이 가장 높았으며, 의과는 21세~25세 사이의 입격자가 가장 많았다. 잡과는 경험이 필요한 의과를 제외하고는 조기교육을 시켰던 것 같다. 특히 역과의 경우는 외국어이므로 조기교육이 필요하였던 것 같다. 산학은 입격자의 거의가 20세 미만이었다.<sup>149)</sup>

잡과 입격자를 낸 439개 姓貫 중 200인 이상을 낸 가문이 4개, 150~199인을 낸 가문이 8개, 100~149인을 낸 가문이 4개, 90~99인을 낸 가문이 4개이었다.<sup>150)</sup> 즉 100인 이상의 입격자를 낸 유명한 성관은 16개로 전체 입격자의 40%인 3,089인이었다. 이것으로 기술관의 세전성이 증명된다.

〈李成茂〉

148) 李成茂, 위의 글, 221~222쪽.

149) 崔珍玉, 〈朝鮮時代 雜果設行과 入格者 分析〉(《朝鮮時代 雜果合格者 總覽》,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21쪽.

150) 잡과 입격자를 가장 많이 낸 잡과 명문은 다음과 같다.

- |                |                |                |
|----------------|----------------|----------------|
| 1) 全州李氏(452명)  | 2) 慶州崔氏(372명)  | 3) 南陽洪氏(268명)  |
| 4) 川寧玄氏(207명)  | 5) 慶州金氏(196명)  | 6) 淸州韓氏(183명)  |
| 7) 密陽卞氏(175명)  | 8) 泰安李氏(174명)  | 9) 密陽朴氏(166명)  |
| 10) 井邑李氏(164명) | 11) 金海金氏(154명) | 12) 慶州李氏(153명) |
| 13) 牛峯李氏(113명) | 14) 朱溪崔氏(104명) | 15) 新平韓氏(103명) |
| 16) 順興安氏(102명) |                |                |

# 찾아보기

## [ㄱ]

- 가각고승동정 架閣庫丞同正 358  
 가계심사 家系審査 325  
 《가례》 《家禮》 301, 302  
 가리 假吏 154, 155  
 가숙 家塾 279  
 가자 加資 306, 336, 353  
 가자기간 加資期間 306  
 가자법 加資法 323  
 가흥창 可興倉 276  
 각군 교생의 정액 各軍 校生の 定額 303  
 각도교생고강사목 各道校生考講事目 356  
 각루원 刻漏院 361  
 각사 남행 各司 南行 319  
 각촉시 刻燭試 330  
 각품양첩자 各品良妾子 352  
 간쟁 諫諍 24, 29  
 감고 監考 30, 131~133, 135, 145, 170~174, 176, 180  
 감교관 監校官 349  
 감군 監軍 227  
 감굴 柑橘 332  
 감무 監務 135, 136  
 감무 신설 監務新設 136  
 감무의 설치 監務의 設置 135  
 감문위 監門衛 199, 202  
 감사의 임기 監司의 任期 133  
 감사의 제수 監司의 除授 171  
 감시 監試→국자감시 國子監試  
 감영 監營 133, 134, 170, 176~178, 309, 317, 339  
 감영 소재지 監營所在地 133  
 갑과 甲料 324, 328, 350  
 갑사 甲士 6, 7, 32, 34, 49, 112, 181, 203, 205, 210, 213, 215, 217, 243, 244, 348, 353  
 갑오개혁 甲午改革 326, 362  
 강경 講經 292, 302, 333, 340  
 강경시험 講經試驗 285, 286, 292, 303, 333  
 강남농법 江南農法 313  
 강상죄 綱常罪 149  
 강원도 江原道 129, 131, 162, 170  
 강이관 講肄官 299, 367  
 강창 江倉 276  
 강축국 扛軸局 84  
 개문 開門 230  
 개성부 開城府 57, 75~77, 129, 160, 161, 169, 178, 304  
 개성유후사 開城留後司 58, 274  
 개인사숙 個人私塾 316  
 개혁파 사대부 改革派 士大夫 339  
 객사 客舍 180  
 객사정 客舍正 156  
 거경시위 居京侍衛 22  
 거관 去官 289  
 거병 舉兵 250  
 거제 巨濟 359  
 거진 巨鎭 8, 33, 211, 235, 236  
 건춘문 建春門 294  
 걸가 乞暇 172  
 검교 學校 99  
 검률 檢律 175, 176, 300, 361  
 검상 檢詳 66  
 검상조례사 檢詳條例司 61  
 견아상입지 犬牙相入地 5, 127, 166

- 견예부 堅銳府 220  
 전자제입학 遣子弟入學 299  
 겸관직 兼官職 23  
 겸교관 兼敎官 280, 287  
 겸교수관 兼敎授官 293  
 겸대사성 兼大司成 280  
 겸박사 兼博士 288  
 겸박사제도 兼博士制度 296  
 겸병사 兼兵使 237  
 겸병조판서 兼兵曹判書 258  
 겸봉사 兼奉事 288  
 겸사복 兼司僕 60, 79, 104, 107, 112, 220, 221, 226, 231, 232  
 겸사복장 兼司僕將 226  
 겸수사 兼水使 237  
 겸직 兼職 69, 100, 103, 109, 114  
 겸직장 兼直長 288  
 겸직제 兼職制 58  
 겸판사 兼判事 58  
 겸학록 兼學錄 288  
 겸학유 兼學諭 288  
 겸학정 兼學正 288  
 겸훈도관 兼訓導官 293  
 경공장 京工匠 43  
 경관 京官 289  
 경관 문반직 京官 文班職 100, 101  
 경관제 京官制 169  
 경관직 京官職 23  
 《경국대전》 《經國大典》 3, 7, 20, 23, 27, 28, 50, 58~60, 65, 67, 71, 72, 100, 284, 285, 287, 292, 293, 296, 297, 299, 303, 307, 309, 311, 322, 323, 327, 337, 341, 355, 362~364, 366, 367  
 경군역 京軍役 211  
 경기권의 재조정 京畿圈의 再調整 129  
 경기도 京畿道 129, 130, 161, 169  
 경기도역의 개편 京畿道域의 改編 130, 131  
 경기우도 京畿右道 130  
 경기좌도 京畿左道 130  
 경력 經歷 175  
 경력사 經歷司 61  
 경무대시 景武臺試 328, 335  
 경복궁 景福宮 294  
 경비사 經費司 68  
 경사자집 經史子集 302  
 경상도 慶尙道 161, 170  
 경서 經書 364, 366  
 경수소 警守所 228, 230  
 경시위패 京侍衛牌 215  
 경안 京案 311  
 경연 經筵 79, 103  
 경연관 經筵官 64  
 경연제도 經筵制度 24  
 경외관 순환근무제 京外官 循環勤務制 132  
 경외용관 도태 京外冗官 淘汰 132  
 경원부 慶源府 161  
 경장 京將 245  
 경재소 京在所 4, 5, 31, 32, 125~127, 153~156, 178, 183~185  
 경재소의 조직과 임원 및 직무 京在所의 組織과 任員 및 職務 183  
 경저리 京邸吏 126, 153, 155, 156  
 경저리제도 京邸吏制度 32  
 경저소 京邸所 178  
 《경제육전》 《經濟六典》 348  
 경주부 慶州府 169  
 경주인제도 京主人制度 32  
 경중도시 京中都試 352  
 경차관 敬差官 173  
 경창 京倉 272  
 경침 更籤 228, 299  
 경학 經學 317  
 경학박사 經學博士 300  
 경희고소총통 慶熙古小銃筒 267  
 계 契 196  
 계고직비 階高職卑 21  
 계명개정 階名改定 116

- 《계몽산학》 《啓蒙算學》 50  
 계비직고 階卑職高 21  
 계성사 啓聖祠 283  
 계수관 界首官 128~130, 134, 160, 162, 300, 304  
 계수관제의 치폐 界首官制의 置廢 129  
 계약 契約 191  
 계원장 繼援將 246  
 계제사 稽制司 68  
 고공 雇工 49, 52, 357  
 고공사 考功司 67  
 고과법 考課法 9, 27, 322  
 고군산 古群山 293  
 고립 雇立 311  
 고유제 告由祭 283  
 고율사 考律司 70, 360  
 고훈사 考勳司 67  
 공거제 貢舉制 317, 339  
 공관 公館 139  
 공납 貢納 42  
 공노비 公奴婢 43, 53, 54  
 공리 貢吏 155, 283  
 공명첩 空名帖 305  
 공명패 空名牌 351  
 공민권 公民權 51  
 공법 貢法 42, 271  
 공사친구 公私賤口 207  
 공세곶창 貢稅串倉 276  
 공수위전 公須位田 139, 156  
 공신 功臣 319  
 공신노비 功臣奴婢 290  
 공신적장 功臣嫡長 60, 104, 107, 112, 113  
 공신전 功臣田 38  
 공야사 功治司 70  
 공자 孔子 280, 283, 301  
 공장 工匠 43  
 공장세 工匠稅 43  
 공자알 工匠案 43  
 공조 工曹 28, 59, 67, 70  
 공조서 供造署 97  
 공조 속아문 工曹屬衙門 97  
 공천 公薦 287  
 과거 科擧 9, 20, 36, 48, 322, 325  
 과거법 科擧法 317, 339  
 과거보 科擧寶 328  
 과거3층법 科擧三層法 339  
 과거제 科擧制 35, 308, 317  
 과거제도 科擧制度 8, 9, 318, 321, 326, 347  
 과문 科文 336  
 과전 科田 7, 37~39  
 「과전경기」의 원칙 「科田京畿」의 原則 130  
 과전법 科田法 37, 39, 160, 210, 271  
 과전법의 시행 科田法의 施行 41  
 과전법체제 科田法體制 20, 38  
 과전억압책 科田抑壓策 131  
 과전주 科田主 41  
 과제 課製 332  
 과폐 科弊 338  
 관각당상 館閣堂上 332  
 관각제 館閣制 64  
 관계 官階 20, 120  
 관계의 획득 官階의 獲得 114  
 관계조직 官階組織 21  
 관교 官敎 120, 121  
 관남 關南 330  
 관내노비 官內奴婢 290  
 관내수령권차법 管內守令權差法 173  
 관노비 官奴婢 39, 178  
 관료양성소 官僚養成所 280  
 관무과 觀武科 342, 352  
 관무재 觀武才 350, 351  
 관무청 觀武廳 356  
 관보 官補 312  
 관북 關北 330  
 관상감 觀象監 35, 69, 90, 112, 361, 363

- 관수관급제 官收官給制 39  
 관습도감 慣習都監 362  
 관시 館試 286, 287, 327  
 관아시설 官衙施設 179  
 관역 官役 43  
 관영수공업 官營手工業 43  
 관원정액 官員定額 179  
 관장 官匠 43  
 관직 官職 120, 322  
 관찰사 觀察使 30, 174, 175, 237, 306, 364  
 관찰사 권한과 기능 觀察使 權限과 機能 172  
 관품체계 官品體系 3  
 관학 官學 8, 279, 280, 287, 308, 314, 318, 344  
 관학 부흥운동 官學 復興運動 318  
 관학생 官學生 301  
 광대 廣大 53  
 광흥창 廣興倉 68, 84  
 교관 敎官 289, 307  
 교구소 交龜所 172  
 교도 敎導 149, 291  
 교도관 敎導官 306  
 교보 校保 305, 312  
 교생 校生 52, 299, 303, 308, 309  
 교생낙강정군 校生落講定軍 304  
 교생낙강정군법 校生落講定軍法 303  
 교생면강 校生免講 355  
 교생신분 校生身分 308  
 교생안 校生案 308, 310  
 교서감 校書監 57, 58  
 교서관 校書館 29, 58, 69, 88, 103, 289, 305, 325  
 교수 敎授 293, 300, 307  
 교수관 敎授官 292, 301, 306  
 교임 校任 305, 307  
 교주강릉도 交州江陵道 129  
 교지 敎旨 4  
 교첩 敎帖 4  
 교하촌 校下村 311  
 교하학교 校下學校 316  
 교학 敎學 291  
 교화 敎化 15  
 구두 句讀 285  
 구사 丘史 299, 367  
 구일제 九日製 331  
 구임관제 久任官制 59  
 구임직 久任職 289  
 9제노비 九齋奴婢 293  
 9주 九州 160  
 구중 俱中 341  
 9품계의 설치 九品階의 設置 116  
 구현시 求賢試 328, 335  
 국가수조지 國家收租地 40  
 국고직 國庫直 156  
 국둔전 國屯田 39  
 국반 國班 182  
 국가감시 國子監試 317, 339, 348  
 국자학 國子學 279, 317~319  
 《국조방목》 《國朝榜目》 337  
 《국조오례의서례》 《國朝五禮儀庶例》 226, 267, 269  
 국학 國學 279, 344  
 군관 軍官 309, 351  
 군기감 軍器監 43, 96, 257, 258, 262  
 군기감별군 軍器監別軍 263  
 군기별감 軍器別監 263  
 군기시 軍器寺 69, 96, 97, 112, 260, 262  
 군량 軍糧 355  
 군령 軍令 251  
 군령권 軍令權 248, 253  
 군보 軍保 357  
 군수 郡守 236  
 군액 軍額 303  
 군역 軍役 43, 48, 49, 210, 303, 309  
 군익 軍翼 208  
 군익도 軍翼道 130, 209, 234  
 군익도의 체제 軍翼道의 體制 7, 33,

- 233  
 군익체제 軍翼體制 205, 234, 235  
 군자감 軍資監 68, 83  
 군자감창 軍資監倉 276  
 군자불기 君子不器 298  
 군자시 軍資寺 257, 271  
 군자위전 軍資位田 271  
 군자전 軍資田 310  
 군자전세 軍資田稅 271, 275  
 군적 軍籍 260  
 군전 軍田 38, 210  
 군정 軍政 251  
 군직 軍職 289, 293, 296  
 군직체아 軍職遞兒 293, 299  
 군포 軍布 355  
 군현 郡縣 158, 164, 178, 312  
 군현 개편 郡縣改編 145  
 군현 구획 郡縣區劃 138  
 군현 등급의 승강 郡縣等級의 昇降 148  
 군현 명칭 郡縣名稱 148  
 군현 명칭의 개정 郡縣名稱의 改定 146, 147  
 군현 병합 郡縣併合 127, 150~153, 167  
 군현 병합의 실패 요인 郡縣併合의 失敗要因 127  
 군현수 郡縣數 307  
 군현의 행정체계 郡縣의 行政體系 177  
 군현제 郡縣制 125, 144, 150, 300, 314  
 군현제 개혁 郡縣制 改革 139, 166  
 군현제 정비 郡縣制 整備 126, 135, 300  
 군현직제 郡縣職制 177  
 군현향리 郡縣鄉吏 182  
 군호의 기본단위 軍戶의 基本單位 34  
 군후소 軍候所 347  
 궁사전 宮司田 38  
 권근 權近 13, 288, 302, 313, 340  
 권농관 勸農官 143  
 권농정책 勸農政策 40, 41  
 권무직 權務職 116  
 권문세가 權門勢家 37  
 권부 權溥 280  
 권지 權知 306, 366  
 권학사목 勸學事目 302, 313  
 권한공 權漢功 280  
 귀족정치 貴族政治 20  
 귀후서 歸厚署 69, 94  
 귀후소 歸厚所 94  
 근궁 芹宮 279  
 《근사록》 《近思錄》 285, 292, 301  
 근수 根隨 230  
 근시4위 近侍四衛 201  
 근장 近仗 215  
 근정전 勤政殿 336  
 금군 禁軍 6, 210, 220, 225, 233, 351  
 금루망 禁漏房 90  
 《금양잡록》 《衿陽雜錄》 40  
 금오위 金吾衛 199, 202  
 금화도감 禁火都監 98  
 금도 給到 353  
 금분 給分 286, 330, 334  
 금분직부회시 給分直赴會試 338  
 금사 給仕 353  
 급제 及第 318, 343  
 기 氣 14, 15  
 기녀 妓女 53  
 기명 器皿 312  
 기묘사화 己卯士禍 362  
 기발리승일도설 氣發理乘一途說 18  
 기선군 騎般軍 207, 210, 248, 352  
 기술관 技術官 26, 35, 47, 48, 50, 297, 298, 300, 303, 323, 364, 366, 368  
 기술관 교육 技術官 教育 35  
 기술관 시험 技術官 試驗→잡과 雜科  
 기술관직 接術官職 22, 35  
 기술관 취재시험 技術官 取才試驗



366  
 기술직 技術職 35, 50, 298, 309  
 기술학 技術學 35, 298  
 기우제 祈雨祭 304  
 기재생 寄齋生 284, 286  
 기정병 騎正兵 213  
 기질의 성 氣質之性 15  
 《기축대전》 《己丑大典》 337  
 길재 吉再 313  
 김굉필 金宏弼 17, 283  
 김구 金絿 341  
 김문정 金文鼎 280  
 김식 金湜 336  
 김안국 金安國 337  
 김우옹 金宇顥 337  
 김인후 金麟厚 283  
 김일손 金駟孫 336  
 김장생 金長生 283, 288  
 김종직 金宗直 31  
 김집 金集 283  
 김해 金海 147

## [ㄴ]

낙강 정군 落講定軍 303  
 남곤 南袞 336  
 남반 南班 26, 322  
 남반잡로 南班雜路 9, 322  
 남부학당 南部學堂 291, 292  
 남왜 南倭 354  
 남행 南行 319  
 납공노비 納貢奴婢 54  
 납미 納米 355  
 납속보관 納粟補官 305, 355  
 낭 郎 21  
 낭계 郎階 4  
 낭관 郎官 57  
 낭사 郎舍 58  
 낭장 郎將 222  
 내금위 內禁衛 49, 60, 80, 104, 106,

107, 112, 204, 210, 220, 227, 231, 232, 348  
 내금위장 內禁衛將 220, 226  
 내금위절제사 內禁衛節制使 220  
 내무아문 內務衛門 363  
 내병조 內兵曹 258, 259  
 내부시 內府寺 82  
 내사 內舍 290, 319  
 내삼청 內三廳 221  
 내상직 內上直 80  
 내섬시 內贍寺 58, 68, 83  
 내수별좌 內需別坐 81  
 내수사 內需司 67, 81  
 내수사전 內需司田 38  
 내수소 內需所 81  
 내시 內侍 200  
 내시부 內侍府 57, 67, 81, 82, 107  
 내시위 內侍衛 49, 80, 204, 220, 348  
 내약방 內藥房 91, 360  
 내의원 內醫院 69, 91, 360  
 내이포 乃而浦 360  
 내자시 內資寺 68, 82  
 내장 內將 221  
 내장전 內莊田 38  
 노비 奴婢 53, 54  
 노비방랑 奴婢放良 355  
 노비변정도감 奴婢辨正都監 46  
 노비변정사업 奴婢辨正事業 47  
 노비신공 奴婢身貢 293  
 노비신분 奴婢身分 54  
 노비제도 奴婢制度 54  
 노비해방 奴婢解放 54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 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 311  
 노예 奴隸 53  
 노인직 老人職 100, 109, 110  
 노자 老子 302  
 녹관 祿官 58  
 녹명시취 錄名試取 349  
 녹봉 祿俸 306, 307

녹봉미 祿俸米 276  
 녹사 錄事 357  
 녹사동정 錄事同正 358  
 녹직 祿職 57, 99, 101, 104, 110  
 《논어》 《論語》 285, 341  
 《농사직설》 《農事直說》 40  
 농유사 農有司 309  
 농장형 農莊型 40  
 누각전 漏刻典 361  
 능전 陵殿 94  
 능침전 陵寢田 38  
 니원 尼院 281  
 니탕개란 尼蕩介亂 246, 354

[ㄷ]

다방 茶房 200  
 단병사 單兵使 236  
 단신도계 單身到界 5  
 단안 壇案 155, 191  
 단회방목 單回榜目 368  
 답험손실법 踏驗損實法 42  
 당상 堂上 21  
 당상관 堂上官 4, 48, 120, 284, 324, 325, 335  
 당상관직 堂上官職 48  
 당송8가문 唐宋八家文 292  
 당장 堂長 307  
 당장 堂掌→당장 堂長  
 당하 堂下 21  
 당하관 堂下官 4, 10, 59, 324, 325, 335  
 당하관직 堂下官職 120  
 대 隊 224  
 대가 代加 48  
 대간 臺諫 4, 23, 29, 63  
 대간직 臺諫職 284  
 대군현리민책 對郡縣吏民策 154  
 대독관 對讀官 334  
 대동법 大同法 42  
 대립 代立 7, 220, 244

대명률 大明律 50  
 대부 大夫 4, 21, 222  
 대사례 大射禮 282, 284  
 대사성 大司成 287  
 대성전 大成殿 282, 301  
 대성지성문선왕 大成至聖文宣王 283  
 대언(승지) 代言(承旨) 253  
 대장 臺長 72  
 대장군 大將軍 222, 262  
 《대전속록》 《大典續錄》 304, 337  
 《대전회통》 《大典會通》 311, 332  
 대정 隊正 116  
 대졸 隊卒 112, 213, 217, 219  
 대증광시 大增廣試 329, 342, 363  
 대청관 大清觀 362  
 대청원 大清院 93  
 대통 大通 285  
 《대학》 《大學》 17, 285, 341  
 대호군 大護軍 58, 222  
 덕성창 德城倉 276  
 덕천고 德泉庫 58, 83  
 도감서 都監署 84  
 도계 到界 135  
 도과 道科 328  
 도관찰출척사 都觀察黜陟使 128, 172  
 도기 到記 286  
 도기과 到記科 328, 333, 334  
 도동서원 道洞書院 315  
 도만호 都萬戶 207, 237  
 도목 都目 289  
 도목정사 都目政事 366  
 도반 道班 182  
 도백 道伯 30  
 도부외 都府外 204, 220  
 도사 都事 30, 175  
 도선 導善 289, 296  
 도순문사 都巡問使 128  
 도순변사 都巡邊使 246  
 도순찰사 都巡察使 205  
 도승지 都承旨 71

- 도시 都試 7, 352, 353  
 도시과 都試科 342  
 도시제사 都試制使 352  
 도안무처치사 都按撫處置使 207  
 도역의 개편 道域의 改編 130  
 도염서 都鹽署 84  
 도원수 都元帥 245  
 도임 到任 304  
 도절제사 都節制使 205, 206, 234  
 도절제사영 都節制使營 206, 211  
 도제 道制 25, 169, 177  
 도직제 道職制 134  
 도진무 都鎭撫 251  
 도진척위전 渡津尺位田 152  
 도천서원 道川書院 315  
 도총부 都總部 226, 231~233  
 도총제 都總制 58, 249  
 도총제부 都總制府 58  
 도총중외제군사부 都總中外諸軍事府 200  
 도평의사사 都評議使司 1, 2, 22, 27, 57, 58, 60, 61, 63, 65, 255, 347  
 도평의사사 구성원 都評議使司 構成員 62  
 도평의사사 직제 都評議使司 職制 66  
 도평의사사 체제 都評議使司 體制 59  
 도학 道學 296, 297, 314, 361, 362  
 도호제위장군 都護諸衛將軍 222  
 도화서 圖書署 69, 92, 362, 363  
 도화원 圖書院 362  
 독권관 讀券官 334  
 독진제 獨鎭制 235  
 돈녕부 敦寧府 58, 60, 77, 78  
 동감교관 同監校官 349  
 동계 洞契 316  
 동고 東庫 282  
 《동국정운》 《東國正韻》 292  
 《동국통감》 《東國通鑑》 285  
 동래 東萊 359  
 동몽 童蒙 292, 303  
 《동몽선습》 《童蒙先習》 316  
 동몽훈도 童蒙訓導 112  
 동무 東廡 282  
 동문 東門 282  
 《동문선》 《東文選》 292  
 동반 관계 東班官階 115, 116  
 동반 무록관 東班 無祿官 113  
 동반 잡직계 東班 雜職階 107, 114, 119  
 동반직 東班職 116, 120  
 동반 체아직 東班 遞兒職 111  
 동부학당 東部學堂 291  
 동산색 東山色 98  
 동서당 洞書堂 316  
 동·서무 東·西廡 301  
 동·서반 잡직 東·西班 雜職 99  
 동·서반 잡직계 東·西班 雜職階 114  
 동·서재 東·西齋 281, 301  
 동·서학당 東·西學堂 291, 293  
 동성서당 同姓書堂 316  
 동성촌락 同姓村落 194  
 동안 洞案 191  
 동약 洞約 191, 196, 311  
 동월 董越 298  
 동인계열 東人系列 18  
 동재 東齋 35, 282, 307  
 동정직 同正職 52, 99, 109  
 동지관사 同知館事 288  
 동지총제 同知總制 58, 249  
 동진사 同進士 327, 328  
 동첨절제사 同僉節制使 33, 236, 237  
 두레 195  
 두입지 斗入地 166  
 둔전 屯田 271, 275  
 등용문 登龍門 9  
 등준시 登俊試 328, 335, 350, 351

[ㄹ]

략 略 285, 333  
론 論 285, 333

[ㅁ]

마병 馬兵 212  
만경 萬頃 293  
만과 萬科 356  
만과설행 萬科設行 354  
《만기요람》 《萬機要覽》 38  
만포 滿浦 359  
만호 萬戶 207, 237  
말업 末業 52  
매관매작 賣官賣爵 355  
매매 賣買 311  
《매천야록》 《梅泉野錄》 341  
맹손 孟孫 283  
《맹자》 《孟子》 16, 283, 285, 341  
면 面 141, 165, 190  
면·리 面·里 316  
면리 명칭 面里 名稱 146  
면리임 面里任 188, 191  
면리제 面里制 4, 5, 125~127, 143~145, 165, 177  
면리제 개편 面里制 改編 140  
면리제도 面里制度 315  
면리제의 확립 面里制의 確立 164~165  
면리체계 面里體系 144, 145  
면리체제 面里體制 189  
면리행정 面里行政 145  
면역 免役 365  
면역법 免役法 157  
면천 免賤 311  
명 銘 331  
명경 明經 337  
명경과 明經科 337

명경과 별시조건 明經科別試條件 337  
명경과 시취절목 明經科試取節目 337  
명경업 明經業 340, 347  
명과학 命課學 351, 363  
명관 命官 351  
명륜당 明倫堂 35, 281, 282, 301  
명륜당시 明倫堂試 328, 335  
명률 明律 59, 323  
명환 名宦 345  
모내기방법→이양법 移秧法  
모암서원 慕巖書院 315  
목면의 재배 木綿의 栽培 43  
목민관 牧民官 21, 30  
몽어 蒙語 358  
몽학 蒙學 50, 363  
무격 巫覡 53  
무격목형총통 無激木形銃筒 268  
무공국 武工局 362  
무과 武科 317, 318, 322, 324, 326, 342, 348~350, 354, 356, 357  
무과교육 武科教育 348  
무과법 武科法 348  
무과축수제 武科祝壽齋 349  
무관 武官 347  
무관각현 無官各縣 139  
무관 경관직 武官 京官職 104~106  
무록관 無祿官 23, 68, 113, 114  
무록직 無祿職 100, 101, 104, 109, 110  
무명과 無名科 331  
무반 武班 121, 347  
무반 무록직 武班 無祿職 99  
무반직 武班職 104, 107  
무비사 武備司 69, 258, 259  
무산계 武散階 115, 116, 120, 121, 199  
무선사 武選司 69, 258, 259  
무성묘 武聖廟 350, 351  
무신 武臣 313  
무신정권 武臣政權 300  
무악 武樂 362

- 무역백성 無役百姓 207  
 무오사화 戊午士(史)禍 50  
 무위남행 武衛南行 319  
 무장 茂長 149  
 무전농민 無田農民 52  
 무전민 無田民 39  
 무주 茂朱 150  
 무직의 사류 無職의 士類 345, 346  
 무직자 無職者 32  
 무토전 無土田 310  
 무학 武學 296, 297, 347, 348, 356, 357  
 무학교육 武學教育 349  
 무학사목 武學事目 356  
 무학안 武學案 356  
 문과 文科 35, 317, 318, 321, 322, 324~326, 345~349, 357  
 문과 관시 文科館試 287  
 문과 급제자 文科及第者 320  
 문과 응시자격 文科 應試資格 318, 319, 325  
 문과 전시 文科殿試 286, 332, 333  
 문과 중시 文科重試 350  
 문과 초시 文科初試 385~287  
 문과 초시 시취 액수 文科初試 試取額數 327  
 문과출신자 文科出身者 307  
 문과 한성시 文科 漢城試 287  
 문자 회시 文科會試 286, 306, 332, 334  
 문관 급제자 文官及第者 306  
 문관 출신 文官出身 302  
 문교부흥운동 文教復興運動 300  
 문묘 文廟 35, 281, 287, 303, 304  
 문묘 묘정비 文廟廟庭碑 281  
 문묘비 文廟碑 281  
 문묘석전래 文廟釋奠禮 330  
 문묘제기 文廟祭器 280  
 문묘제향 文廟祭享 290  
 문묘종사 文廟從祀 283  
 문·무과 文·武科 9, 325, 326, 347  
 문·무과 급제자 초자·초직표 文·武科及第者 超資·超職表 323  
 문·무과 방방의 文·武科放榜儀 348  
 문·무과 산관법 文·武科 散官法 323  
 문·무반체아직 文·武班 遞兒職 99  
 문·무산계 文·武散階 114  
 문·무산계제 文·武散階制 317  
 문·무양과 文·武兩科 317  
 문무양반 체제 文武兩班體制  
 문·무·잡과 文·武·雜科 342  
 문반 文班 121  
 문반 겸직 文班 兼職 102  
 문반 경관직 文班 京官職 100  
 문반·무반·잡직 文班·武班·雜職 100  
 문반직 文班職 100  
 문벌 門閥 325  
 문벌귀족 門閥貴族 20, 26  
 문벌귀족정치 門閥貴族政治  
 문벌양반 門閥兩班 321  
 문사 文士 313  
 문산계 文散階 115, 117, 120, 121  
 문서응봉사 文書應奉司 88  
 문선 文選 292, 302  
 문선사 文選司 67  
 문선왕 文宣王 283  
 문소전 文昭殿 94  
 문신 文臣 300, 367  
 문신월과법 文臣月課法 336  
 문신 전강 文臣殿講 336  
 문신 정시 文臣庭試 335  
 문신 중월부시법 文臣仲月賦詩法 336  
 문음 門蔭 9, 26, 48, 322, 347, 357  
 문음 승보생 門蔭 升補生 284  
 문음자손 門蔭子孫 49  
 문음자제 門蔭子弟 48, 284  
 문익점 文益漸 41  
 문지 門地 51, 298  
 문치주의 文治主義 316, 347

문치주의사회 文治主義社會 8  
문하부 門下府 2, 57, 58, 60~62, 65, 72  
문하부 재상 門下府 幸相 61  
문환기관 文輸機關 103  
문형 文衡 87  
물사리방법→수경법 水耕法  
미곡 회환 米穀 回還 274  
미사액서원 未賜額書院 311  
민관 民官 361  
민본사상 民本思想 16  
민유방본 民惟邦本 16  
민유지 民有地 40  
민의 성장 民의 成長 1  
민족성 民族性 316

[ㅂ]

박사 博士 288  
박상충 朴尙衷 280  
박세채 朴世采 283  
박안신 朴安信 339  
박의중 朴宜中 280  
박정차제 駁正差除 62  
박제가 朴齋家 50  
박초 朴礎 280  
반교 泮橋 282  
반궁 泮宮 279  
반궁제회 泮宮齊會 287  
반독 伴讀 294  
반미 飯米 290  
반수 泮水 281  
반정공신 反正功臣 30  
발령 發令 250  
발령권 發命權 249  
발병 發兵 250  
발병권 發兵權 249  
발영시 拔英試 328, 335, 350, 351  
발화통 發火筒 270  
방군수포 放軍收布 244

방군수포제 放軍收布制 34  
방미 榜尾 334  
방백 方伯 30  
방벌 放伐 16  
방수의무 防戍義務 34  
방안 榜眼 328  
방어사 防禦使 245, 246  
방주감찰 房主監察 72  
방패 防牌 205, 215  
방학 放學 293  
배강 背講 286, 292, 331, 333  
배맹후 裴孟厚 341  
배불운동 排佛運動 19  
배송 背誦 329  
배율 排律 337  
백규서무 百揆庶務 62  
백록동서원 白鹿洞書院 315  
백운동서원 白雲洞書院 315  
백원서원 百源書院 315  
백정 白丁 53  
백패 白牌 342, 343, 358, 363  
번상 番上 243  
번상기병 番上騎兵 7  
번상보병 番上步兵 7  
번상시위 番上侍衛 33, 63  
번상정병 番上正兵 7  
번역국 翻譯局 363  
법관양성소 法官養成所 363  
법무아문 法務衙門 363  
법성창 法聖倉 275  
법조사 法曹司 361  
벽동 碧潼 359  
벽입각 關入閣 282  
변계량 卞季良 281, 288  
변정원 辨定院 59, 97  
별감 別監 31, 179, 291, 309  
별군 別軍 215  
별사전 別賜田 38  
별시 別試 9, 292, 319~321, 326, 328, 329, 334, 342, 349, 350

- 별시무과 別試武科 353  
 별시위 別侍衛 49, 112, 204, 205, 210,  
 213, 215, 217, 218, 231, 325, 348, 352,  
 353  
 별장 別將 222  
 별재학관 別齋學官 366  
 별진무 別鎭撫 251  
 별창 別倉 276  
 병과 丙科 327, 328, 350  
 〈병기도설〉 〈兵器圖說〉 266, 267,  
 269  
 병년 丙年 334, 350  
 병농일치의 군대 兵農一致의 軍隊 33  
 병려체 駢麗體 331  
 병마단련부사 兵馬團鍊副使 209  
 병마단련사 兵馬團鍊使 206  
 병마단련판관 兵馬團鍊判官 209  
 병마도 兵馬道 206  
 병마절도사 兵馬節度使 8, 236  
 병마절제사 兵馬節制使 207, 209  
 병부퇴거교생 兵符賫去校生 309  
 병사 兵使 33, 158  
 병역의 의무 兵役의 義務 34  
 병영 兵營 8, 178  
 병자호란 丙子胡亂 354  
 병작 竝作 39  
 병작료 竝作料 54  
 병작제 竝作制 52  
 병작형 竝作型 40  
 〈병장도설〉 〈兵將圖說〉 267  
 병정 兵正 156  
 병조 兵曹 28, 59, 67, 69, 70, 74, 95,  
 211, 232, 252, 255~258, 320  
 병조 속아문 兵曹屬衛門 94  
 병조축수제 兵曹祝壽齋 349  
 병학 兵學 348  
 보 寶 196  
 보단자 保單子 36  
 보법 保法 34, 211, 213, 311  
 보부상 保負商 44  
 보인 保人 244  
 보정병 步正兵 213  
 보충대 補充隊 219  
 복과 復科 337  
 복시 覆試 36, 327, 341, 349, 351,  
 363  
 본감 本監 263  
 본관 本貫 159, 168, 182  
 본업인 本業人 59, 68  
 본직 本職 100  
 본청 本廳 232  
 봉상시 奉常寺 57, 69, 90  
 봉상시관 奉常寺官 288  
 봉서국 奉書局 98  
 봉수제 烽燧制 34  
 봉의서 奉醫署 360  
 봉조청 奉朝請 110  
 봉조하 奉朝賀 109, 110  
 봉조하직 奉朝賀職 100  
 봉족 奉足 7, 34, 208, 212  
 봉족제 奉足制 211  
 봉족호 奉足戶 212  
 부 賦 138, 286, 329~331, 333, 340  
 부거안 赴舉案 308  
 부거자격 赴舉資格 52  
 부경숙위 赴京宿衛 210  
 부곡 部曲 138, 141~143  
 부곡민 部曲民 54  
 부마부 駙馬府 78  
 부민고소금지법 部民告訴禁止法 4,  
 125, 132  
 부방 赴防 355  
 부사정 副司正 222  
 부사직 副司直 222  
 부산포 富山浦 359  
 부승동정 副丞同正 358  
 부안 扶安 293  
 부장 部將 222, 227  
 부제학 副提學 58  
 부평 富平 147

부호장 副戶長 157  
 북도과 北道科 329  
 북부학당 北部學堂 291  
 북청 北靑 353, 359  
 북학 北學 281  
 북호 北胡 354  
 분경 奔競 355  
 분관 分館 325  
 분군법 分軍法 245  
 분금지 分給地 38  
 분대 分臺 173  
 분례빈시 分禮賓寺 93  
 분사대사국 分司大史局 361  
 분사대의감 分司大醫監 360  
 분수 分數 334  
 분헌관 分獻官 284  
 불 不 285  
 불교 佛教 280, 300, 301, 315  
 불교사찰 佛教寺刹 301  
 봉당 朋黨 339  
 비각 碑閣 282  
 비각도서 秘閣圖書 280  
 비변사 備邊司 30  
 비서기관 秘書機關 28  
 비순위 備巡衛 199, 202  
 비안현 比安縣 148  
 비입지 飛入地 166  
 비천당 丕闡堂 281  
 비천시 丕闡試 358, 335  
 빙 氷 290  
 빙고 冰庫 69, 93

【人】

《사략》 《史略》 292  
 사력서 司曆署 361  
 사병 혁파 私兵革罷 2, 6, 7, 32, 203, 210, 348  
 사복 司僕 260  
 사복시 司僕寺 69, 96, 112, 258

4부학당 四部學堂 34, 279, 291, 292, 319  
 사사전 寺社田 38, 39  
 사산 賜山 312  
 4서 四書 280, 281, 292  
 사서동몽 士庶童蒙 316  
 4서 3경 四書三經 333  
 4서 5경 四書五經 35, 302, 337  
 4서5경재 四書五經齋 319  
 4서의 四書疑 341, 342  
 《사서집주》 《四書集註》 280  
 사선서 司膳署 57  
 사섬시 司贍寺 68, 83, 275  
 사성 司成 295, 296  
 사수감 司水監 58, 84  
 사수색 司水色 84  
 사순 司楯 201  
 사심관제 事審官制 4, 125, 183, 184  
 사액서원 賜額書院 311, 315  
 사업 司業 288, 293  
 사역원 司譯院 35, 69, 92, 112, 359, 363, 366  
 사영수공업 私營手工業 43  
 사예 司藝 281, 288, 293, 295, 296  
 사옥부정 司獄副正 158  
 사온서 司醢署 68, 85  
 사옹 司饗 201  
 사옹방 司饗房 81  
 사옹원 司饗院 43, 67, 81, 112  
 사용 司勇 222  
 사우 祠宇 314  
 사원 寺院 313  
 사원노비 寺院奴婢 54  
 사유 師儒 313  
 사육신사건 死六臣事件 64  
 사율원 司律院 360  
 사은 謝恩 171  
 사의 司衣 201  
 사이 司彝 201  
 사인 舍人 66



- 사인소 舍人所 256  
 사장 私匠 43  
 사장 詞章 317, 336  
 사재감 司幸監 58, 68, 84  
 사전 祀典 179  
 사전 私田 37  
 사전기내의 원칙 私田畿内の原則 38  
 사전장총통 四箭長銃筒 267  
 사전총통 四箭長銃筒 267  
 사정 司正 222  
 4제 四製 286  
 사조 辭朝 171, 172  
 사족 士族 52  
 4중삭 四仲朔 336, 349  
 4중삭취재 四仲朔取才 297, 366  
 사직 司直 222  
 사직단 社稷壇 93  
 사직서 社稷署 69, 93  
 사직제 社稷祭 304  
 사창 社倉 189  
 사초 史草 24  
 사축서 司畜署 69, 93  
 사축소 司畜所 93  
 사패 賜牌 335  
 사평부 司平府 58  
 사포국 司礮局 266  
 사포서 司圃署 68, 85  
 4학 四學 34, 35, 89, 279, 284, 291, 293, 296, 308, 310, 319, 321, 342, 344, 348  
 사학 私學 8, 9, 69, 312~314, 321, 344  
 사학교육 私學敎育 313  
 사학12도 私學十二徒 291, 314  
 4학유생 四學儒生 286, 332, 333, 367  
 4학합제 四學合製 292  
 4학훈도 四學訓導 288  
 사헌부 司憲府 24, 29, 57~60, 63, 71~73, 75, 101, 173  
 사화 賜花 3, 335  
 사회 司誨 289, 296  
 사회신분 社會身分 44, 45  
 삭과 削科 338  
 삭망분향제 朔望焚香祭 304  
 삭망제 朔望祭 283  
 삭명 削名 338  
 산 算 357  
 산계 散階 121  
 산관직 散官職 109, 306  
 산사 算士 59, 323  
 산사교육 算士敎育 313  
 산원 散員 222  
 산원취재 算員取才 358  
 《산음장직》 《山陰帳籍》 356  
 산직 散職 99, 100, 114  
 산직자 散職者 37, 39  
 산택사 山澤司 70  
 산학 算學 35, 50, 296, 297, 348, 361, 363  
 산학교수 算學敎授 351  
 산학취재안 算學取才案 358  
 산학훈도 算學訓導 361  
 삼가현 三嘉縣 150  
 삼강오륜 三綱五倫 15  
 삼강행실 三綱行實 292, 301  
 3공 6경제 三公六卿制 2, 34  
 3관 三館 289  
 삼관고강법 三館考講法 397  
 3관권지 三館權知 305  
 3군 三軍 58, 59  
 삼군감사 三軍甲士 352  
 삼군도진무 三軍都鎭撫 70  
 삼군도진무소 三軍都鎭撫所 252  
 삼군도총부 三軍都總府 252  
 삼군도총제 三軍都總制 249, 252  
 삼군도총제부 三軍都總制府 250, 251  
 삼군부 三軍府 58, 60, 63, 220, 248, 449  
 삼군진무소 三軍鎭撫所 69, 74, 251~253

- 삼군총제부 三軍總制府 63, 202, 247  
 3단 三壇 182  
 삼대의 이상사회 三代之理想社會 1  
 3례 三禮 357  
 3망 三望 307  
 3반 三班 182  
 3반 관속 三班官屬 183  
 3법사 三法司 29, 72  
 삼사 三司 29, 57, 61, 65,  
 3사 三司 72, 175  
 3사법 三舍法 291  
 삼사제상 三司宰相 62  
 3속사 三屬司 58  
 33천 三十三天 327  
 3의사 三醫司 360  
 3일제 三日製 331  
 3전 三傳 357  
 3정 1자 三丁一子 156  
 3정 1호 三丁一戶 212, 213  
 삼충통 三銃筒 267  
 삼포왜란 三浦倭亂 245  
 상계리 上計吏 155  
 상당직 相當職 120  
 상림원 上林園 98  
 《상명산법》 《詳明算法》 50  
 상복사 詳覆司 70  
 상사 上舍 291, 319  
 상서사 尙瑞司 57, 59, 80, 255  
 상서원 尙瑞院 59, 67, 80  
 상순윤차 上旬輪次 332  
 상승승지 尙乘承旨 79  
 상시석전 常時釋奠 284  
 상식년 上式年 350  
 상액 上額 308  
 상양액수 常養額數 293  
 상의원하부사 商議門下府事 62  
 상의원 尙衣院 43, 70, 97, 112  
 상의중추원사 商議中樞院使 62  
 상인 常人 51  
 상장군 上將軍 222  
 상재생 上齋生 284, 343  
 상정일 上丁日 283  
 상주 尙州 169  
 상진 上鎭 251  
 상포계 喪布契 196  
 상피(제도) 相避(制度) 22, 330, 331  
 상한 常漢 51  
 상호군 上護軍 58, 222  
 색장 色掌 307  
 생원 生員 35, 36, 284, 306, 307, 318~  
 321, 341, 343~347, 367  
 생원시 生員試 302, 317, 319, 339, 340  
 생원·진사시 生員·進士試 292, 299,  
 300, 307, 326, 341~344, 346, 349  
 생원·진사시 복시 生員·進士試 復試  
 302  
 생원·진사시 회시 生員·進士試 會試  
 286  
 생진과 生進科 35  
 서 書 357  
 《서경》 《書經》 341  
 서경 署經 4, 21, 72, 120, 121, 181  
 서경 西京 300  
 서경군민만호부 西京軍民萬戶府 208  
 서경덕 徐敬德 17  
 서당 書堂 34, 279, 312, 314, 316  
 서도과 西道科 329  
 서리 書吏 47, 155, 289, 302, 303, 309,  
 323  
 서무 西廡 282  
 서반 관계 西班牙階 116, 117  
 서반 잡직계 西班牙雜職階 107, 114,  
 119  
 서반직 西班牙職 120  
 서반 체아직 西班牙遞兒職 49, 105, 112  
 서부학당 西部學堂 291  
 서얼 庶孽 47, 49, 50, 298, 357  
 서얼금고 庶孽禁鑄 50  
 서얼의 차대법 庶孽의 差待法 50  
 서얼 출신 庶孽出身 49

- 서얼 출신자 庶孽出身者 22  
 서얼 통청 庶孽通淸 50  
 서얼 허통 庶孽許通 355  
 서연관 書筵官 64  
 서운관 書雲觀 57, 90, 361  
 서원 書院 311, 314, 315  
 서원서당 書院書堂 314  
 서인계열 西人系列 18  
 서재 書齋 35, 279, 312~315  
 서재 西齋 282, 307  
 서재교생 西齋校生 309  
 서재교육 書齋教育 314  
 서재안 西齋案 310  
 서학 書學 361  
 서해도 西海道 129  
 석자 席子 290  
 석전 釋奠 283, 284  
 석전제 釋奠祭 283, 304, 350  
 석전제물 釋奠祭物 289  
 선가 船價 272  
 선공감 繕工監 59, 70, 98  
 선공시 繕工寺 98  
 선군 船軍 207  
 선사 先師 315  
 선상 船商 44  
 선상노비 選上奴婢 54  
 선양 禪讓 16  
 선전관 宣傳官 60, 104, 107, 222  
 선전관청 宣傳官廳 223  
 선천 宣川 359  
 선현 先賢 315  
 선화 善畫 297  
 선회 善繪 297  
 설총 薛聰 283, 304  
 섬학전 瞻學錢 280  
 섬부사직 攝副司直 293  
 섬사직 攝司直 293  
 섬육십 攝六十 205, 215  
 성관 姓貫 368  
 성균감 成均監 280  
 성균관 成均館 9, 29, 35, 36, 57, 60, 69,  
 87, 103, 279, 280, 284, 287, 289, 292, 296,  
 302, 305, 310, 318~321, 325, 334, 337,  
 342~344, 347, 348  
 성균관 교육 成均館教育 321, 343  
 성균관 9재 成均館九齋 338  
 성균관 노비 成均館奴婢 290  
 성균관 대사성 成均館大司成 333  
 성균관 문묘 成均館文廟 304, 350  
 성균관시 成均館試 287  
 성균관 유생 成均館 儒生 286, 290,  
 318, 319, 330, 332~334, 344, 367  
 성균관 학관 成均館學官 296  
 성균장이소 成均長貳所 318  
 성균정록소 成均正錄所 318  
 성기 省記 230  
 《성리대전》 《性理大全》 285, 291, 301  
 성리철학 性理哲學 14~16  
 성리학 性理學 1, 13~15, 17, 37, 47,  
 292  
 성리학적 이상사회 性理學的 理想社會  
 14  
 성문도감 城門都監 98  
 성음서 聲音署 362  
 성중관원 成衆官員 357  
 성중애마 成衆愛馬 6, 9, 26, 200, 201,  
 220, 322, 352  
 성혼 成渾 283  
 성황제 城隍祭 304  
 세공 歲貢 299, 303  
 세록 世祿 38  
 세습직 世襲職 23  
 세자관속 世子官屬 89  
 세자시강원 世子侍講院 69, 89, 103  
 세자익위사 世子翊衛司 69, 89, 96,  
 104, 260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40  
 세충통 細統筒 267  
 소 所 138, 141~143

소격서 昭格署 14, 69, 93, 362  
 소격전 昭格殿 93, 362  
 《소학》 《小學》 17, 194, 284, 292, 301, 302, 316  
 소학교육 小學教育 195  
 소현 小縣 149, 164  
 소현 병합 小縣併合 149, 150  
 소현 병합책 小縣併合策 126  
 소화시 掃火矢 265  
 《속대전》 《續大典》 286, 295, 310, 327, 332, 333, 344, 358, 363  
 속량 贖良 54, 311  
 속사 屬司 3  
 속사·속아문제 屬司·屬衙門制 67  
 속사·속아문제의 정비 屬司·屬衙門制의整備 59  
 속아문 屬衙門 3  
 속아문제도 屬衙門制度 58, 250  
 속악 俗樂 362  
 속오군 束伍軍 354  
 속현 屬縣 22, 25, 136, 138, 139, 141  
 속현리 屬縣吏 152  
 속현의 분포 屬縣의分布 138  
 속현의 정리 屬縣의整理 140  
 속현의 주현화 屬縣의主縣化 135  
 속현 혁파 屬縣革罷 139  
 솔거노비 率居奴婢 54  
 솔권겸윤 率眷兼尹 133  
 송 頌 331  
 《송원절요》 《宋元節要》 285, 292, 302  
 송준길 宋浚吉 283, 288  
 수공업 手工業 43  
 수군 水軍 207, 213, 237, 244  
 수군절도사 水軍節度使 8, 33, 207, 237, 248  
 수기지학 修己之學 16, 17  
 수라간 水刺間 282  
 수령 守令 145, 174, 177, 179~182, 301, 304  
 수령관 首領官 128, 175

수령구임법 守令久任法 150  
 수령육기법 守令六期法 132  
 수령의 행정체계 守令의行政體系 177  
 수령직 강화책 守令職強化策 137  
 수령7사 守令七事 27, 30, 31, 301  
 수명학교 修明學校 301  
 수문장 守門將 222, 226  
 수문장청 守門將廳 222  
 수발교지 受發教旨 62  
 수복청 守僕廳 282  
 수성군 守城軍 7, 207, 352  
 수성금화사 修城禁火司 70, 98  
 수신전 守信田 38, 39  
 수운판관 水運判官 176  
 수전패 受田牌 210, 215  
 수조권 收租權 37  
 수조지 收租地 37  
 수직 守職 120  
 수호군 守護軍 207  
 숙량홀 叔梁紇 283  
 순과 旬課 287  
 순관 巡官 228, 230  
 순군만호부 巡軍萬戶府 75, 204  
 순변사 巡邊使 245  
 순위부 巡衛府 75  
 순위사 巡衛司 204  
 순유박사 諄諭博士 288  
 순자법 循資法 9, 116, 322  
 순장 巡將 227, 228  
 순찰패 巡察牌 227  
 순청 巡廳 229, 230  
 순통 純通 285, 333  
 숭교방 崇教坊 281  
 숭문관 崇文館 280  
 숭문언무정책 崇文偃武政策 347  
 숭유억불정책 崇儒抑佛政策 19  
 습독관 習讀官 112, 299, 367  
 습독사일 習讀仕日 299  
 승문원 承文院 29, 60, 69, 88, 102, 112,

- 305, 325, 358  
승보시 升補試 284, 291, 292, 319  
승여사 乘輿司 69, 258, 259  
승육 陞六 324  
승자총통 勝字銃筒 266  
승정원 承政院 24, 28, 58, 64, 65, 70, 71, 101, 175  
승지 承旨 332  
승추부 承樞府 58, 63, 71, 249, 250  
시 詩 330, 340  
《시경》 《詩經》 285, 341  
시관 試官 302  
시권 試券 330  
시립 侍立 231  
시사 侍史 58  
시위군 侍衛軍 210, 211, 217  
시위사 侍衛司 204  
시위패 侍衛牌 6, 7, 201, 202, 207, 209, 214, 217, 235, 236, 248, 352  
시재 試才 330  
시전 市廛 44  
시정 侍丁 259  
시정기 時政記 24  
시취 試取 7, 32  
시취 액수 試取額數 287  
시학 視學 284  
식년 무과 式年武科 334, 349, 353  
식년 문과 式年文科 349  
식년시 式年試 326, 334, 343, 349, 363  
식당도기 食堂到記 318, 333  
식리전 殖利錢 311, 312  
신공 身貢 3, 54, 289  
신과거법 新科擧法 318  
신과전법 新科田法 131  
신구시 新舊試 328, 335  
신·구향 新·舊鄉 305  
신권 臣權 24, 27  
신기전 神機箭 269, 270  
신량역천 身良役賤 52, 53, 208  
신량역천 계층 身良役賤階層 47  
신명색제도 申明色制度 26  
신무시위사 神武侍衛司 202  
신문 神門 282  
신부 信符 229  
신분사회 身分社會 14  
신사 Gentry 346  
신역 身役 42, 48  
신용개 申用漑 336  
신제총통 新製銃筒 267  
신진관료 新進官僚 37  
신진사대부 新進士大夫 20, 53, 318, 339  
신진사류 新進士類 3  
신호위 神虎衛 199, 202  
신향 新鄉 305  
신흥무장 新興武將 280  
신흥사대부 新興士大夫 37, 280  
실안(예검)제주 實案(例兼)提調 58  
실직 實職 23, 100, 109, 324  
실직인 實職人 99  
실차교관 實差敎官 295  
실학자 實學者 326  
심약 審藥 175, 176, 300, 360  
심정 沈貞 336  
10사 十司 202, 204, 248, 249, 251, 252  
10위 十衛 6, 57, 104, 200, 202, 248  
10위제 十衛制 199, 203  
10위제도 十衛制度 119, 200  
12도 十二徒 313  
12목 十二牧 300  
12사제도 十二司制度 204  
12사제의 군령체제 十二司制的 軍令體制 59  
십일조 什一租 310  
10학 十學 296, 297, 348  
쌍진화포 雙箭火砲 265  
쌍중 雙中 341

【ㅇ】

아감사 亞監司 175  
 아록전 衙祿田 156  
 아악 雅樂 362  
 아악서 雅樂署 57, 92, 107, 362  
 아헌관 亞獻官 283, 284  
 악공 樂工 297, 362  
 악기고 樂器庫 282  
 악사 樂師 362  
 악생 樂生 297, 362  
 악생청 樂生廳 282  
 악정 樂正 288  
 악학 樂學 296, 297, 361, 362  
 악학도감 樂學都監 92  
 안노생 安魯生 146  
 안동부 安東府 169  
 안주군민만호부 安州軍民萬戶府 208  
 안집별감 安集別監 136  
 안축 安軸 313  
 안평대군 翁 安平大君 塔 295  
 안행량 安行梁 276  
 안향 安珦 280, 283, 290, 304  
 알성 무과 謁聖武科 351  
 알성시 謁聖試 286, 287, 292, 320, 328,  
 331, 342, 344, 360, 351  
 액내교생 額內校生 309  
 액내생 額內生 299, 309, 365  
 액외교생 額外校生 309, 310  
 액정서 掖庭署 57, 67, 82, 107  
 액정원 掖庭院 82  
 양계 兩界 128  
 양계 연변의 행정구획 정비 兩界 沿邊  
 의 行政區劃 整備 150  
 양계지방 兩界地方 138, 170  
 양관제학 兩館提學 333  
 양광도의 개편 楊廣道の 改編 129  
 양도목 兩都目 289  
 양로연 養老宴 284, 304

양무 兩廡 304  
 양무 중향분헌관 兩廡從享分獻官  
 283  
 양민 良民 46, 51  
 양반 兩班 297, 298, 303~305, 308,  
 319, 321, 326, 334, 343, 344, 357, 364  
 양반가문 兩班家門 298  
 양반관료 兩班官僚 37, 38, 47, 325  
 양반관료국가 兩班官僚國家 22  
 양반관료정치 兩班官僚政治 19  
 양반관료제 兩班官僚制 322, 325  
 양반관료제 사회 兩班官僚制社會  
 321  
 양반관료 체제 兩班官僚體制 20, 35,  
 317, 326, 347  
 양반사립 兩班士林 315  
 양반신분 兩班身分 46  
 양반유생 兩班儒生 305  
 양반 중심의 관료국가 兩班 中心의 官  
 僚國家 47  
 양사 兩司 29  
 양사재 養士齋 311  
 양성지 梁誠之 151  
 양인 良人 43, 45~47, 51~54, 297,  
 298, 303, 308, 310, 343, 357  
 양인 교생 良人校生 303  
 양인농민 良人農民 7, 33, 34, 52  
 양(인)신분 良(人)身分 45, 51, 53  
 양좌동 良佐洞 196  
 양친교가 良賤交嫁 53  
 양현고 養賢庫 68, 85, 281, 282, 290  
 《양휘산법》 《揚輝算法》 51  
 어보 御寶 343  
 어사화 御史花 328  
 어숙권 魚叔權 337  
 어의 御醫 91  
 어장 漁場 293  
 어전 漁箭 293, 312  
 언관 言官 24  
 업무 業武 357

- 업유 業儒 357
- 여론정치 輿論政治 315
- 여제 勵祭 304
- 여진어 女眞語 358
- 여진학 女眞學 50, 363
- 역 役 34
- 역과 譯科 297, 357, 358, 363
- 역관 譯官 359, 367
- 역마제도 驛馬制度 34
- 역법 曆法 16
- 역성혁명 易姓革命 27
- 역승 驛丞 300
- 역·의·율생 譯·醫·律生 302
- 역재 易齋 338
- 역학 譯學 35, 50, 296, 297, 348, 361
- 역학원 譯學院 359, 363
- 역학훈도 譯學訓導 300
- 연경궁 延慶宮 83
- 연고 年考 285
- 연방원 聯芳院 362
- 연복궁 延福宮 85
- 연은전 延恩殿 94
- 연합촌 聯合村 144
- 염포 鹽浦 359
- 영길도 永吉道 129, 162
- 영노비 營奴婢 176
- 영돈녕부사 領敦寧府事 59
- 영리 營吏 126, 153, 155, 156, 176, 178
- 영삼군사처 領三軍事處 250, 251
- 영안도 永安道 129
- 영저리 營邸吏 178
- 영저리(영주인)제도 營邸吏(營主人)制度 32
- 영전사 領殿事 58
- 영조사 營造司 70
- 영직 影職 99, 100, 109, 114
- 영진군 營鎭軍 7, 33, 200, 207, 210, 211, 218, 235, 236, 352
- 영진군체제 營鎭軍體制 34
- 영친연 迎親宴 335
- 영해 寧海 147
- 영흥현 永興縣 148
- 예겸직 例兼職 103
- 《예기》 《禮記》 285, 341
- 예문관 藝文館 24, 29, 58, 60, 69, 86, 87, 103
- 예문관관 藝文館官 59
- 예문대제학 藝文大提學 284
- 예문춘추관 藝文春秋館 57, 58, 62, 87, 88
- 예민집단 隸民集團 39
- 예빈시 禮賓寺 58, 69, 90
- 예성제 禮成祭 283
- 예승석 芮承錫 152
- 예장도감 禮葬都監 94
- 예조 禮曹 28, 67, 68, 292, 295, 317, 321, 326, 337, 341
- 예조 속아문 禮曹屬衙門 86
- 예조월강 禮曹月講 285, 287, 292
- 예조인 禮曹印 364
- 예차교관 預次敎官 295
- 예차내금위제 預差內禁衛制 221
- 예치 禮治 13
- 오 伍 224
- 5가작통법 五家作統法 190
- 5가작통제 五家作統制 188
- 5고 7궁 五庫 七宮 38
- 5군 五軍 205
- 5군영 五軍營 233
- 오군진무소 五軍鎭撫所 254
- 5도양계 五道兩界 129
- 5도양계 체제 五道兩界體制 160
- 5복친 五服親 295
- 5부 五部 68, 85, 291
- 5부 학당 五部學堂 291
- 5사 五司 94, 204
- 5사제 五司制 59
- 5사제도 五司制度 205
- 오원 五員 231
- 5위 五衛 6, 21, 32, 33, 69, 74, 94, 95,

- 104~106, 213, 217, 225, 254, 260  
 5위군 五衛軍 227, 233  
 오위도총관 五衛都總管 70  
 오위도총부 五衛都總府 21, 32, 59, 69,  
 74, 95, 104, 217, 225, 254  
 5위제도 五衛制度 215  
 오위진무소 五衛鎭撫所 59, 69, 74, 94,  
 214  
 5위체제 五衛體制 214, 220, 253  
 5진법 五陣法 205  
 은혜(계)동 溫惠(溪)洞 196  
 웅진 甕津 359  
 와서 瓦署 70, 99  
 와요 瓦窯 99  
 완구 碗口 264  
 왕권 王權 24, 27  
 왕도정치 王道政治 1, 13, 16  
 왕도정치사상 王道政治思想 1, 13  
 왕세자석전 王世子釋奠 284  
 왕자의 난 王子의 亂 2, 6, 203, 248  
 왜어 倭語 358  
 왜학 倭學 50, 363  
 왜학권려조건 倭學勸勵條件 303  
 왜학생 倭學生 302  
 외거노비 外居奴婢 54, 290  
 외거노비의 신공 外居奴婢의 身貢  
 290  
 외공장 外工匠 43  
 외관 外官 289  
 외관구임법 外官久任法 4, 125  
 외관설치 外官設置 137  
 외관의 품계와 임용 기준 外官의 品階  
 와 任用 基準 136  
 외방도시 外方都試 352  
 외방별과 外方別科 351  
 외방별시 外方別試 320, 329, 330, 350  
 외사 外舍 291  
 외아전 外衙前 178  
 외역전 外役田 156  
 외역전 혁파 外役田 革罷 156  
 외직 外職 171  
 요역 徭役 42  
 요물고 料物庫 57  
 용관 혁거 冗官 革去 58  
 용기순위사 龍騎巡衛司 202  
 용분사 龍奮司 204  
 용양순위사 龍驤巡衛司 202  
 용양위 龍驤衛 32, 74, 94, 95, 215, 232  
 우림위 羽林衛 220, 221  
 우방 右坊 362  
 우위(호분위) 右衛(虎賁衛) 32  
 운과 雲科 363  
 운산 雲山 149  
 웅무시위사 雄武侍衛司 202  
 웅천 熊川 359  
 원납교생 願納校生 309  
 원상제 운영 院相制 運營 65  
 원시 院試 349  
 원악향리 元惡鄉吏 156, 157  
 원위전 院位田 156  
 《원육전》 《元六田》 358  
 원자학궁 元子學宮 284, 294  
 원점 圓點 285, 287, 306, 318~321,  
 332, 333, 343~345  
 원점과 圓點科 333  
 월강 月講 299  
 월경지 越境地 5, 127, 166~168  
 월경지 정리 越境地 整理 167  
 월과 月課 302  
 위 尉 222  
 위병 衛兵 220  
 위생국 衛生局 363  
 위안제 慰安祭 283, 304  
 위원 渭原 359  
 위장 衛將 222, 227  
 위장소 衛將所 225  
 위관 位版 284  
 위화도회군 威化島回軍 128  
 유가 遊街 335  
 유격장 遊擊將 246



- 유교 儒敎 301, 315  
 유교적 민본사상 儒敎的 民本思想 1, 13  
 유교정치 儒敎政治 1~3, 13, 305  
 유기 鑪器 312  
 유득공 柳得恭 50  
 《유문》 《柳文》 302  
 유방 留防 243  
 유방군 留防軍 242, 243  
 유방병 留防兵 354  
 유방정병 留防正兵 7, 236  
 유방체제 留防體制 224  
 유생과시 儒生課試 286  
 유생상순윤차 儒生上旬輪次 826  
 유성룡 柳成龍 247  
 유수부 留守府 161  
 유연 柳衍 280  
 유영체제 留營體制 177  
 유외직 流外職 116  
 6월 도목 六月 都目 289  
 6월 도회 六月 都會 302  
 유일 遺逸 9, 322  
 유일거사 遺逸居士 26  
 유임 儒任 307  
 유자광 柳子先 50  
 유적 俞迪 280  
 유전 儒錢 312  
 유청군관 有廳軍官 356  
 유탄 油炭 290  
 유토전 有土田 310  
 유품 流品 99  
 유품외 流品外 99, 107  
 유학 幼學 284, 296, 297, 302, 307, 321, 345  
 유학교수관 儒學敎授官 305, 306  
 《유합》 《類合》 316  
 유향소 留鄉所 4, 5, 22, 25, 26, 31, 125~127, 153~155, 178, 183~189, 193, 304, 337  
 유향소 복립운동 留鄉所 復立運動 14  
 유향품관 留鄉品官 5, 24~26, 153  
 유회 儒會 305  
 유후사 留後司 129, 100  
 유희춘 柳希春 187  
 6경 六經 280  
 6두품 六頭品 298  
 6방 六房 31  
 6방체제 六房體制 183  
 육수군 陸守軍 205, 207, 336, 248  
 육아일 六衙日 189  
 육의전 六矣廬 44  
 육일각 六一閣 282  
 《육전조례》 《六典條例》 359  
 6조 六曹 21, 57, 58, 60, 64~66, 71, 101, 110, 284  
 육조권 六曹權 250  
 6조 속사 六曹屬司 58  
 6조 속아문 六曹屬衙門 80, 101  
 6조의 서무 분장 六曹의 庶務分掌 67  
 6조직계제 六曹直啓制 2, 22, 28, 60  
 6진 六鎭 346  
 윤원형 尹元衡 337  
 율 律 357  
 율곡 栗谷→이이 李珣  
 율과 律科 357, 363  
 율과시취 律科試取 360  
 율생도 律生徒 365  
 율학 律學 35, 50, 296, 297, 348, 360  
 율학교육 律學敎育 360  
 율학청 律學廳 360  
 은사 恩賜 328  
 은일 隱逸 322  
 은진 恩津 148  
 을과 乙科 327, 328, 350  
 을묘사변 乙卯事變 354  
 을모왜란 乙卯倭亂 245  
 《을사대전》 《乙巳大典》 58, 337  
 음관 蔭官 345, 346  
 음사 淫祀 179, 189

- 음사 蔭仕 345
- 음서 蔭敍 20, 35, 48, 319, 325
- 음서제도 蔭敍制度 9, 325
- 음양 陰陽 35
- 음양과 陰陽科 297, 357, 361, 363
- 음양학 陰陽學 296, 297, 361
- 음자제 蔭子弟 367
- 직지 蔭職 322
- 읍리 邑吏 126, 153, 155, 156
- 읍리전 邑吏田 139
- 읍리전의 혁파 邑吏田의 革罷 156
- 읍사 邑司 177, 178
- 읍사례 邑事例 177
- 읍안군 邑案軍 311
- 읍치 邑治 138, 179
- 응양위 鷹揚衛 199, 202
- 응제 應製 286, 287
- 의건부진무소 義建府鎭撫所 252
- 의과 醫科 357, 363
- 의금부 義禁府 29, 60, 75, 101
- 의랑 議郎 58
- 의복 醫卜 357
- 의빈계 儀賓階 114, 117, 118, 121
- 의빈부 儀賓府 59, 60, 78
- 의성고 義成庫 82
- 의순고 義順庫 90
- 의·역·악 3학 생도 醫·譯·樂 三  
學生徒 299
- 의영고 義盈庫 68, 85
- 의용순금사 義勇巡禁司 75, 204
- 의용위 義勇衛 252
- 의용위진무소 義勇衛鎭撫所 252
- 의원 醫院 300
- 의장위 儀仗衛 220
- 의정부 議政府 21, 58, 60, 63, 65, 66,  
71, 72, 77, 101, 110, 284, 337
- 의정부서사제 議政府署事制 2, 28, 60
- 의정부·6조체제 議政府·六曹體制 2,  
59
- 의창곡 義倉穀 272, 274
- 의학 醫學 296, 297, 299, 348, 361, 363
- 의학교수 醫學敎授 300
- 의학교육 醫學敎育 300
- 의학박사 醫學博士 300
- 의학시취 醫學試取 360
- 의학원 醫學院 360
- 의흥부 義興府 69, 74, 251
- 의흥삼군부 義興三軍府 6, 32, 58, 60,  
63, 70, 71, 74, 202, 248, 253, 255, 348
- 의흥시위사 義興侍衛司 202
- 의흥위 義興衛 32, 74, 94, 95, 215, 232
- 의흥친군우위 義興親軍右衛 199, 202
- 의흥친군위 義興親軍衛 6, 7, 104, 200,  
201
- 의흥친군좌위 義興親軍左衛 199, 202
- 이 理 15
- 이과 吏科 297, 347, 357, 358
- 이과시험 吏科試驗 26
- 2군 6위 二軍 六衛 199
- 이기이원론 理氣二元論 17
- 이기이원적 일원론 理氣二元的 一元論  
15
- 이기일원론 理氣一元論 18
- 이기호발설 理氣互發說 17
- 이덕무 李德懋 50
- 이모작 二毛作 40, 41
- 이문 吏文 337, 367
- 이문과 吏文科 358
- 이문교육 吏文敎育 358
- 이방원 李芳遠 32, 50, 65, 348
- 이사 里社 189
- 이산 理山 359
- 이색 李穡 280, 288, 347
- 이석형 李石亨 341
- 이성계 李成桂 38, 50
- 이승인 李崇仁 280
- 이습관 肄習官 367
- 이시에 李施愛 187
- 이양법 移秧法 40
- 이언 伊彦 139

이언적 李彦迪 17, 583  
 이원취재 吏員取才 358  
 이이 李珣 17, 18, 50, 194, 283, 341  
 이장군포 二將軍砲 262  
 이정 里正 143, 145  
 이정구 李廷龜 281  
 2정 1보 二丁 一保 213  
 이조 吏曹 28, 67  
 이조 속아문 吏曹屬衛門 80  
 이준경 李浚慶 288, 337  
 이직 吏職 9, 322  
 이진 李璵 280  
 이충통 二銃筒 267  
 이환안제 移還安祭 283  
 이황 李滉 17, 18, 193, 283  
 익군 翼軍 33, 208~210  
 익군체제 翼軍體制 209  
 인경(정) 人定 228  
 인구 人口 164  
 인리안 人吏案 157  
 인리위전 人吏位田 156  
 인보경장법 隣保正長法 190  
 인소전 仁昭殿 94  
 인수부 仁壽府 58, 59  
 인일제 人日製 331  
 인품평정 人品評定 324  
 일강 日講 299, 302  
 1관 1직의 원칙 一官 一職의 原則 130  
 일발다전법 一發多箭法 264, 265  
 일양재 一兩齋 282  
 일전일주의원칙 一田一主의 原則 39  
 일직교생 日直校生 309  
 일충통 一銃筒 267  
 임내 任內 4, 25, 137, 166, 167  
 임내리 任內吏 152  
 임내 분포 任內 分布 138  
 임내의 소멸 任內的 消滅 125  
 임내의 정비 任內的 整備 139, 145, 165

임내의 주읍화 任內的 主邑化 137  
 임내의 직촌화 任內的 直村化 127, 145, 164  
 임내의 폐합과 이속 任內的 廢合과 移屬 167  
 임내 혁파 任內 革罷 140  
 임영대군 具 應瀛大君 璆 295  
 임진왜란 壬辰倭亂 354  
 입강창가 入江倉價 272  
 입거향리 入居鄉吏 157  
 입격 入格 343  
 입경창가 入京倉價 272  
 입관보리법 入官補吏法 347  
 입방 入防 355  
 입사 入仕 35  
 입사자격 入仕資格 52  
 입직 入直 226  
 입진성 入鎭姓 154

## 【ㄷ】

자궁 資窮 335  
 자대 自代 307  
 자목 柴木 312  
 자사 子思 283  
 자연촌 自然村 143~145  
 자영농민 自營農民 62  
 자학 字學 297, 348  
 작대 作隊 357  
 작헌례 酌獻禮 287  
 잔구포 盞口砲 264  
 잠 箴 331  
 잡과 雜科 9, 35, 36, 324, 326, 347, 357, 358, 363, 364, 366, 368  
 잡과 급제자 초자표 雜科及第者超資表 324  
 잡과 방목 雜科榜目 368  
 잡과 초시·복시 정액표 雜科初試·覆試定額表 363  
 잡단 雜端 58

- 잡류 雜類 107  
 잡류직 雜類職 99  
 잡색군 雜色軍 207, 243  
 잡업 雜業 347, 361  
 잡직 雜職 107, 108, 113, 120, 121  
 잡직계 雜職階 107, 118, 121  
 잡직 체아직 雜職遞兒職 108  
 잡학 雜學 279, 297~299  
 잡학 교관 雜學敎官 300  
 잡학 교육 雜學敎育 297, 298  
 잡학생 雜學生 299  
 잡학생도 雜學生徒 297, 298, 364~368  
 잡학훈도 雜學訓導 300  
 장 莊 138, 141, 142  
 장군 將軍 222  
 장군 화통 將軍火筒 267  
 장금사 掌禁司 70  
 장명 掌令 58  
 장례사 掌隸司 70  
 장례원 掌隸院 70, 97, 103  
 장루서 掌漏署 361  
 장번직 長番職 107  
 장악서 掌樂署 92  
 장악원 掌樂院 69, 92, 362  
 장용대 壯勇隊 112  
 장용위 壯勇衛 110, 213, 216~218  
 장원 壯元 36, 287, 327, 338  
 장원서 掌苑署 70, 98  
 장의 掌議 287, 307  
 장흥고 長興庫 68, 85  
 재내제군부 在內諸君府 77, 88  
 재신 幸臣 2, 58  
 재임 齎任 307  
 재지사족 在地士族 32, 182, 186, 187, 189, 192  
 재향품관 在鄉品官 31  
 저화 楮貨 44, 54  
 전강 殿講 286, 292, 327, 328, 333, 334, 342  
 전객사 典客司 69  
 전곡 典穀 307  
 전구서 典廐署 93  
 전내 동서중향분헌관 殿內東西從享分獻官 283  
 전농시 典農寺 83, 90, 310  
 전라좌·우수영 全羅左·右水營 359  
 전력부위 展力副尉 224  
 전부 典簿 288  
 전사청 典祀廳 281, 282, 301  
 전생서 典牲署 69, 93  
 전설 典設 260  
 전설사 典設司 69, 96, 112  
 전시 殿試 36, 328, 331, 335, 349~351  
 전시과체제 田柴科體制 19  
 전시법 殿試法 338  
 전악서 典樂署 57, 92, 107, 362  
 전연사 典涓司 70, 98  
 전옥서 典獄署 70, 97  
 전운색 轉運色 84  
 전위(충좌위) 前衛(忠佐衛) 32  
 전의감 典醫監 69, 91, 112, 360, 363  
 전의사 典醫司 363  
 전의시 典醫寺 360  
 전임 典任 307  
 전조 銓曹 21  
 전중시 殿中寺 80  
 전최 殿最 289  
 전패 殿牌 179  
 전폐 箭幣 44  
 전함관 前街官 49  
 전함사 典艦司 68, 84  
 전함품관 前衛品官 26  
 전향사 典享司 68  
 전호 佃戶 52  
 전훈 典訓 289, 296  
 절간구색 折簡求索 182  
 절도사 節度使 216, 237  
 절(일)제 節(日)製 286, 287, 328, 331, 332, 334, 342

- 절제사 節制使 33, 58, 63, 203, 207, 247  
 절충장군 折衝將軍 224  
 점촌 店村 312  
 정 正 222  
 정과 丁科 328  
 정광필 鄭光弼 336  
 정군 正軍 212, 飴5, 236  
 정남 丁男 34, 42  
 정년 丁年 334  
 정도전 鄭道傳 2, 6, 13, 16, 27, 50, 63, 139, 202, 247, 280, 339  
 정랑 正郎 67  
 정로위 定虜衛 221  
 정록청 正錄廳 281, 282  
 정몽주 鄭夢周 280, 283, 288  
 정병 正兵 7, 33, 34, 207, 214, 216, 217, 219, 236, 243, 244, 318  
 정승 政丞 63  
 정시 庭試 320, 328, 330, 331, 334, 342, 344, 351  
 정안군 靖安君→이방원 李芳遠  
 정여창 鄭汝昌 283  
 정이 程頤 304  
 정인지 鄭麟趾 139  
 정조 政曹 175  
 정직 正職 23, 48, 99~101, 109, 111  
 정품 正品 103, 324  
 정학 正學 1, 13  
 정호 程頤 304  
 제거사 提舉司 98  
 제기고 祭器庫 282  
 제방납미량 除防納米量 355  
 제생원 濟生院 91, 360  
 제술업(시험) 製述業(試驗) 285~287, 302, 333, 340, 347  
 제승방략 制勝方略 245, 246  
 제역 除役 309  
 제역촌 除役村 305, 311, 312  
 제왕자부 諸王子府 294  
 제용감 濟用監 68, 83  
 제용고 濟用庫 83  
 제익 諸翼 234  
 제자백가서 諸子百家書 302  
 제주 提調 21, 363  
 제주수 提調數 58  
 제주제 提調制 58  
 제진 諸鎭 8, 33, 34  
 제포 齊浦 359  
 제학 諸學 297  
 조 詔 331  
 조 粗 285, 333  
 조관 朝官 351  
 조광조 趙光祖 17, 283, 336, 362  
 조군 漕軍 213  
 조방 朝房 232  
 조방장 助防將 245, 246  
 조선 漕船 276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202  
 〈조선부〉 〈朝鮮賦〉 298  
 조선통보 朝鮮通寶 44  
 조운 漕運 276  
 조졸 漕卒 276  
 조준 趙浚 2, 63, 128  
 조지서 造紙署 70, 99  
 조지소 造紙所 99  
 조찬 助饌 290  
 조헌 趙憲 50, 283, 337  
 족 族 224  
 족벌 族閥 339  
 족친위 族親衛 112, 213, 216, 217, 219, 227  
 존경각 尊經閣 281  
 졸 卒 224  
 종 53  
 종계 宗契 316  
 종계무변 宗系誣辨 329  
 종묘서 宗廟署 69, 93  
 종부시 宗簿寺 67, 80  
 종자곡 種子穀 276

- 종장 宗長 288, 340, 341  
 종직 終職 345  
 종친 宗親 5, 296  
 종친계 宗親階 114, 117, 121  
 종친부 宗親府 59, 60, 77, 81  
 종친불임이사 宗親不任以事 294  
 종품 從品 103, 324  
 종학 宗學 69, 89, 279, 289, 294~296  
 종학교수관 宗學教授官 295, 296  
 종학박사 宗學博士 296  
 종학식략 宗學式略 294, 295  
 종헌관 終獻官 283, 284  
 좌랑 佐郎 67  
 좌방 左坊 362  
 좌수 座首 31, 179  
 좌·우간의대부 左·右諫議大夫 51  
 좌·우산기상시 左·右散騎常侍 58  
 좌우위 左右衛 199, 202  
 좌위(용양위) 左衛(龍驤衛) 32  
 《좌전》 《左傳》 285, 292  
 좌주문생 座主門生 318  
 좌주문생제 座主門生制 317, 321, 339, 349  
 좌주 祭酒 288, 293  
 죄인속공노비 罪人屬公奴婢 293  
 주관 3공 周官 三公 65  
 주기론 主氣論 18  
 주돈이 周敦頤 304  
 주련대 駐輦臺 282  
 《주례》 《周禮》 1, 13, 37  
 주부 主簿 293, 295  
 주세봉 周世鵬 315  
 《주역》 《周易》 285, 341  
 주읍 主邑 166  
 주자가례 朱子家禮 292  
 주자 성리학 朱子性理學 17  
 주자소 鑄字所 292  
 주자학 朱子學 280, 304, 315, 317, 318, 339  
 주진 主鎭 8, 33, 236  
 주창 州倉 272  
 주포 廚庖 282  
 주현 主縣 22, 24, 141  
 주현의 병합 州縣의 併合 149  
 주희 朱熹 283, 304  
 죽전 竹田 312  
 중군군후소 中軍軍候所 257  
 중랑장 中郎將 222  
 중부학당 中部學堂 291  
 중사 中使 333  
 중소 中所 226  
 중승 中丞 58  
 중시 重試 325, 334, 335, 350  
 중앙 각사 中央各司 3  
 중앙군 中央軍 6, 7, 32, 33  
 중앙집권적 양반지배체제 中央集權的  
兩班支配體制 125,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 中央集權的  
地方統治體制 126  
 중액 中額 308  
 《중용》 《中庸》 285, 341  
 중위(의흥위) 中衛(義興衛) 32  
 중익 中翼 211  
 중익(병마)절제사 中翼(兵馬)節制使  
234, 235  
 중인 中人 23, 35, 36, 46, 47, 298, 299,  
326, 357  
 중인층 中人層 48, 49, 50  
 중추부 中樞府 59, 63, 73, 104, 107,  
337  
 중추원 中樞院 57~62, 70, 73, 246,  
249, 252, 357  
 즉위교서 卽位敎書 317, 339, 347  
 즉일방방 卽日放榜 287  
 증광별시 增廣別試 334, , 335  
 증광시 增廣試 320, 328, 342, 350, 363  
 증광전시 增廣殿試 831, 332  
 증석 曾皙 283  
 증손여씨향약 增損呂氏鄉約 194  
 지리업 地理業 357

지리학 地理學 363  
 지방군 地方軍 6, 33  
 지방역학원 地方譯學院 300  
 지방의 地方醫 365  
 지방장관 地方長官 30  
 지배신분 支配身分 46, 47, 49  
 지역촌 地域村 143, 144  
 지의 地衣 290  
 지장위전 紙匠位田 156  
 지주-전호제 地主-佃戶制 14, 37  
 지평 持平 58  
 지·현자포 地·玄字砲 264  
 직강 直講 288, 289, 294~296  
 직계아문 直啓衙門 60, 65, 101  
 직부 直赴 286, 333, 351  
 직부생 直赴生 328, 334  
 직부 회시생 直赴 回試生 334  
 직숙소 直宿所 232  
 직역 職役 48  
 직전 職田 298  
 직전법 職田法 39  
 직촌 直村 143, 144, 165, 167  
 직촌화 直村化 4  
 직학 直學 288  
 진 鎭 33, 206  
 진관체제 鎭管體制 6, 8, 33, 34, 130, 213, 233~236, 244  
 진군 鎭軍 206  
 진대곡 賑貸穀 276  
 진덕박사 進德博士 288  
 진무 鎭撫 251  
 진무소 鎭撫所 248, 252  
 진법체제 陣法體制 220  
 진봉리 進捧吏 155  
 진사 進士 35, 36, 284, 306, 307, 318~321, 341, 343, 345~347, 367  
 진사과(시) 進士科(試) 35, 317, 319, 321, 339~341  
 진산 鎭山 179  
 진유 眞儒 336

진의 혁과 鎭의 革罷 139  
 진주 晉州 169  
 진천뢰 震天雷 264  
 진평(수양)대군 유 晉平(首陽)大君 珪 295  
 진현시 進賢試 38, 335, 350, 351  
 질러포 蒺藜砲 264  
 질(러)포통 蒺(藜)砲筒 270  
 집강 執綱 307  
 집사교생 執事校生 305, 309  
 집의 執義 58  
 집현전 集賢殿 2, 58~60, 63  
 집현전관 集賢殿官 289  
 집현전 녹관 集賢殿 祿官 296

## 【ㄸ】

차장고 遮帳庫 282  
 찰방 察訪 173, 300  
 참내 參內→참상(관) 參上(官)  
 참상(관) 參上(官) 4, 21, 36, 135, 335  
 참시관 參試官 351  
 참외(관) 參外(官)→참하(관) 參下(官)  
 참외 문관 參外文官 306  
 참판 參判 58  
 참하(관) 參下(官) 4, 21, 33, 289, 319, 325  
 창고전 倉庫田 38  
 창방의 唱榜儀 334  
 창부 倉部 361  
 창사 倉史 158  
 창성 昌城 359  
 창원 昌原 149  
 창정 倉正 156, 157  
 창주 倡註 280  
 채전 菜田 293  
 채전 彩典 362  
 책(문) 策(問) 330, 331, 340  
 처 處 138, 141, 142

- 처치사 處置使 207
- 척간패 擲奸牌 226, 227
- 척신정치 威臣政治 14, 17
- 천거(제도) 薦舉(制度) 26, 287, 322
- 천곡서원 川谷書院 315
- 천구 賤口 53
- 천명 天命 15
- 천문학 天文學 299, 363, 367
- 천민 賤民 47, 54
- 천(민)신분 賤(民)身分 45, 51, 63
- 천서 賤庶 314
- 천역 부담자 賤役 負擔者 53, 53
- 천예 賤隸 53
- 천우위 千牛衛 199, 205
- 천인 賤人 45, 46, 297
- 철신포 鐵信砲 207
- 첨설 添設 99
- 첨절제사 僉節制使 33, 58, 205~207, 236, 237
- 첨총제 僉摠制 58, 249
- 첩고 疊鼓 231
- 첩종 疊鐘 232
- 청금록 靑衿錄 304, 305, 307~310, 346
- 청남 淸南 330
- 청로대 淸路隊 221
- 청북 淸北 330
- 청요직 淸要職 120
- 청주 淸州 129, 134, 300
- 체아록 遞兒祿 221
- 체아직 遞兒職 23, 68, 100, 101, 104, 107, 109, 111, 214, 298, 323, 366
- 체임 遞任 304
- 《초사》 《楚辭》 302
- 초시 初試 36, 327, 331, 349, 351, 363
- 초입사로 初入仕路 9, 322
- 초입사자 初入仕者 48
- 초자 超資 9, 322
- 초장 初場 340, 341
- 초장 강경 初場講經 317
- 초제 醮祭 19, 93
- 초직 超職 9, 322
- 초학교육 初學教育 314
- 초학교육기관 初學教育機關 316
- 촌 村 165
- 총제 摠制 249
- 《총통등록》 《銃筒謄錄》 265~267
- 총통완구 銃筒碗口 267
- 총통위 銃筒衛 205, 215, 266
- 최무선 崔茂宣 262, 263
- 최충 崔沖 293
- 최치원 崔致遠 283, 304
- 최해산 崔海山 263, 364
- 《추관지》 《秋官志》 360
- 추도기 秋到記 333
- 춘당대시 春塘臺試 292, 320, 328, 331, 335, 342
- 춘도기 春到記 333
- 춘시 春試 328
- 《춘추》 《春秋》 285, 341
- 춘추관 春秋館 24, 68, 60, 69, 87, 88
- 춘추년고 春秋年考 285
- 춘추중월부시 春秋仲月賦詩 336
- 출신 出身 343
- 출육 出六 324
- 출입번장 出入番將 227
- 충량과(시) 忠良科(試) 328, 331, 335
- 충무순금사 忠武巡禁司 204
- 충무위 忠武衛 32, 74, 95, 215, 216, 232
- 충순위 忠順衛 213, 215~217, 219, 227, 319, 357
- 충순호위사 忠順扈衛司 262
- 충용사위 忠勇四衛 201
- 충용위 忠勇衛 220
- 충의위 忠義衛 49, 112, 213, 215, 216, 217, 219, 227, 319
- 충익부 忠翊府 67, 81
- 충익사 忠翊司 81



충장위 忠壯衛 357  
 충좌시위사 忠佐侍衛司 202  
 충좌위 忠佐衛 32, 74, 95, 215, 216, 232  
 충찬위 忠贊衛 112, 213, 215, 217, 227, 319  
 충철위 衝鐵衛 221  
 충호위 忠扈衛 96, 262  
 충훈부(사) 忠勳府(司) 60, 78  
 취라치 吹螺赤 106, 112, 257  
 취재 取才 26, 345, 349  
 치인지학 治人之學 17  
 친군위 親軍衛 112, 213, 217, 218  
 친림과 親臨科 330  
 친림석전 親臨釋奠 283  
 친시 親試 292, 335  
 칠석제 七夕製 331  
 7시관 七試官 335  
 70제자 七十弟子 280  
 7재 七齋 319  
 7통 2략자 七通二略者 337  
 침장고 沈藏庫 85  
 척척칭간자 稱尺稱干者 52, 53

【ㄷ】

타사노비 他司奴婢 290  
 타위 打圍 231  
 탁영시 擢英試 328, 335  
 탐화(랑) 探花(郎) 326  
 탕평과 蕩平科 331  
 탕평비 蕩平碑 282  
 태복감 太卜監 361  
 태봉 泰封 359  
 태사국 太史局 361  
 태의감 太醫監 360  
 태일산 太一算 348  
 태일전 太一殿 93  
 태종 17년 과거법 太宗 十七年 科擧法 318

태평소 太平簫 112  
 태학 太學 279, 319  
 《태학지》 《太學志》 287  
 토관 土官 154, 184  
 토병 土兵 157  
 토성 土姓 183  
 토성사족 土姓士族 5, 152, 153  
 토성이민 土姓吏民 5, 127  
 토성품관 土姓品官 186  
 토역과 討逆科 331  
 토호 土豪 301  
 통 通 285, 333  
 《통감》 《通鑑》 285, 292, 302  
 통독 通讀 286, 328, 333, 334, 342  
 통례문(원) 通禮門(院) 58, 69, 89, 103  
 통문관 通文館 359  
 통소기 通宵旗 229  
 통정대부 좌·우사간 通政大夫 左·右 司諫 58  
 통제영 統制營 359  
 통주 統主 143  
 통진계전 通進啓箋 62  
 통치이데올로기 統治理念 14  
 통행첩 발급 通行帖發給 355  
 퇴계 退溪→이황 李滉  
 투호례 投壺禮 304  
 투화인 投化人 365

【ㅎ】

과방 罷榜 336, 338  
 파수군 把守軍 231  
 파적위 破敵衛 110, 213, 216~218  
 판관 判官 30, 175  
 판병조사 判兵曹事 258  
 판사 判事 247  
 판사제 判事制 68  
 판서 判書 58  
 판적사 版籍司 68

8도 八道 30, 161  
 8도체제 八道體制 4, 125, 126, 128,  
 129, 132, 135, 160, 170, 176  
 8위 八衛 200  
 팔전총통 八箭銃筒 267  
 팔조호구법 八祖戶口法 184  
 팽배 彭排 112, 213, 216, 217, 219  
 평민 平民 51, 321  
 평시서 平市署 68, 84, 85  
 폐문 閉門 230  
 폐현의 분포 廢縣의 分布 138  
 포진 鋪陳 290  
 품계 品階 20, 324  
 풍저창 豐儲倉 57, 68, 84, 290  
 풍패향 豐沛鄉 184  
 풍해도 豐海道 129  
 풍헌 風憲 309  
 피지배신분 被支配身分 46, 47

【ㅎ】

하론 河論 357  
 하액 下額 308  
 하재 下齋 282, 344  
 하회동 河回洞 196  
 학계 學契 316  
 학관 學官 287, 289  
 학관순제 學官旬製 285  
 학관일강 學官日講 285, 287, 293  
 학교사목 學校事目 316  
 학교제도 學校制度 9, 318, 321  
 학당 學堂 9, 290~293, 321  
 학당노비 學堂奴婢 293  
 학령 學令 302  
 학록 學錄 288  
 학벌 學閥 339  
 학사 學舍 303  
 학생 學生 299, 367  
 학유 學諭 288  
 학장 學長 306, 307

학진 學田 38, 289, 293, 310, 311  
 학정 學正 281, 288  
 한관 閑官 302  
 《한문》 《韓文》 302  
 한량 閑良 52, 351, 352  
 한량관 閑良官 22, 38, 305  
 한량관리 閑良官吏 210  
 한량품관 閑良品官 26  
 한리과 漢吏科 337  
 한성부 漢城府 29, 59, 60, 72, 75~77,  
 86, 101, 160, 169, 178, 327, 337  
 한성시 漢城試 284, 327, 341  
 한양부 漢陽府 75, 86  
 한양친도 漢陽遷都 129, 130  
 한어과 漢語科 363  
 한어도감 漢語都監 359  
 한옹 韓雍 139  
 한직 寒職 306  
 한품서용 限品敍用 23, 48  
 한학 漢學 50, 299, 363, 367  
 한학교수 漢學教授 300  
 함흥 咸興 306, 359  
 합제 合製 342  
 합좌기관 合坐機關 2  
 해미 海美 149  
 해운판관 海運判官 176  
 해주 海州 129, 168, 174, 239, 359  
 해평현향교기문 海平縣鄉校記文 139  
 행대감찰 行臺監察 173  
 행수법(제도) 行守法(制度) 21, 171  
 행수직 行守職 120  
 행순 行巡 227  
 행영체제 行營體制 177  
 행재소 行在所 329  
 행정촌 行政村 144  
 행직 行職 120  
 행학 幸學 284  
 향 香 290  
 향 鄉 138, 141~143  
 향관 鄉貫 152

- 향관청 享官廳 282  
 향교 鄉校 9, 34, 35, 52, 139, 279, 292, 296, 300~312, 316, 321, 344, 347, 348  
 향교 교관 鄉校敎官 304, 305, 307  
 향교 교도 鄉校敎導 305  
 향교 교육 鄉校敎育 301, 307  
 향교노비 鄉校奴婢 311, 312  
 향교노비신공 鄉校奴婢身貢 310  
 향교생도 鄉校生徒 301, 303  
 향교위전 鄉校位田 156  
 향교재정 鄉校財政 312  
 향교전 鄉校田 310, 312  
 향교제향 鄉校祭享 304  
 향권 鄉權 305  
 향규 鄉規 191, 192, 193  
 향내 鄉內 192  
 향도 香徒 189, 195  
 향도회 香徒會 195  
 향리 鄉吏 47, 124, 137, 145, 151~158, 182, 183, 192, 299, 365  
 향리 복식 鄉吏服飾 150~158  
 향리안 鄉吏案 155  
 향리의 면역·종사 鄉吏의 免役·從仕 156  
 향리의 직제개편 鄉吏의 職制改編 156  
 향리 입사로의 제한 鄉吏 入仕路의 制限 156  
 향망 鄉望 188, 191  
 향반 鄉班 182  
 향사당 鄉射堂 187, 192, 193  
 향사례 鄉射禮 304  
 향선생 鄉先生 313  
 향·소·부곡 鄉·所·部曲 141~143  
 향시 鄉試 35, 384, 327, 341, 349, 363  
 향실 香室 281  
 향안 鄉案 191~193, 304, 309  
 향약 鄉約 31, 34, 156, 191, 194, 195  
 향약의 조직 鄉約의 組織 14  
 향음주례 鄉飲酒禮 304  
 향임 鄉任 309  
 향전 鄉戰 305  
 향청 香廳 282  
 향청 鄉廳 31, 188  
 향청의 임원 鄉廳의 任員 179  
 향촌공동체 鄉村共同體 195  
 향촌사회 鄉村社會 190, 314, 315  
 향촌 재지세력 鄉村在地勢力 26  
 향촌 지배세력 鄉村支配勢力 14  
 향통사 鄉通事 359  
 향헌 鄉憲 194  
 향호 鄉戶 154  
 허직 虛職 99, 100, 109  
 헌 軒 313  
 헌관 獻官 283, 984  
 헌납간쟁 獻納諫諍 62  
 헌부 憲府 25  
 혁거사찰노비 革去寺刹奴婢 293  
 현감 縣監 137  
 현관 顯官 48, 51, 289, 299  
 현관 賢關 279  
 현량과(시) 賢良科(試) 14, 328, 335  
 현물녹봉제 現物祿俸制 39  
 현사 縣司 138, 139, 165  
 현직자 顯職者 37, 39  
 형이상의 리 形而上의 理 14  
 형이하의 기 形而下의 氣 14  
 형조 刑曹 28, 60, 67, 70, 72, 75, 360  
 형조 속아문 刑曹屬衙門 97  
 혜민고국 惠民庫局 360  
 혜민서(국) 惠民署(局) 69, 91, 360  
 호군 護軍 222, 228  
 호군청 護軍廳 226  
 호·보제도 戶·保制度 214  
 호분순위사 虎賁巡衛司 202  
 호분위 虎賁衛 32, 74, 95, 315, 216, 232  
 호수 戶首 211, 212  
 호아사 虎牙司 204

- 호역 戶役 302  
 호용순위사 虎勇巡衛司 202  
 호익순위사 虎翼巡衛司 202  
 호장 戶長 156, 157  
 호정 戶正 158  
 호조 戶曹 28, 67, 68, 290  
 호조 속아문 戶曹屬衛門 82  
 호패법 號牌法 150, 213  
 홀치 忽赤 200  
 홍건적 紅巾賊 313  
 홍무례제 洪武禮制 283  
 홍문관 弘文館 24, 29, 60, 69, 72, 86, 103, 325, 337  
 홍패 紅牌 328, 364  
 화령부 和寧府 148  
 화리 花利 310  
 화약감조청 火藥監造廳 263  
 화약장 火藥匠 263  
 화엄사상 華嚴思想 18  
 화차 火車 264, 269  
 화조 火鎗 265  
 화통군 火桶軍 263  
 화통도감 火桶都監 262, 263  
 화포 火炮 264  
 화포방사군 火炮放射軍 265  
 화포진 火炮箭 265  
 화학 畵學 296, 297, 361, 362  
 환안제 還安祭 304  
 환자곡 還上穀 272, 274  
 활인서(원) 活人署(院) 69, 91  
 황감시 黃柑試 292, 320, 342, 344  
 황감제 黃柑製 328, 332, 334  
 황주 黃州 129, 168, 243, 360  
 황현 黃玹 341  
 회강 會講 329, 331  
 회계사 會計司 68  
 회사 繪史 2財  
 회시 會試 327  
 회양 淮陽 147  
 《효경》 《孝經》 292, 301  
 효령대군 孝寧大君 193  
 후위(충무위) 後衛(忠武衛) 32  
 훈구파 勳舊派 14, 125  
 훈도 訓導 149, 293, 300, 307  
 훈도관 訓導官 292, 306  
 훈련관 訓練驕 57, 97, 256~258, 347  
 훈련원 訓練院 69, 97, 104, 112, 262, 325, 349, 356  
 《훈민정음》 《訓民正音》 358  
 훈식 訓釋 285  
 훈신세력 勳臣勢力 3  
 홀양전 恤養田 38, 39  
 흥신궁 興新宮 85  
 흥위위 興威衛 199

## 집필자

개요 ..... 이준희

### I.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1. 정치사상의 기반 ..... 이준희
2. 통치구조 ..... 이준희
3. 경제구조 ..... 이준희
4. 사회신분구조 ..... 이준희

### II. 중앙 정치구조

1.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 한충희
2. 관직과 관계 ..... 한충희

### III. 지방 통치체제

1. 지방 통치체제의 특징 ..... 이수건
2. 8도체제의 확립 ..... 이수건
3. 군현제의 정비 ..... 이수건
4. 행정구역과 행정체제 ..... 이수건
5. 지방자치적 기구 ..... 이수건

### IV. 군사조직

1. 초기 군사제도의 정비 ..... 차문섭
2. 5위체제의 확립과 중앙군제 ..... 차문섭
3.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 차문섭
4. 군령·군정기관의 정비 ..... 차문섭
5. 군비의 확충 ..... 차문섭

## V.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1. 관 학 ..... 이 성 무
2. 사 학 ..... 이 성 무
3. 과거제의 정비와 운영 ..... 이 성 무
4. 과거의 종류 ..... 이 성 무

# 한 국 사

23

##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1994년 9월 5일 인쇄      정부간행물심의필  
1994년 9월 10일 발행      (No. 93-14-7-7)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서계동 260-1  
전화 730-8670

---